2025. 유치원 현직연구원 개발자료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종이와 **콩기름잉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글로컬 2030 수업모델

유아의 좋은 삶을 디자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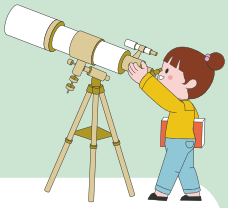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 development institute

글로컬
2030
수업모델

유아의 좋은 삶을 디자인하다



Contents



Ⅰ. 자료 개발의 필요성 4

Ⅱ. 자료의 이해 및 활용 안내 5

Ⅲ. 이론적 배경 6

Ⅳ. 공동교육과정 계획 10

Ⅴ. 2030교실 수업 운영 사례 17

1. 매일 새롭게 만나는 '우리 동네' 이야기 18
2. 우리 교실을 시장처럼 꾸미면 어때요? 40
3. 고마운 이웃, 다양한 직업을 만나다 61
4. '우리 동네'를 걷고, 기록하고, 노래하다. 보성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이야기 80
5. 스스로, 천천히, 함께 만들어간 '우리 동네' 이야기 104
6. '우리 동네'에서 시작해서 '이야기가 흐르는 영산강'으로 가기까지의 여정 130

Ⅵ. 에필로그 151





Ⅰ. 자료 개발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교육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고자 시작된 유아 2030교실은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유아·놀이 중심의 질 높은 수업을 통해 유아의 좋은 삶(Well-Being)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2030교실의 수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실행되어야 할까?

2030교실은 유아가 스스로 배우고 탐구하는 주도적 배움의 과정을 지향하며 교사는 그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적 교육 관계를 실현함으로써 교사와 유아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전남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즐겁게 배워나갈 수 있는 수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 교사들이 협력적으로 수업을 연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아의 삶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기반한 수업 사례의 개발과 공유가 필요하다. 이는 곧 교실 수업으로 연결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2025. 유치원 현직연구원들은 전라남도가 직면한 교육의 현실 즉, 취원 유아 감소, 작은 유치원 및 다문화 가정 유아 증가 등 유치원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유아의 삶에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 교육과정 내용 등에 대해 공동으로 사고하면서 유아의 개별성을 고려한 교사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계획과 더불어 유아가 주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유연하게 재구성하는 수업의 방향성을 담은 「유아의 좋은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글로컬교육 2030교실 수업 모델 개발」 자료를 개발하게 되었다.



Ⅱ. 자료의 이해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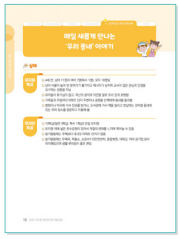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 주도성에 기반한 2030교실 수업의 실제 운영 사례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이 놀이중심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30교실 수업 운영 사례

-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설계된 '우리 동네' 생활주제에 따라 수업을 전개하였다.
- 유치원별로 전개된 생활주제의 흐름에 따라 주간별로 순차적으로 기록하였으며 그 과정에 '2030교실 수업'을 표시하였다.
- 수업 운영 사례의 세부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유치원 또는 학급 실태 분석



지역적 특성, 유치원 환경, 학급 구성, 유아의 사전 경험 등 서로 다른 여건을 지닌 학급의 실태를 분석하여, 사례 수업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였다.

2. 생활주제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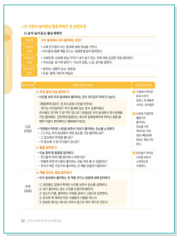
'우리 동네'를 주제로 5주간의 공동교육과정을 작성한 뒤,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실제로 운영한 4~5주간의 주제 흐름과 수업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특히, 이 중 보다 깊이 있게 실행한 '2030교실 수업' 주간을 별도로 표시하여 수업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3. 2030교실 수업



'2030교실 수업' 주간에는 우리 학급의 실태에 맞는 수업을 교사의 교육적 의도에 따라 어떻게 계획하고 지원했는지를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특히, 진행된 활동의 흐름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제시하여 수업 전개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의 흥미와 놀이 모습을 반영하여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을 작성하였다.

3-2 실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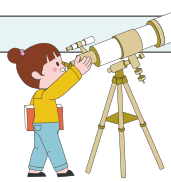


2030교실 수업이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의 참여 모습, 교사의 성찰 과정 등 놀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진행된 놀이 및 활동 흐름을 순서대로 제시하여 수업 운영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유아의 주도성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실천 과정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에필로그



'우리 동네' 5주 공동교육과정을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직연구원들이 경험한 배움, 변화, 성장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는 현장 교사들이 수업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고민과 성찰을 공유하고, 2030교실수업을 운영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Ⅲ. 이론적 배경



가. 유아 주도성을 키우는 2030교실 수업

유아의 주도성을 키우는 '2030교실 수업'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다가올 2030년 교육 환경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 대전환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은 유아의 삶과 놀이를 중심으로 유아가 스스로 배우고 탐구하는 주도적 배움의 과정을 지향한다. 나아가 전남의 교육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과 유치원의 특색을 살린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30교실'은 유아 주도성과 교사 주도성이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수업 공간으로, 유아가 스스로 배움의 주체로 성장하고 교사는 그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적 교육 관계를 실현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2030교실 수업'은 유아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사와 유아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전남형 미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나. 유아를 위한 2030교실

2030교실이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르는 유아 주도성 키움 수업과 전라남도가 직면한 교육의 현실 즉, 취원 유아의 감소나 작은 유치원 및 다문화 가정 유아의 증가 등 2030년 교육 상황을 대비한 수업을 담는 공간으로 수업 대전환을 촉진하고 K-에듀를 선도하는 교실이다. 이런 2030교실의 일환인 유아를 위한 2030교실은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한 유아·놀이 중심의 질 높은 수업으로 유아의 좋은 삶(Well-Being)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실을 의미한다.

2030교실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공간에서 벗어나, 유치원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특화된 교실이며, 유아의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경험과 배움을 확장하고, 유아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특색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2030교실은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전남의 교육 현실에서 소규모 유치원 유아들이 더 많은 유아들과의 상호작용, 다채로운 놀이와 경험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놀이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은 두 개 이상의 소규모 유치원이 단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협력적 교육 방식이다. 각 유치원은 자원과 시설을 공유하고,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편성·운영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함으로써 놀이, 일상생활, 활동, 행사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전남 지역의 소규모 유치원에서는 취원 유아 감소라는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또래관계 및 놀이 경험을 누릴 수 있으며, 또래와의 만남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험을 확장하고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교사들에게는 상호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여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 수나 자원의 부족 등 소규모 유치원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며, 참여 유치원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각자 또는 공동으로 실행하며 연합운동회, 문화 체험, 환경 캠페인과 같은 공동 행사나 특별활동을 통해 교육과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교재와 교구, 시설을 공유하거나 순환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학기 및 방학 중 방과후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와 유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연수나 워크숍에 함께 참여하여 교육과정 운영 능력과 전문성을 개발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라. 유아 주도성의 의미

미래의 수업은, 전남의 2030년 교육상황을 반영하여 유아의 삶을 토대로 즐겁게 참여하며 배우는 수업이다. 즉 유아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는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지 주도성의 사전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교사가 유아와 함께 생활하며 누구나 공감하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유아 주도성'의 조작적 정의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현직 연구원들은 주도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흥미, 관계, 자기조절, 개별성, 자발성, 배움, 상호작용, 몰입(지속성)과 같은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이 키워드를 토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주도성의 정의를 내려보았고, 이를 공유하며 의미를 확장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협력적 주도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상호작용'과 '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놀이와 수업에서 주도성이 분리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공동체적 측면에 주목하여 일반적 주도성의 개념을 넘어 유아교육, 특히 수업 맥락에 적합한 의미로 정리하자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키워드는 정리하고, 주도성을 잘 드러내는 핵심 가치로 자발성, 자기조절, 상호작용, 지속성을 선별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시 정의를 재구성한 결과, 현직 연구원들이 합의한 유아 주도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아 주도성이란, 유아가 자신의 흥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며 자기조절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자기조절은 놀이와 활동에 대한 몰입과 지속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주도성'의 의미를 기반으로 유아의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교사의 세심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더불어, 서로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실행과정을 통해 유아의 삶과 연결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마. 교사 주도성의 의미와 주도성을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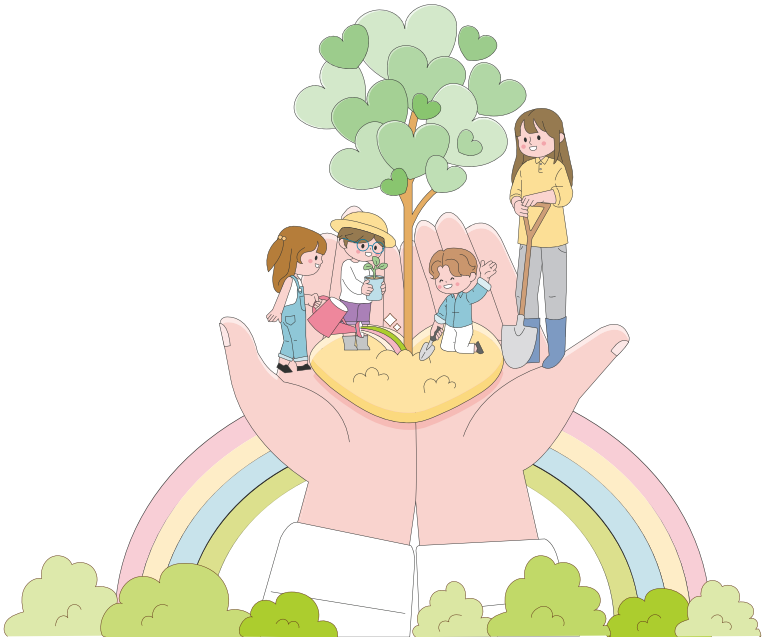
유아교육에서 교사 주도성은 단순히 수업을 이끌어가는 권한이나 통제의 의미가 아니라, 교육 전문가로서 유아의 발달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과정에서 수업 상황, 유아들의 반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재구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교사의 주도성은 유아의 주도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즉, 유아가 자신의 경험과 흥미에 따라 자발적으로 놀이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그 경험이 교육적으로 의미있게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사 주도성이라 할 수 있다.

주도성을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먼저 유아를 세심히 관찰하고, 그 행동과 말을 해석하여 유아의 발달적 요구와 흥미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유아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공간을 제공하며, 정서적으로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도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사는 유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배우는 과정에서 적절히 개입하며, 질문을 하거나 지지하고 격려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며,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교사 또한 유아와 협력하며 함께 배우고 탐구하는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교사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유아의 관심과 흥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단순히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유아의 흥미가 지속적인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 주도성을 넘어 공동체적 주도성까지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국 교사 주도성은 유아 주도성을 존중하면서도 교육적 의도성을 유지하는 균형 속에서 발휘되며, 이를 통해 유아의 삶과 배움이 더욱 풍성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배움은 자연스럽게 배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배움은 교사의 세심한 계획과 지도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사의 주도성은 유아의 주도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유아와 의견을 나누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유아의 흥미를 발견하고, 이에 따른 경험과 배움을 심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기회를 마련하는 촉진자이다. 또한, 유아가 놀이와 수업에서 자발성과 지속성을 발휘하도록 돕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적 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의 주도성이 곧 유아 주도성을 길러내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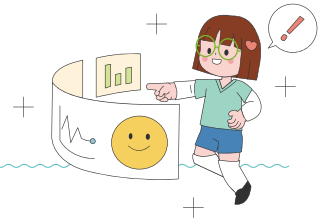
교사는 유아 주도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하며, 미래 수업 또한 교사와 유아가 서로의 주도성을 존중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Ⅳ. 공동교육과정 계획

유아2030교실 수업 모델 개발은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속에서 유아·놀이 중심의 질 높은 수업을 실천하고, 유아의 삶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향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환경 속에서 지역의 특성이 유아·놀이중심교육과정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역연계 수업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5개 시·군의 현직 연구원들이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을 넘어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성과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따른 교육적 경험과 활동 내용을 구조화하여 공동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은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적용·운영하여 유아2030교실 수업 모델의 기반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우리 동네’ 공동교육과정

가. 주제 선정의 배경

유아기는 자신이 속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마을과 동네를 이해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경험하면서 지역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생활공간과 실제 경험이 연결되면서 가정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배움이 확장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동네’는 유아들이 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주도적으로 궁금증을 제기하고 탐색할 기회가 많으며, 여러 지역이 같은 주제를 운영하지만 각 지역 자원과 유치원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 공동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주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자신의 고장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참여 및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나. 주요 내용

유아에게 필요한 경험	교육과정 내용
• 나는 ○○에 산다. 나랑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도 있다. • 우리 동네에는 다양한(숲, 공원, 시장, 마트, 세차장, 주유소 등)이 있다. • 우리 동네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한다. • 우리 동네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산다. •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 우리 동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중요하다. • 우리 동네에는 우리가 편히 살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관이 있다. • 우리 동네의 공간과 기관을 바르게 이용한다. •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 우리 동네는 ○○이 유명하다. • 우리 동네는 여러 사람들이 찾아온다. • 우리 동네는 살기 좋은 곳이다. • 행복한 우리 동네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 실내외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을 말한다. •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 탐구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 •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짓는다.

다. 주제 흐름도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
- 우리 동네 자연환경
- 우리 동네 이름
- 우리 동네 상징
- 우리 동네 위치

우리 동네 사람들
- 우리 동네 사람들 직업
- 우리 동네 기관
- 우리 동네에 사는 이웃

우리 동네를 알려요
- 우리 동네 자랑거리 (맛, 멋, 얼)
  (먹거리, 볼거리, 체험)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요
- 환경
- 예절
- 배려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1주)

자유 놀이

- [쌓기, 미술영역] 우리 동네를 꾸며요
- [쌓기영역] 우리 동네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 블록으로 구성하기
- [쌓기영역] 우리 동네 산책 공간을 만들어요
- [역할영역] 우리 동네 건축가
- [역할영역] 우리 동네 안내소
- [미술영역] 색으로 표현하는 우리 동네
- [미술영역] 우리 동네 주변 간판 만들어 보기
- [과학, 디지털영역] 지도 앱으로 우리 동네의 360도 거리뷰 탐색하기
- [음률영역] 우리 동네 소리 듣기 명상 코너
- [수조작영역] 우리 동네 건물 퍼즐 맞추기
- [수조작영역] 우리 동네 이름과 상징 퍼즐 맞추기
- [모래놀이] 우리 동네 강과 길 구성하기
- [모래놀이] 우리 동네 지형 놀이
- [캔바·유아가 그린 그림 활용] 우리 동네 지도 만들기

일상생활

- (가정 연계, 패들렛 공유) 우리 동네 자주 가는 곳, 좋아하는 곳 사진찍기
- (가정 연계, 패들렛 공유) 우리 동네 생활공간 경험하고 사진 찍기
- 등·하원길에 우리 동네 모습 관찰하기
- 산책 시 우리 동네 소리 듣기 (자연, 생활 등)
- 산책 시 우리 동네 위험한 곳, 안전한 장소 찾아보기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

기간

2025. 5. 26.(월)~ 5. 30.(금)

목표

- 우리 동네의 모습에 관심을 가진다.
- 우리 동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한다.
- 우리 동네를 친숙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환경과 지원

- 우리 동네 지도 공동작품 게시
- 우리 동네 이름은 동요판(QR)
- 우리 동네 이름, 상징과 관련한 그림 자료

활동

- (이야기나누기) ○○동은 어떤 곳일까?
- (이야기나누기) 우리 동네 이름과 상징 알아보기(마스코트, 시화, 시조 등)
- (이야기나누기) 내가 가 보았던 우리 동네 공간을 이야기해요
- (미술) 우리 동네 지도 만들기
- (미술) 우리 동네 상징(마스코트) 그리기
- (미술) 안전한 유치원 주변 만들기(안전 표지판)
- (음악) '우리 동네 이름은' 개사하여 부르기
- (동화) 로지의 산책
- (동화) 우리 동네 유래 이야기
- (바깥놀이) 유치원 주변 돌아보기
- (체험학습) 우리 동네 탐험(공공기관, 마트)

우리 동네 사람들(2주, 3주)

자유 놀이

- [쌓기영역] 우리 동네 일하시는 사람들 일터 만들기
- [역할영역] 바꾸고 나누는 시장 놀이
- [역할영역] 우리 동네 가게 놀이
- [역할영역] 우리 동네 사람들 역할 놀이(택배 놀이, 미용실, 마트, 정비소 등)
- [언어영역] 직업 수수께끼(말, 몸짓)
- [언어영역] 우리 동네 직업 그림과 글자 연결하기
- [언어영역] 우리 동네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 관련 질문 카드 만들기(패들렛 & 캔바)
- [미술영역] 다양한 직업 역할 놀이 간판 만들기
- [미술영역] 직업 가면 꾸미기
- [미술영역] 마을 인물 카드 만들기
- [수조작영역] 우리 동네 기관 메모리 게임

일상생활

-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 등·하원 길에 만나는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
- 우리 동네에서 일하는 부모님 초청,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

우리 동네 사람들

기간
2025. 6. 2.(월)~ 6. 13.(금)

목표
- 공공 기관의 역할, 이용 규칙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우리 동네의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다.
-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환경과 지원

- 우리 동네 다양한 가게 및 일하는 사람 사진 안내판

활동

- (이야기나누기)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 (언어)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는 편지쓰기
- (동극) 우리 동네 일하는 사람 인터뷰 놀이(리포터 놀이)
- (신체) 우리 동네 일하는 사람 표현하기
- (게임) 다양한 직업 퀴즈 놀이
- (게임) 일하는 모습과 직업 도구 찾기
- (체험학습) 우리 동네 궁금한 장소 방문하기

우리 동네를 알려요(4주)

자유 놀이

- [쌓기, 역할영역] 우리 동네 축구장 구성하고 축제 놀이하기
- [쌓기영역] 우리 반에 축제가 열렸어요(이웃반 초대)
- [역할영역] 우리 동네 자랑거리 방송국 놀이
- [언어영역] 나만의 ○○동 책 만들기
- [미술영역] 우리 동네 미니어처 만들기
- [과학영역] 우리 동네 QR 보물찾기(우리 동네 자랑거리)

일상생활

- (급·간식) 우리 동네 특산물을 찾아보고 먹어보아요
- (가정 연계) 특산물을 찾아보아요 (마트에서 로컬 푸드 찾아보기)
- (가정 연계) 지역 먹거리(특산품) 먹어보기
- (가정 연계) 우리 동네에서 알리고 싶은 곳 사진전(패들렛 공유)
- (가정 연계) 우리 동네 자랑거리 경험한 사진 공유
- (가정 연계) 가족과 지역 명소 방문하기
- (가정 연계) 우리 동네 축제 참여하기

우리 동네를 알려요

기간

2025. 6. 16.(월)~ 6. 20.(금)

목표

-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에 관심을 가진다.
- 우리 동네와 지역의 자랑거리를 경험한다.
- 우리 동네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가진다.

환경과 지원

- 우리 동네 자랑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안내판

활동

- (이야기나누기) 다른 지역 친구에게 우리 동네를 소개해요
- (이야기나누기) 우리 동네 관광지 알아보기
- (토의, 언어) 우리 동네 홍보 영상 만들기
- (언어) 우리 동네 이야기 책 만들기(캔바 & 북 스크랩)
- (음악) 우리 동네 홍보 음악(노래) 만들기(디지털 suno app)
- (미술) 우리 동네 특산품 홍보지 만들기
- (미술) 천연 염색 경험하기
- (체험학습) 지역 명소 체험학습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요(5주)

자유 놀이

- [미술영역] 쓰레기 몬스터 인형 만들기
- [미술영역] 깨끗한 동네 만들기(협동화)
- [미술영역] 안전한 동네 만들기(안전 표지판)

일상생활

- 우유갑을 종량제 봉투로 바꾸기
- 등·하원 길에 우리 동네에서 불편한 부분 등에 대해 관찰해보기
- (가정 연계) 깨끗한 우리 동네를 위한 약속 실천하기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요

기간

2025. 6. 23.(월)~ 6. 27.(금)

목표

-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위해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 우리 동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환경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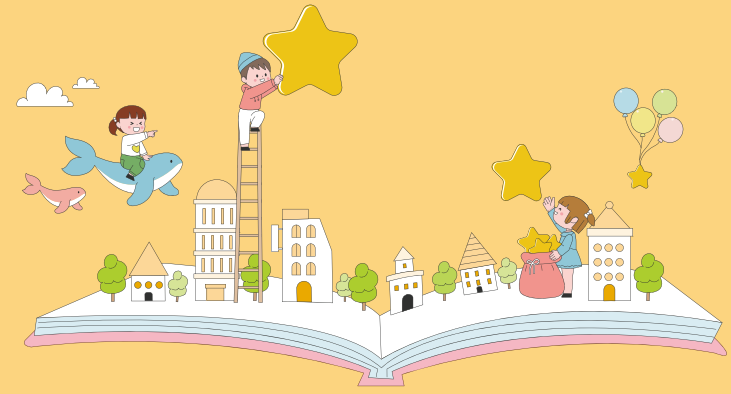
-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우리 반 약속판
- 유치원 등·하원 시 우리 동네 불편한 점 공유하기
-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우리 반 약속, 가정과 연계하기

활동

- (이야기나누기) 동네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 알아보기
- (이야기나누기) 우리 동네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 (이야기나누기)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면?
  (지역 환경단체 줍깅, 행사(독거노인 돕기)가 있어요 사례 공유)
- (이야기나누기)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약속 만들기
- (언어) 우리 동네 책 출판 & 전시회(가정, 이웃, 유치원 등)
- (언어) 규칙 카드 만들기
- (미술) 우리 동네 벽화 그리기
- (게임) 쓰레기 분류 게임
- (동화)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 (체험학습) 우리 동네 쓰레기 줍기(플로깅)
- (체험학습) 깨끗한 우리 동네 환경 사랑 캠페인

글로컬 2030 수업모델

유아의 좋은 삶을 디자인하다





V

2030교실 수업 운영 사례



1. 매일 새롭게 만나는 '우리 동네' 이야기 ····· 18

2. 우리 교실을 시장처럼 꾸미면 어때요? ····· 40

3. 고마운 이웃, 다양한 직업을 만나다 ····· 61

4. '우리 동네'를 걷고, 기록하고, 노래하다. 보성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이야기 ····· 80

5. 스스로, 천천히, 함께 만들어간 '우리 동네' 이야기 ····· 104

6. '우리 동네'에서 시작해서 '이야기가 흐르는 영산강'으로 가기까지의 여정 ····· 130







매일 새롭게 만나는 '우리 동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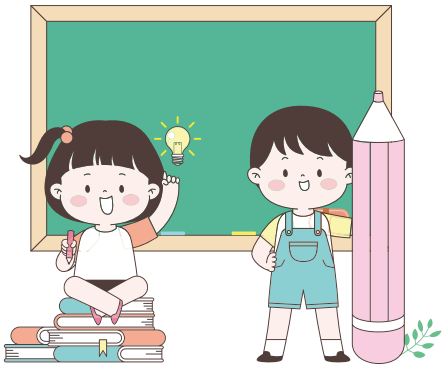
실태

유치원 특성

- 10학급(일반 9학급, 특수 1학급) 단설 유치원
- 유치원 뒤에 넓은 호수공원이 있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뛰어놀 수 있음
- 빛가람동에는 주택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음
- 빛가람동에는 우체국,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종합병원, 대학교, 여러 공기업 등이 위치해 있으며 생활 편의성이 좋은 편임

우리반 특성

- 4세 반, 남아 11명과 여아 7명(특수교육대상자 1명), 모두 18명임
- 남아 비율이 높아 반 분위기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며 교사의 많은 관심과 인정을 요구하는 성향을 지님
- 유아들이 호기심이 많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로 조리 있게 표현함
- 가족들과 주말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공원을 산책하며 동네를 둘러봄
-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등 동네에 있는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이용해 봄



생활주제의 흐름

1주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

2030교실 수업주간

- 언어 |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 바깥놀이 | 우리 유치원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언어 |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어요
- 조작 | 우리 반이 좋아하는 장소 그래프
- 조작 | 우리 동네 퍼즐 맞추기
- 미술 | 우리 동네 집 지도 만들기
- 쌓기 | 우리 동네 지도 만들기
- 일상생활 | 등·하원길에 우리 동네를 관찰해요
- 가정 연계 | 우리 동네에서 내가 좋아하는 곳 사진을 찍어요

2주 우리 동네 사람들

- 이야기나누기 |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 투표 | 궁금한 직업 투표하기
- 이야기나누기 | 경찰관이 궁금해요(질문 목록)
- 역할 | 경찰관 놀이
- 체험학습 | 광주어린이교통공원
- 언어 | 교통표지판 알아보기
- 일상생활 | 동네 어른께 인사하기
- 환경 | 다양한 직업 의상과 소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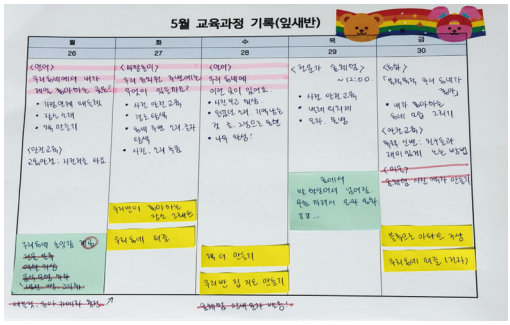
3주 우리 동네 사람들

- 동화 | 한이네 동네 시장이야기
- 동요 | '시장 잔치' 노래 부르기
- 언어 | 말놀이 '시장에 가면'
- 투표 | 내가 '한이'라면, 어디에 가고 싶나요?
- 역할 | 시장 놀이를 해요
- 일상생활 | 가족과 마트나 시장 다녀오기
- 환경 | 시장에서 파는 물건 놀이 자료

4주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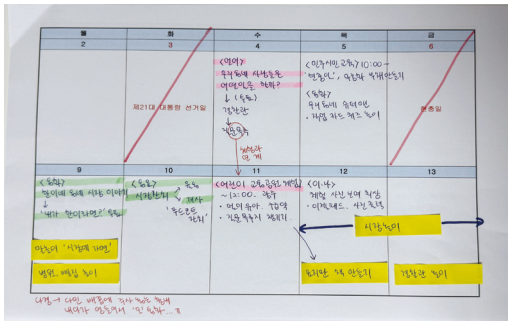
- 바깥놀이 | 산책하면서 우리 동네 돌아보기
- 이야기나누기 | 호수공원 물이 초록색인 이유 알아보기
- 게임 | 쓰레기 낚시 놀이
- 바깥놀이 | 유치원 주변 줍깅 실천하기
- 일상생활 | 분리수거 실천하기
- 환경 | 환경보호 실천 포스터

(1주)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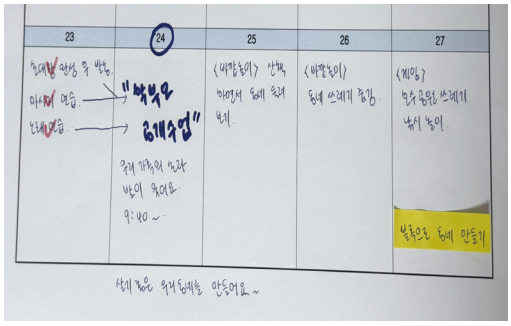
- **기간** 2025년 5월 25일(월) ~ 5월 30일(금)
- **목표**
  - 우리 동네의 모습에 관심을 가진다.
  - 우리 동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한다.
  - 우리 동네를 친숙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2~3주) 우리 동네 사람들



- **기간** 2025년 6월 2일(월) ~ 6월 13일(금)
- **목표**
  - 우리 동네의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가진다.
  - 우리 동네의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다.
  -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4주)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요



- **기간** 2025년 6월 23일(월) ~ 6월 27일(금)
- **목표**
  -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위해 지켜야 할 약속에 관심을 가진다.
  -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 우리 동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1주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2030교실 수업)

• 수업의 시작

우리 유치원은 혁신도시에 위치해 생활 편의성이 높다. 우리 반 유아들은 대부분 맞벌이 가정의 자녀로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동네를 둘러본다.

우리 동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아들에게 "우리 동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유아들이 '집'이라고만 대답하거나 구체적인 장소를 떠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경험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교사는 유아들이 우리 동네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직접 찾아보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다양한 장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였다. 더불어 유치원 주변을 함께 둘러보며,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동네의 모습 속에서 간판에 적힌 글자, 표지판의 모양, 주변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 등 재미있는 요소를 감각적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이후 유아들이 발견한 장소와 소리, 글자를 모아 '소리나무'와 '글자나무'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를 시각적이고 통합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유아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해 이해하고 친숙함과 소속감을 느끼며 '우리 동네'를 나와 연결된 공동체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 수업의 흐름

우리 동네에서 내가 좋아하는 곳은?	우리 유치원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어요
• 사진을 보며 내가 좋아하는 장소 소개하기 • 책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 친구와 함께 우리 동네 책 만들기 • 완성한 책 공유하기	• 산책 약속 알아보기 • 산책하면서 유치원 주변 둘러보기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자전거 보관소, 호수공원 다리 등) • 동네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을 사진, 녹음으로 기록하기 • 안전하게 돌아오기	• 산책 때 본 것 말놀이하기 • 새롭게 발견한 우리 동네 모습 떠올리기 • 산책 때 들었던 소리와 글자를 기억하여 표현하기 • 완성된 우리 동네 나무 감상하기

- 가정과 연계한 사전활동(가족과 우리 동네 산책하기, 내가 좋아하는 장소 사진 찍기 등)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동네를 충분히 경험하고 탐색하도록 지원한다.
- 결과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동네의 모습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한다.
-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며 협력적 주도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유아가 관찰한 장소나 소리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로의 생각과 표현을 존중하도록 격려한다.
- 유아들이 함께 만든 공동의 결과물(책, 나무 등)을 통해 '우리 동네'라는 공동체를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 (3-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활동명	우리 동네에서 내가 좋아하는 곳은?
기대되는 배움	• 나와 친구들이 사는 동네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친구들과 함께 책을 만드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교육과정 내용	•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성향적 요소 – 독립성 • 인성: 협력 – 개인적 책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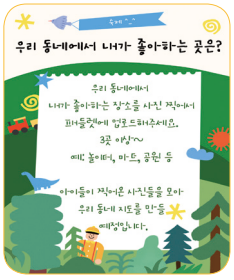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20분)	☑ **우리 동네 모습 알아보기** • 가정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소개한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빛가람동에 있는 호수공원이에요. 선생님은 빛가람동에서 호수공원을 가장 좋아해요. 잔잔하게 일렁이는 호수와 알록달록하게 피어난 꽃을 볼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 ○○이는 우리 동네에서 어떤 장소를 가장 좋아하나요? –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했나요? –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좋아하는 곳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 **활동 알아보기** • 오늘 함께 할 활동을 알아본다. – 우리가 찍은 사진으로 좋아하는 곳 책을 만들면 어떨까요?	자 가정에서 찍어온 동네 사진이 업로드 된 패들렛 사이트, 전자칠판 유 사전에 가정연계 활동으로 좋아하는 장소를 사진 찍어서(2~3개 정도) 패들렛에 업로드 해오기로 한다. 유 유아들이 찍어온 사진을 보면서 소개하도록 지원한다.
전개 (30분)	☑ **책을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 우리 동네에서 좋아하는 곳 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① 모둠별로 집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면서 장소를 살펴본다. ② 내가 좋아하는 장소 사진을 도화지에 붙인다. ③ 장소의 이름, 좋아하는 이유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한다. ④ 표지에 책 제목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다. ⑤ 완성한 종이는 링으로 엮어서 책으로 만든다. – 우리 동네 책에 어떤 것을 담고 싶나요? – 우리 동네에 대한 책이라면 누구와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내가 좋아하는 장소의 사진을 붙이고,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도록 글로도 적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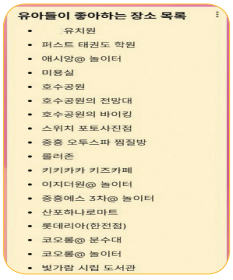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30분)	– 글을 못 쓰는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 사진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 **우리 동네 책 만들기** • 친구와 함께 우리 동네 책 만들기 활동을 한다. – 여기 있는 사진 중에서 책에 넣고 싶은 장소를 골라볼까요? – 같은 곳을 찍은 사진은 어떻게 할까요? – 두 장을 한쪽에 같이 붙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 여기에 뭐라고 쓰고 싶나요? – 선생님이 써 줄까요, 보고 쓰고 싶은가요? – 장소 사진 옆에 그려주고 싶은 것이 있나요? – 다 만들어졌으면 어떤 순서대로 엮으면 좋을지 생각해 볼까요? – 자리를 정리하고 모이기로 해요.	자 A3용 도화지, 표지용 도화지, 유아들이 찍어온 동네 사진, 가위, 풀, 사인펜, 스티커, 고리링, 펀치
마무리 (10분)	☑ **경험 공유하기** • 모둠별로 만든 우리 동네 책을 소개한다. – '우리 동네'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소는 어디였나요? –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 만약에 우리가 저 곳에 간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 책을 만들면서 어떤 점이 재미있었나요? –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 이 책은 어디에 두고 싶나요? –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나요? • 다음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다음 시간에는 우리 동네를 둘러보면서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찾아보기로 해요.	유 발표를 어려워 하는 유아는 친구와 함께 소개하거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평가 관점	☑ 나와 친구들이 사는 동네에 관심을 가지는가? ☑ 친구들과 함께 책을 만드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는가?	

2) 실행 과정

도입 **가정에서 찍어온 우리 동네 사진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장소 소개하기**

'우리 동네'에 대한 수업을 구상하던 중에 유아들에게 "우리 동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물으며 사전 경험을 파악하고자 한 적이 있었다. 유아들은 '집, 마트, 유치원'이라는 장소들만 말하였고, 이를 통해 유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동네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가정 연계 활동으로 주말 동안 가족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 세 곳을 사진으로 찍어오도록 하는 사전활동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유아1: 난 경찰서 못 봤는데. 경찰서가 어디에 있어?
유아2: 우리 집 옆에 있어.
유아1: 나도 가고 싶다, 너희 집은 어디야?
유아2: 난 이지더원 아파트에 살아.
교사: ○○이는 우리 동네에 경찰서가 있는 줄 몰랐군요. □□이가 사는 이지더원 아파트랑 ○○이가 사는 애시앙 아파트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를 타고 가야 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경찰서가 안 보였을 거예요.

유아들은 동네에 있는 줄 몰랐던 가게나 기관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친구들의 사진 속에서 흥미로운 장소가 나오자 질문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표현하고 새로운 동네 모습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의 대화를 경청하며 거리 개념을 설명해 이해를 도왔고, 가정과 연계된 활동이 개별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모두의 배움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모든 유아가 자기 사진 소개, 기다리기→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산만해짐
- "아~ 나도 저기 가봤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지?": 유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본 장소가 나오면 앞으로 나오자고 제안→ 집중하여 경청,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능동적으로 참여, 친구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해 보면서, 우리 동네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인식하는 기회, 우리 반 유아들이 많이 가본 장소와 가보지 않은 장소 파악
- 유아들의 몰입과 능동적 배움을 위한 교사의 즉각적인 상황 판단과 융통성 있는 운영의 중요성 자각

전개 책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교사: 우리가 찍어온 동네 사진들이 정말 많네요. 어떻게 하면 많은 동네 사진을 편리하게 볼 수 있을까요?
유아1: 책으로 만들어요.
유아2: 사진도 붙이고, 어디인지 이름도 써요!

유아들은 어떤 종이를 사용할지, 사진을 어디에 붙일지를 고민하며 책을 만드는 방법을 스스로 구상하기 시작했고, 교사는 유아들이 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유아들은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해 낸 방법을 자신 있게 표현하거나, 친구의 아이디어에 새로운 생각을 보태며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갔다.

- 같은 장소끼리 유목화를 생각한 교사와 자신만의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는 유아들
- 유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활동의 방향을 모둠별 분류에서 개인별 페이지 구성으로 전환
- 교사의 계획과 더불어 상황에 따라 유아의 의견을 반영해 활동을 재구성하는 유연함이 필요함

■ 친구와 함께 우리 동네 책 만들기



유아1: 어! 여기(고래놀이터) 간 적 있는데.
유아2: 너 애시앙아파트 살아?
유아1: 아니, ◆◆이가 애시앙 살아서 놀러 간 적 있어.
유아2: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서 같이 놀까? 너희 엄마한테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 주라고 말해.

서로의 사진에 관심을 보이며 경험을 연결하는 아이들, 유아들의 대화를 통해 가정에서의 생활 모습과 또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교사: ♥♥이는 어떤 곳을 좋아하나요?
유아1: 키키카카....(키즈카페)
교사: 키키카카가 왜 좋아요?
유아1: (엄마가)맛있는거 (사주고) 방방이 좋아.

자신이 직접 찍어온 사진을 활용하자, 평소 말수가 적은 유아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진이라는 자료가 유아의 표현 의욕과 자신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느꼈다.



유아1: 사진 옆에 어디인지 (장소 이름을) 써주면 좋겠다.
유아2: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유아3: 선생님! 제가 친구한테 알려줄게요.
유아4: 저는 여기 간판에 글자 있어서 보고 썼어요. 이거 맞아요?
다.이.소.

교사 이야기

사진 옆에 장소 이름을 쓰던 중이었다. ㅁㅁ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이 도와주세요."라며 글자를 몰라 막막한 표정을 지었다. 순간 교실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이가 당당하게 "선생님! 제가 친구한테 알려 줄게요!"라고 외쳤다. 옆에서 지켜보던 ㅇㅇ는 눈을 반짝이며 간판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저는 여기 간판에 글자 있어서 보고 썼어요. 이거 맞아요? 다.이.소."라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소리를 내며 적어 내려갔다. 이 장면에서 유아들의 주도성은 다양하게 드러났다. 어떤 유아는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도움을 요청했고, 또 다른 유아는 친구를 돕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으며, 또 어떤 유아는 생활 속 단서를 찾아 스스로 글자를 추측하는 도전을 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글자에 다가가며, 문해 발달의 단계와 배움의 과정이 생생히 드러났다.

교사는 바로 글자를 써주기보다 유아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러자 유아들은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배움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의 발달 수준이 어디쯤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사진 속 간판 하나가 유아들 간의 주도적인 배움을 끌어내는 멋진 매개가 되었다. 그리고 교사는 '교사가 즉각적으로 알려주기보다 유아가 스스로 발견하는 순간을 기다려 주는 인내와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마무리 완성한 책 공유하기

교사: 책장이 너무 많네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유아1: 같은 아파트끼리 나눠요.
유아2: 앞에(표지에) 배돌이도 붙이고 스티커도 붙일래요.

바닥은 수많은 책장으로 어질러졌지만, 유아들은 서로를 확인하더니, 일사불란하게 책장을 모으고 분류하기 시작했다. 교사는 '와, 이렇게 잘할 줄이야!' 하며 감탄하면서 유아들이 스스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을 오전에는
교실에서 볼래요.



오후에는
옆 반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 다음 활동으로 이어가기

교사: 오늘 우리 동네 책을 만들면서 빛가람동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네요.
유아1: 나도 ●●처럼 아빠랑 인형 뽑기 집에 갈 거예요.
유아2: 내일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싶어요!
유아3: 내일은 책에 없는데도 찾아보고 싶어요!

교사는 유아들의 흥미를 반영하여, 다음 날에는 유치원 주변을 산책하며 우리 동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동네 곳곳의 글자와 귀에 들리는 재미있는 소리를 찾아보는 활동으로 이어가기로 하였다.

3) 수업 이후

유아들은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활동을 마친 후에도 동네 사진을 찍어서 패들렛에 계속 업로드하였다. 덕분에 유아들이 찍은 사진을 활용한 놀이와 활동이 계속 이어졌다.



우리 동네 퍼즐 맞추기

유아1: 여기는 우체국이네!
유아2: 맞아, 편지 표시가 있어.

- 퍼즐을 맞추며 동네의 다양한 장소를 더 자세히 살펴봄
- 모양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능력을 기름
- 누가 더 빨리 완성하는지 겨루며 놀이를 주도적으로 확장하고 즐김





우리 반이 좋아하는 장소 그래프

- 우리 동네에서 인기 있는 장소를 파악하고, 그래프와 수량 비교 개념을 경험함
- 정확한 비교를 위해 줄을 맞추어 사진을 붙여야 함을 경험함



그 이후로도 유아들은 언어영역에 비치된 사진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 책'을 이어서 만들었다.

• (3-2)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활동명	우리 유치원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대되는 배움	• 유치원 주변의 모습에 관심을 가진다. • 유치원 주변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글자와 소리에 관심을 가진다. • 유치원 주변 산책을 안전하게 다녀온다.
교육과정 내용	•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 신체운동·건강: 안전하게 생활하기 –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 **우리 동네 책을 보면서 오늘 할 활동 알아보기** • 사전활동을 회상하며 오늘 할 활동을 알아본다. – 지난 시간에 어떤 책을 만들었나요? – 오늘 유치원에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나요? – 기억에 남는 소리나 냄새가 있나요? – 꽃도 보고 자동차 소리도 들었군요. 오늘은 산책을 하면서 유치원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더 찾아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만든 '우리 동네 책'
전개 (50분)	☑ **산책을 할 때 지켜야 할 약속 알아보기** • 산책을 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약속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길 안쪽으로 걸어서 다니기,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다니기, 위험한 행동을 하는 친구를 발견하면 선생님에게 알리기 – 도로 근처에서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 궁금한 것이 멀리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친구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 **산책을 하면서 유치원 주변 둘러보기** • 유치원 주변을 둘러보면서 우리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본다. – 여기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나요? – 이 건물은 어떤 곳일까요? – 이 곳에 가본 적 있나요?	유 활동 전에 유치원 주변에 위험한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경로를 계획한다. 유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안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다.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50분)	– ○○이가 좋아했던 놀이터랑 비슷한 곳은 어디인가요? – 왜 이 표지판을 세워뒀을까요? – 이 표지판 속 글자들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글자를 읽어볼까요? – 간판 속에서 친구의 이름 글자를 찾아볼까요? – 선생님이 바람 소리를 들었는데 친구들도 조용히 눈을 감고 들어볼까요? – 또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 볼까요? – 친구들이 기억하고 싶은 장소와 소리를 선생님이 태블릿으로 촬영해 줄게요. – 안전 약속을 지키면서 유치원으로 돌아가 볼까요?	유 유아가 발견한 글자와 소리를 말이나 몸짓 등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마무리 (10분)	☑ **경험 공유하기** • 교실로 돌아와서 새롭게 발견한 동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예) 바람 소리, 경적 소리, 신호등 안내 소리,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 등 – 이 소리는 어디에서 들었었나요? – 우리가 들었던 바람 소리를 몸으로 표현해 볼까요? – 유치원 주변에는 어떤 글자들이 있었나요? – 유치원 주변을 산책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재미있었나요? • 다음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오늘 산책을 하면서 찾은 것으로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찾은 장소와 글자, 소리로 우리 동네를 표현해 보기로 해요.	자 바깥에서 찍은 장소 사진과 녹음 파일, 전자칠판(미러링) 유 유아들이 발견한 글자와 소리를 자유로운 표현과 의성어로 말하도록 지원한다.
평가 관점	☑ 유치원 주변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는가? ☑ 유치원 주변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글자와 소리에 관심을 가지는가? ☑ 유치원 주변 산책을 안전하게 다녀오는가?	

2) 실행 과정

도입 우리 동네 책을 보며 오늘 함께할 활동 알아보기

전날 유아들이 만든 우리 동네 책과 등원하면서 본 동네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유치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예상해 보았다.

전개 산책을 할 때 지켜야 할 약속 알아보기



교사: (로드뷰를 보면서) 우리 유치원 바로 앞에는 큰 도로가 있네요. 도로 옆을 걸을 때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유아1: 도로로 나가면 안 돼요.
유아2: 혼자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교사: 우리 모두 서로를 지켜주면서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해요.

▶ 산책을 하면서 유치원 주변 둘러보기

경로① → 아이스 문구



유아1: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다!
유아2: 어디?
유아3: 저기! 보이지, 아이스크림 그림!
유아들: 아이스크림 사 주세요.

교사 이야기

유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눈에 띄는 간판 하나가 유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알록달록한 그림을 보더니 곧장 "아이스크림 가게다! 아이스크림 사 주세요!" 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였다. 몇몇 유아들은 벌써 횡단보도 앞까지 달려가 "선생님, 얼른 건너요!"라면서 손을 흔들었다.

교사는 순간 당황했다. 기대하는 유아들의 표정을 보니 함께 건너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차량이 오가는 큰길이었고, 교사는 혼자였다. '만약에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유아들에게 "오늘은 그냥 지나가지만, 다음에 하나로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줄게요"라며 달래 주었다.

유아들은 "에이~ 지금 가고 싶었는데!"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금세 "그럼 다음에 진짜 꼭 가요!"라며 약속을 말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교사는 그 순간, 유아들이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자기조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기다림과 조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배움과 성장을 만들어 주었을 것이라 믿는다.

경로②→ 호수







유아1: (나무 데크를 걸으며) 쿵쿵쾅쾅! 소리가 커요.
유아들: 나도 해 볼래.
교사: 와 정말 큰 소리가 나네요, 이번에는 살살 걸어 볼까요?
유아들: 살금살금~ 소리가 작아졌어요.
교사: 우리가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발소리도 달라지네요.

유아들과 호수에 잠시 멈춰 서서 공원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았다. 유아들은 바람, 물, 개구리, 비행기 소리 등 평소 지나쳤던 다양한 소리들을 발견하였다. 어떤 유아는 "꽉꽉꽉" 소리내며 오리를 온몸으로 표현했고, 다른 유아는 팔을 펼치며 비행기를 몸짓으로 흉내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리를 표현하였다.

경로③→ 호수공원 다리



유아1: 끈을 왜 여기에 묶어놨지?
유아2: 선생님, 여기 물 아래로 풍덩 빠질 수 있으니까 묶어 놓은 거예요?
교사: 끈에 '위험'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 근처에서는 조심해야겠어요.

유아들은 위험 요소를 스스로 발견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안전한지 고민하였다. 교사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 "왜 조심해야 할까?" 등의 질문을 통해 유아들의 생각이 안전한 행동으로 구체화 되도록 도왔다.

마무리 새롭게 발견한 동네의 모습을 공유하기

교실로 돌아와서 동네에서 찾은 글자와 소리를 감상하고 새롭게 발견한 동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경험을 공유하였다.

▶ 다음 활동으로 이어가기

산책 후 유아들은 본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고 싶다며 경험을 기록하자고 제안했다. 교사는 유아들과 사진·그림·글자 등으로 오늘의 경험을 남기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며, 이를 자연스럽게 다음 활동인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어요'로 확장해 가도록 계획했다.

3) 수업 이후

활동 후에도 유아들은 직접 찍은 사진과 녹음한 소리에 꾸준히 관심을 보였다. 사진과 소리를 담은 태블릿을 제공하자 유아들은 이를 활용해 자신들만의 우리 동네 놀이를 즐기며 배움을 이어갔다.



우리 동네 소리 수수께끼

유아1: (태블릿에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며) 이 소리가 뭘까요?
"뚜뚜뚜.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
유아2: 유치원 앞 신호등 소리
유아1: 딩동댕! 정답.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을 몸으로 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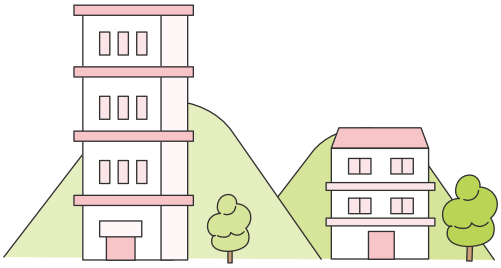
유아1: (옷 안에 보자기를 잔뜩 넣고) 배가 볼록하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것은?
유아2: 펭귄?
유아1: 땡! 어제 호수에서 봤잖아.
유아2: 오리.





우리반 친구들이 사는 집 지도를 만들어요

교사: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가 참 많네요.
유아1: 우리집은 애시앙 아파트에요.
유아2: 나도 애시앙에 사는데.
유아3: 7명이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 (3-3)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활동명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어요**
기대되는 배움	• 우리 동네의 다양한 모습에 관심을 가진다. • 친구와 함께 새롭게 발견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교육과정 내용	•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 의사소통: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 유치원 주변에서 발견한 것 회상하기** • 말놀이를 하면서 유치원 주변에서 발견한 것을 떠올린다. – 지난 시간에 산책을 하면서 본 것을 떠올리면서 말놀이를 해 볼까요? 빛가람동에는 ○○도 있고, △△△도 있고♪ – 우리가 새롭게 찾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 다른 반 친구들도 산책을 다녀왔는데 우리 반이 찾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대요.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 활동 알아보기** • 오늘 함께 할 활동을 알아본다. – 오늘은 산책을 하면서 본 장소, 기억에 남는 글자와 소리를 떠올리면서 새롭게 발견한 우리 동네를 표현해 볼까요?	
전개 (30분)	**☑ 우리 동네 나무 만들기** • 준비된 재료를 보면서 새롭게 발견한 우리 동네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우리 동네 나무 만드는 방법〉 ① 나무가 그려진 종이에 좋아하는 장소 사진을 붙인다. ② 그 장소에서 들었던 소리를 열매 모양 종이에 적고 나무에 붙인다. (의성어 카드 참고) ③ 그 장소에서 본 글자(기호, 모양 등)를 열매 모양 종이에 적고 나무에 붙인다.(그림으로 그리거나 글자 카드 참고) ④ 기억에 남는 것들을 글이나 그림으로 적어서 우리 동네를 통합적으로 표현한다.	자 유아들과 함께 찍은 우리 동네 장소 사진, 의성어 카드, 글자카드, 보드마카, 칠판, 나무가 프린트 된 전지 4장, 사과 열매 도안, 바나나 열매 도안, 풀, 사인펜 유 모둠은 사전에 정해 놓는다.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30분)	–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이 재료들로 어떻게 우리 동네 나무를 표현하고 싶나요? – 나무에는 무엇을 붙이면 좋을까요? • 산책에서 발견한 것들을 떠올리며 우리 동네 나무를 만든다. – (도로 사진) 여기에서는 어떤 소리를 들었었나요? –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어떻게 말하면 더 재미있을까요? – (마트 사진) 여기에서는 어떤 글자를 봤었나요? – (표지판 사진) 여기에서는 누구의 이름 글자를 찾았었나요? – 글자를 쓰는 게 어려우면 그림으로 그리거나 필요하다면 선생님이 글자를 적어줄게요. – 다 만들었으면 자리를 정리하고 모여볼까요?	
마무리 (10분)	☑ **경험 공유하기** • 완성한 우리 동네 나무를 소개한다. – 새롭게 발견한 우리 동네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까요? –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 이 장소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렸었는지 친구들의 표현을 들어볼까요? – 같은 장소이지만 서로 다른 소리로 표현했군요. – 친구들과 함께 우리 동네 나무를 만들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 우리 동네 나무를 다른 반 친구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 ○○의 생각처럼 친구들이 다니는 복도에 전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 다음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더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 다음에는 우리 동네에서 발견한 것들로 '우리 동네 수수께끼 놀이'를 해보기로 해요.	유 유아들의 표현을 존중하고 격려한다.
평가 관점	☑ 우리 동네의 다양한 모습에 관심을 가지는가? ☑ 친구와 함께 새롭게 발견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는가?	

2) 실행 과정

도입 **지난 시간 유치원 주변에서 본 것을 말놀이하기**

전날 산책을 마친 후 유아들은 "오늘 본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고 싶다"며 활동을 이어가길 원했다. 교사는 말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어제 보았던 장소와 경험을 떠올리도록 도왔다.



유아1: 빛가람동에는 화살표도 있고~
유아2: 네잎클로버도 있고~

전개 **우리 동네 나무 만들기**

유아들에게 어제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자 새롭게 발견한 동네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공원등에 배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





유아1: 호수에서 비린내가 났었지?
유아2: 시원한 바람 냄새가 났었어.



유아1: 나는 버스에 '빵빵'이라고 쓸거야.
유아2: 버스 문이 열릴 때 '띵!'하고 소리가 났는데, 어떻게 써요?

교사는 유아들이 말한 내용을 글자로 남길 수 있도록 도왔다. 유아들의 경험이 글자로 구체화되며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 소리는 사과, 글자는 나뭇잎 종이에 쓰도록 안내했으나 유아들은 자유롭게 섞어 표현 → 범주 구분의 어려움과 흥미 저하를 고려하여 유아들의 선택을 존중함
- 활동 과정에서 유아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자 몰입과 주도적인 배움이 일어남

마무리 **완성한 우리 동네 나무를 감상한다.**

유아들은 같은 장소를 보면서도 저마다 다른 소리로 경험을 표현하며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였다.



교사: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우리 동네를 한번 더 살펴보면 어떨까요?
유아1: 저녁 먹고 가족이랑 산책할래요.
유아2: 동네에 어떤 표지판이 있는지 더 찾아볼래요.

활동을 마무리하며 유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를 넘어 친구가 사는 집 주변까지 관심을 확장하였고, 집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더 넓은 빛가람동을 탐색해 보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

교사 이야기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동네' 수업을 준비할 때 지역적 특성(마스코트, 공공기관, 직업 등)과 같은 특별한 주제를 먼저 떠올리던 기존의 시각을 돌아보게 되었다. 실제로 유아들의 배움은 멀리 있는 주제가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가까운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길가의 표지판, 지나가는 버스, 연못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것들이 유아들에게는 흥미로운 배움의 소재가 되었다. 생활과 밀접한 경험에서 출발하였을 때, 유아들은 더 큰 몰입과 즐거움을 느꼈으며, 이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실제 삶과 연결되는 의미 있는 배움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우리 동네' 수업은 유아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가까운 환경을 세심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3) 수업 이후

유아들은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어요' 활동을 한 뒤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우리 동네의 모습을 재현하는 놀이를 즐기며 배움을 이어나갔다.



우리반 아파트를 쌓아요

유아1: 나는 5층에 살아.
유아2: 나는 10층이야. 너보다 높은데 살지.
유아3: 난 7층이니까 사이에 끼워 넣어야겠다.
유아1: 16층엔 3명이나 살아! 꼭대기에 제일 많이 사네.



우리 동네를 만들어요

유아1: 호수 옆에는 나무를 많이 심자.
유아2: 우리 아빠 회사는 엄청 크니까 더 높이 쌓아야 해.
유아들: 진짜 호수공원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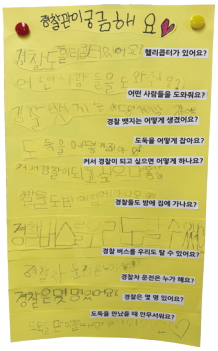
2주 우리 동네 사람들

1주에 우리 동네의 다양한 장소에 관심을 가지며 둘러본 유아들은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2주차에는 '어린이교통공원' 체험학습을 앞두고 있어서 유아들이 경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경찰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유아1: 커서 경찰이 되는 방법이 궁금해요.
유아2: 나쁜 사람을 진짜 잡은 적이 있어요?



마침 체험학습지에서 교통경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체험 당일 유아들은 궁금했던 질문을 하며 호기심을 해결했고, 이어 "교실에도 교통표지판이 있으면 좋겠다!"라며 놀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교통표지판 책 만들기



유아1: 빨간 표지판은 "하지 마세요!" 알려주는 거야.
유아2: 노랑색은 조심하라는 뜻이었어.
교사: 그럼 파란색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아들: 하세요! 해도 됩니다!

다음날 교통공원에서 찍어온 사진을 제공하자, 유아들은 이를 모아 교통표지판 책을 만들었다. 표지판의 색과 모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서로 이야기하며 어제 배운 교통안전 규칙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교사는 유아들이 경험을 놀이로 확장해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경찰관 놀이



유아1: 당신은 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체포합니다.
유아2: 잘못했어요. 다음엔 초록불에 건널게요.
유아1: 내가 가짜로 하면(수갑을 채우면) 진짜로 아픈척 해.
유아2: 살살 묶어!

체험학습을 다녀온 이후, 교실에서는 경찰 놀이가 더욱 활발하게 펼쳐졌다. 유아들은 경찰이 되어 도둑을 잡는 것에 큰 흥미를 보였고 놀이의 규칙을 스스로 협의하고 만들어 가면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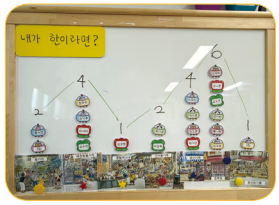
3주 우리 동네 사람들

유아들은 2주차에 경찰이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경찰뿐만 아니라 가게, 시장, 기관 등 동네의 다양한 장소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림책 「한이네 동네 시장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내가 '한이'라면 어디에 가고 싶나요?

유아들은 그림책에 등장한 다양한 가게에 흥미를 보였고, 교사는 "만약 시장에 간다면 어떤 가게에 가고 싶나요?"라고 물으며 유아들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교사 이야기



투표을 하던 중 한 유아가 갑자기 "동물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와야 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순간 놀라기도 했지만, 그 말은 매우 깊이 있는 생각이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유아들도 "동물은 가족이다", "아기처럼 소중히 보살펴줘야 한다", "절대 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명 존중과 책임감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인상 깊었다.

교사는 조심스럽게 그림책 속에 쓰여 있던 '애완동물'이라는 단어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제시하였다. 작은 언어적 차이였지만, 유아들이 동물을 사고파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에 교사가 계획했던 활동은 시장의 다양한 가게를 탐색하는 것이었지만, 예기치 않게 유아들의 대화는 생명 존중으로 확장되었다. 교사의 계획과는 달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끌어낸 주제 속에서 더 깊고 가치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시장놀이

시장에 대한 흥미가 높아진 유아들은 교실에 시장을 구성하여 가게 놀이를 하기 시작하였다.



유아1: 아이스크림 천원입니다.
유아2: 자 여기 백만원이요.
유아1: 아니~ 백만원을 주면 어떡해요. 잔돈이 없어요.
유아2: 저 백만원 밖에 없는데요?
유아1: 야! 그거는 백만원이 아니고 천원이다 천원!

시장놀이를 통해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주고 받으며 돈의 쓰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교사는 유아들이 수에 대해 이해하도록 현금 결제를 유도하였는데 일부 유아들은 어려움을 느끼며 흥미를 잃었고 놀이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유아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고, 돈을 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유아를 위해 카드도 함께 제공했더라면 놀이가 더 풍성하게 이어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4주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요

지난 3주 동안 '우리 동네' 활동을 진행하며 유아들은 동네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장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던 중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동네의 호수공원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호수공원이 변했어요





유아1: 호수에 물감을 버려서 초록색이 된거 같은데?
유아2: 쓰레기 때문에 물이 썩은게 아닐까?
유아3: 난 호수공원이 제일 좋은데... 썩으면 안 되는데 큰일이다!

유아들은 호수의 색이 변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호수를 어떻게 하면 다시 맑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호수공원 쓰레기를 건져요



평소 호숫가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자주 보았던 유아들은 호수의 물이 초록색으로 변한 이유가 쓰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실제 이유는 다양하지만, 교사는 유아들의 생각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유아들은 호수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건져내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실에서 쓰레기를 건지는 게임을 하며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공원으로 나가 주변의 쓰레기를 주우며 우리 동네의 자랑인 공원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실천으로 활동을 확장하였다.

우리 교실을 시장처럼 꾸미면 어때요?



실태

유치원 특성

- 4학급 병설유치원으로 3, 4세 각 1학급, 5세 2학급으로 구성됨
- 읍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군청, 주민센터, 교육청, 법원, 도서관, 전통시장 등이 있어서 도보로 이동 가능함
- 미래형 유치원, 2030교실을 운영하여 전자칠판, 크로마키 스크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우리반 특성

- 4세 학급으로 남아 15명, 여아 3명으로 구성됨
- 전체 유아가 읍 지역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함
- 많은 남아들은 다양한 블록으로 로봇, 기차 등을 만들며 놀이함
- 가위질하기, 그리기, 색칠하기를 어려워하는 유아가 많아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있음
- 전체 유아가 다 함께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지며 글자와 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 옆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바른 자세로 앉기, 말하는 사람을 보고 경청하기 등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에게 존중받는 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생활주제의 흐름

1주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

- 쌓기 | 우리 동네를 꾸며요
- 미술 | 우리 동네 상징 그리기
- 이야기나누기 | 우리 동네 화순
- 바깥놀이 | 유치원 주변 산책하기
- 노래 | 행복한 우리 동네
- 가정 연계 | 우리 동네 자주 가는 곳 사진 찍어 공유하기
- 일상생활 | 등·하원 길에 우리 동네 모습 관찰
- 환경 | 우리 동네 지도, 가정에서 보내준 사진

2주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1)

- 쌓기 | 우리 동네 일터 만들기
- 역할 | 우리 동네 사람들 역할놀이 (식당, 미용실, 병원, 경찰서)
- 언어 | 공공기관 작은 책 만들기
- 이야기나누기 | 우리 동네 공공기관
- 이야기나누기 |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 체험학습 | 키즈라라 직업체험
- 일상생활 |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 환경 | 우리 동네 공공기관, 다양한 직업 그림

3주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2)

2030교실 수업주간

- 동화 | 한이네 동네 시장 이야기
- 동요 | 시장 잔치
- 체험학습 | 전통시장 체험
- 미술 | 가게 간판 꾸미기, 돈 그림 도안 자르기, 지갑 접기
- 역할 | 시장 놀이
- 환경 | 체험학습 다녀온 사진, 시장 잔치 동요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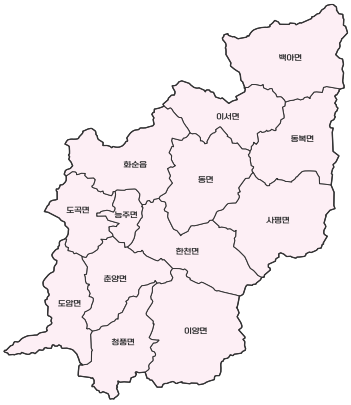
4주 우리 동네를 알려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요

- 동시 | 우리 동네 자랑거리
- 이야기나누기 | 우리 동네 소개 뉴스
- 어울림 놀이 | 우리 유치원 어린이 회장 뽑기
- 이야기나누기 | 동네에서 지켜야 할 예절
- 동화·동극 | 위층, 아래층
- 체험학습 | 만연산 숲체험
- 가정 연계 | 마트에서 로컬푸드 찾아보기

1주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

• 우리 동네 화순

교사는 유아들이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가지길 기대하며 화순군의 지도를 벽면에 게시하였다.



유아: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교사: 이건 화순군 지도예요. 우리 동네 이름은 화순읍이에요.
유아: 우리 할머니도 화순에 사세요. 한천에서 복숭아를 키우세요.

유아들은 우리 동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지 못했다. 화순군 안에 많은 동네가 있는데 그중 우리는 화순읍이라는 동네에 산다고 알려주었다.

다른 동네 이름도 알고 싶어하는 유아들이 있어서 읽어주었더니, 할머니가 사는 동네 이름을 듣고, 그 동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유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 주변을 걸어보기로 했다.

• 유치원 주변 산책하기



유아: 저기가 내가 사는 아파트에요.
유아: 저기 아파트 공사하고 있어요.
유아: 초등학교에 우리 누나가 다녀요.
유아: 큰 산이 보여요.

바깥 놀이터에 나가 유치원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 나누었다. 아파트, 공사 중인 아파트, 무등산, 초등학교, 화순군청 등이 보였다. 유치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걸으니 미용실,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카페, 교회 등이 있었다.

유아들은 자기가 살고있는 집 주변에 소방서, 경찰서, 도서관, 편의점, 시장, 남산공원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치원에 등·하원하는 길에 무엇을 보았는지 이야기를 하며 유아들은 우리가 사는 동네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주 우리 동네 사람들 1

•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직업 체험학습을 앞두고 부모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아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살기 좋은 동네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음을 알고, 직업의 소중함을 느꼈다. 그리고 유아들은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보고 발표하였는데, 의사, 간호사, 배달원, 경찰관, 소방관, 수의사 등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했다.

환경게시판에 유아들이 원하는 직업 그림을 색칠 한 후 얼굴 사진을 붙였고, 자신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직업 체험학습



유아들이 좋아하는 직업은 30분 이상 의자에 앉아 기다린 후에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반 유아들이 잘 기다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특히 우리가 방문한 날은 방문객들이 많아 유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직업 체험을 1~2가지만 할 수 있었다.

한 유아는 수의사를 꼭 하고 싶어하였는데 혼자서 30분 이상 기다리면서 울기도 하였지만 결국 원하는 체험을 한 후 만족한 얼굴로 나왔다. 유아들은 흥미와 주도성을 존중받고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였을 때 성취감과 몰입감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다.

3주 우리 동네 사람들 2(2030교실 수업)

• 수업의 시작

우리 동네 중심지에는 5일마다 열리는 고인돌 전통시장이 있다. 고인돌 전통시장에서는 종종 야시장, 플리마켓, 공연 및 다양한 체험 등이 열려서 유아들은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사전에 우리 동네 시장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시장 방문을 안내하려고 한다. 전통시장에 관한 동화를 들려주면 유아들은 직접 시장에 가보고 싶어 하고, 친구들과 함께 시장 놀이까지 하고 싶어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교사는 이러한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놀이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아들은 우리 동네 시장의 모습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의사소통 기술이 발달하며, 경제 개념을 익히고 상인과 손님의 역할을 이해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이하며 사회성도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 놀이는 교사가 계획하였지만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놀이'로 인식되면서 놀이를 통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업의 흐름

한이네 동네 시장 이야기	전통시장에 가요	시장 놀이를 해요
• 책 표지를 보며 시장에 다녀온 경험 이야기 나누기 • 동화를 들으며 내용과 느낌 이야기하기 • 우리 동네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 후속 활동 계획하기	• 시장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 이야기 나누기 • 시장에 가서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물건 구입하기 • 시장에 다녀온 후 느낌과 생각 이야기 나누기	• 시장 놀이에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시장 놀이 준비하기 • 시장 놀이 약속 정하기 • 시장 놀이하기 • 평가하기

- 다양한 사전활동(유치원 주변 돌아보기, 우리 동네 꾸미기,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알아보기, 키즈라라 직업체험 등)을 통해 공공기관 및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장 놀이를 준비하는데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듣고 이해하며 협의하는 과정을 격려한다.
- 가정과 연계하여 유아들이 시장에 다녀올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한다.
- 활동에 사용하는 다양한 자료와 소품은 일상에서의 생태적인 실천을 반영하여 교실에 있는 자료, 기존에 유아들이 만들었던 교구, 자연물, 유아들이 수집한 자료 등을 제공한다.
- 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며 유아들의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활동명	한이네 동네 시장 이야기
기대되는 배움	• 우리 동네 시장의 모습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그림책을 보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말로 표현한다.
교육과정 내용	•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 의사소통: 책과 이야기 즐기기 –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 인성: 존중 – 자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 **책 표지 살펴보기** • (책 제목을 가리고) 책 표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책의 표지를 보며) 여기가 어디인 것 같나요? –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곳이 있나요? – 시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 시장에 가서 무엇을 해 보았나요? – 시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 **활동 알아보기** • 오늘의 활동을 알아본다. – (책 제목을 보여주며) 오늘 선생님이 읽어주는 동화책 제목은 '한이네 동네 시장 이야기'입니다. 한이네 동네 시장은 어떨지 함께 볼까요?	자 동화책
전개 (20분)	☑ **동화 듣는 시간의 약속 이야기 나누기** • 동화를 들을 때의 약속을 이야기 나눈다. – 동화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동화 들으며 이야기 나누기** • 교사가 들려주는 동화를 들으며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 '한이네 동네 시장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함께 시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 콩할머니 가게에서는 무엇을 파나요? – 여기는 무엇을 파는 가게인가요? • 동화를 본 후, 동화의 내용과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 한이네 동네 시장에는 어떤 가게들이 있었나요? – 들렀던 가게에서 한이는 무엇을 샀나요? – 우리 친구들이 가보고 싶은 가게는 어디인가요? – 가게에서 무엇을 사고(하고) 싶은가요? – 한이는 시장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 시장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 동화의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마무리 (5분)	☑ **우리 동네의 시장 알아보기** • 우리 동네의 시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 (네이버 지도 로드뷰를 보며) 우리 동네 시장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동네 시장 이름이 보이나요? – 우리 동네 시장 이름은 무엇인가요? – (유아들이 찍어온 사진을 보며) ○○이는 고인돌 시장에 가본 적이 있군요. – 우리 동네 고인돌 시장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 친구들과 함께 우리 동네 고인돌 시장으로 놀러 가보면 어떨까요? ☑ **후속 활동 계획하기** • 후속 활동을 이야기나눈다. – 이 동화책을 보고 나니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 가족들과 시장에서 무엇을 사야 할지 계획해 볼까요? – 시장에서 사 온 물건들로 무엇을 할까요? – 우리 유치원을 시장처럼 꾸미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전자칠판, 컴퓨터, 네이버 지도, 가정에서 보내 준 사진 유 교사는 시장놀이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구입하거나 지원한다.
평가 관점	☑ 우리 동네 시장의 모습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가? ☑ 그림책을 보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말로 표현하는가?	



2) 실행 과정

도입 **그림책 표지를 보며 시장에 가본 경험 이야기 나누기**



그림책 표지를 살펴보고 시장에 가본 경험을 이야기 나누었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시장에 가본 적이 있다고 했으며, 우리 동네에 전통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정에서 찍어 온 사진들을 보며 전통시장과 마트의 같은 점과 다른점을 비교하고, 이해할 수도 있었다.

전개 **그림책을 보며 이야기 나누기**

'한이네 동네 시장 이야기' 책에는 전통시장의 다양한 모습과 시장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들이 잘 표현되어 있었다. 유아들은 동화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들었으며 시장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마무리 **그림책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누기**

교사: 이 책을 보고 나니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유아: 우리 동네 시장에 직접 가보고 싶어요.
유아: (두 팔을 펼치며)우리 유치원을 시장처럼 꾸미면 어때요?
교사: 18일에 시장이 열리니까 시장에 다녀오고, 시장에서 본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 유치원을 시장으로 만들어서 놀이해 볼까요?
유아: 네!

교사는 유아들이 우리 동네 시장의 모습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시장 놀이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이네 동네 시장 이야기'라는 그림책을 들려주었다. 그림책을 보고 난 유아들은 우리 동네 시장에 가서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고, 교실에서 친구들과 시장 놀이도 하고 싶다고 제안하였다.

교사가 의도를 가지고 소개해 준 그림책을 보고, 유아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았다. 교사가 목표를 생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성'과 유아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표현하는 '주도성'이 이렇게 멋지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순간이었다.

3) 수업 이후

시장에 가기 전에

시장에 가기 전날 필요한 준비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아들은 장바구니와 돈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였고, 교사는 시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살지 부모님과 미리 계획하고 오도록 유아들에게 '장보기 계획표'를 나누어 주었다.

• (3-2)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활동명	전통시장에 가요
기대되는 배움	• 우리 동네 전통시장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 시장에서 계획한 물건을 돈을 주고 사보는 경험을 한다.
교육과정 내용	•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 자연탐구: 탐구과정 즐기기 –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인지적 요소 – 문제해결력 – 문제 해결 성향적 요소 – 개방성 – 다양성 • 인성: 협력 – 집단 협력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 **'시장 잔치' 노래 부르기** • '시장 잔치' 노래를 부르며 자리에 앉는다. – 함께 노래를 불러볼까요? ☑ **활동 알아보기** • 오늘의 활동을 소개한다. – (장보기 계획표를 보며) 어떤 물건을 사기로 했나요? – 얼마만큼 사기로 했나요? – 오늘은 우리 동네의 전통시장에 가서 계획한 물건을 직접 사보아요.	자 전자칠판, 컴퓨터, 장보기 계획표 유 시장에서 무엇을 사올지 사전에 가족과 정해온다.
전개1 (10분)	☑ **시장 체험학습 시 지켜야 하는 약속 이야기 나누기** • 시장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안전하게 시장에 다녀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고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시장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은 무엇이 있을까요? ☑ **시장에 대하여 궁금한 점 생각해 보기** • 시장에 가서 알아보고 싶은 점을 생각해 본다. – 시장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점이 있나요? –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 유아들의 이야기를 칠판에 적어줄 수 있다. 자 칠판, 보드마카 등
전개2 (60분)	☑ **시장으로 이동하기** • 화장실에 다녀온 후 유치원 가방을 메고 줄을 선다. •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시장으로 이동한다. – 시장 가는 길에 무엇이 보이나요? –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하나요?	유 교사는 안전을 고려하여 사전에 안전한 이동 경로를 파악해 놓는다.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2 (60분)	☑ **시장 체험하기** • 시장에 가서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물건을 구입한다. – 시장에는 어떤 가게들이 있나요? – 상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 □□가 사기로 한 ○○은 어느 가게에서 살 수 있을까요? – 가게 주인께 인사드리고 ○○이 있는지 함께 물어볼까요? – 물건을 사려면 주인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 ○○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 친구가 직접 가게 주인에게 물어볼까요? – 돈이 부족한지 남는지 알아볼까요? – 물건을 사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할까요? • 궁금한 내용을 알아본다. – 우리가 궁금했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 궁금한 점을 누구에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 **유치원으로 이동하기** • 친구들과 함께 안전하게 유치원으로 이동한다.	자 유치원 가방, 돈 유 교사는 물건을 살 때 해야 하는 적절한 말을 유아에게 알려줄 수 있다.
마무리 (10분)	☑ **시장에 다녀온 경험 나누기** • 시장에 다녀온 후 느낀 점과 생각을 이야기 나눈다. – 돈을 주고 물건을 사보니 어떤가요? – (활동 사진을 보며) 오늘 우리가 가본 시장은 어떤 모습인지 사진을 보며 이야기 나눠볼까요? – 어떤 모습을 보았나요? – 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나요? –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다 알아보았나요? – 시장에 다녀와서 새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볼까요? – 우리가 사 온 물건을 볼까요? – 오이는 얼마를 주고 샀는지 기억나나요? – 우리가 사 온 물건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 **후속 활동 계획하기** • 다음 활동에 대해 계획한다. – 내일은 오늘 사 온 물건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 시장에 다녀왔으니, 우리 교실 시장 놀이도 준비해 볼까요?	자 전자칠판, 스마트폰
평가 관점	☑ 우리 동네 전통시장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가? ☑ 시장에서 계획한 물건을 돈을 주고 사보는 경험을 하는가?	

2) 실행 과정

도입 시장에 가기 전 무엇을 사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기



유아: 오이 2천원 어치 사야 해요.
유아: 저는 오이고추를 안 팔면 단호박을 사기로 했어요.
유아: 우리 엄마가 애호박 사오래요.

전개 시장에 가기 전 지켜야 하는 약속 이야기 나누기

교사: 안전하게 시장에 다녀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아: 선생님을 보고 다녀야 해요!
유아: 짝꿍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해요.
교사: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고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아: 함부로 만지지 않아요.
유아: 잘 살펴보아요.
교사: 시장에 가서 지켜야 하는 예절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아: 어른들께 인사를 해요.
유아: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교사: 어른들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받아요.

▶ 시장에서 물건 구입하기

나는 애호박을 사야 해요.

저기 오이 팔아요.
○○야. 너 오이 사야 하잖아!!



네. 여기 있습니다.
많이 드렸어요.



(교사의 말을 따라 하며)
감자 5천원 어치
주세요.



유아: 선생님 저는 저 인형 사고 싶어요.
교사: □□는 오늘 시장에서 무엇을 사기로 했었나요?
유아: 애호박이요.
교사: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아: 인형은 엄마랑 와서 사야겠어요.
유아: 애호박 3천원 어치 주세요.

대부분의 유아들은 상인들에게 적절한 말을 하며 계획한 물건을 구입했으나 일부 유아들은 상인에게 물건을 살 때 해야 하는 적절한 말을 하기 어려워해서 교사가 상황에 맞는 말을 들려주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상인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익히고 다른 사람과 적절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더불어 친구가 사야 하는 물건을 기억하고, 친구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배려심과 협동심도 키웠다.

계획하지 않았던 인형을 사고 싶었지만 참고 자신이 계획한 물건을 구입한 유아도 있었다.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계획을 지키는 경험을 하며 자기 통제력과 주도성이 길러졌다.

계산할 때 유아들은 돈의 기능과 거스름돈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교사가 "물건을 받았으니 돈을 드려야 해", "거스름돈을 받아야 해"라고 알려주기도 했다. 요즘 유아들은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현금으로 직접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게 낯설고 어려웠을 것 같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유아들은 돈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배우게 되었다.

▶ 시장에서 유치원으로 돌아오는 길



유아: 여기가 우리 아빠 빵집이에요. 우리 아빠 빵 잘 만들어요.
유아: 나 ○○이네 빵집 가봤어.
유아: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유아: 너무 더워요.
유아: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빨리 유치원에 가고 싶어요.

유치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유아는 시장 입구에 있는 부모님의 가게를 소개해 주었다. 유아들은 전통시장의 가게들과 친구 부모님의 가게를 보며 가게마다 파는 물건이 다르다는 것과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알게 되었다.

이날 날씨는 매우 더웠고, 물건을 구입한 유아들의 가방은 무거웠다. 더운 날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걷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들은 자신의 감정과 신체를 조절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어른인 교사도 힘들었는데 질서를 지키며 유치원까지 씩씩하게 걸어온 우리 반 유아들이 참 대견했다.

마무리 시장에 다녀온 후 새로 알게 된 점 이야기 나누기



유아: 시장에는 많은 가게와 많은 물건이 있었어요.
유아: 진짜 돈을 주고 감자를 샀어요.
유아: 저는 미꾸라지랑 낙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랐는데 시장에서 보고 알게 되었어요.

시장 체험을 하고 나서 유아들은 우리 동네 시장의 모습, 돈의 가치, 시장에서 파는 물건의 특징 등 다양한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 동네 시장은 길이 복잡하고 장날이면 차가 많아 시장에 많은 수의 유아들을 데리고 갈 때 걱정이 많았다. 그렇지만 약속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시장에 가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유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유아들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며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교사의 걱정으로 체험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유아들은 이런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체험 장소 사전답사, 약속 정하기, 가정과의 연계 등 교사의 철저한 활동 계획과 원감 선생님, 교직원의 지원 덕분에 우리 유아들은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3) 수업 이후

시장에서 산 물건들로 무엇을 했나요?

유아: 오이를 국수랑 같이 먹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아빠가 오이 맛있대요.
유아: 애호박으로 부침개 만들었어요. 아빠가 해주는 게 맛있어요.
유아: 저는 엄마가 밥에 내가 산 가지를 넣어줘서 맛있었어요.

다음 날, 유아들과 함께 전날 시장에서 직접 구매했던 식재료들을 가족과 어떻게 요리해서 맛보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아들은 직접 계획하고 구입한 식재료로 가족들과 함께 요리하고 나누어 먹으며 성취감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사는 유치원 교육활동과 유아의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놀이와 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 (3-3)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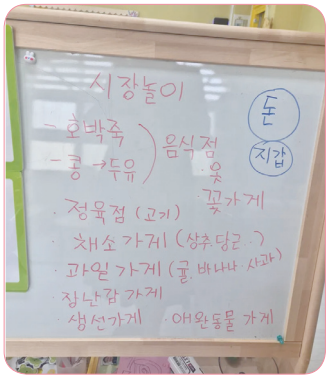
활동명	시장 놀이를 해요
기대되는 배움	• 시장 사람들의 모습을 역할에 따라 표현해 보는 경험을 한다. • 친구들과 시장 놀이에 즐겁게 참여한다.
교육과정 내용	• 예술경험: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 사회관계: 더불어 생활하기 –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동기적 요소 – 몰입 • 인성: 협력 – 집단 협력, 질서 – 기초 질서

<table>
<tr><th>활동의 흐름</th><th>활동 내용 및 방법</th><th>자료 및 유의점</th></tr>
<tr><td>도입
(5분)</td><td>☑ '시장 잔치' 노래 부르기
• 유아들과 함께 교실 책상을 사각형 대형으로 배치한다.
• '시장 잔치' 노래를 부르며 자리에 앉는다.
– 친구들의 노래를 들으니 우리반 ○○시장이 곧 열릴 것 같아요.
☑ 활동 알아보기
• 오늘의 활동을 알아본다.
– 오늘은 가게 주인과 손님이 되어서 시장 놀이를 해보아요.</td><td>자 노랫말, 음악</td></tr>
<tr><td>전개
(60분)</td><td>☑ 시장 놀이 준비하기
• 시장 놀이를 할 때 필요한 물품을 만들거나 준비한다.
(사전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시장 놀이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table>
<tr><th>예상되는 놀이</th><th>상호작용</th></tr>
<tr><td>가게 정하기</td><td>• 어떤 가게를 열고 싶나요?
• 어떤 물건들을 팔고 싶나요?
• 어떤 물건을 사보고 싶나요?</td></tr>
<tr><td>가게 주인 정하기</td><td>• 시장 놀이를 하려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 가게 주인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 어떤 가게 주인이 되고 싶은가요?</td></tr>
<tr><td>가게 간판,
메뉴판 꾸미기</td><td>•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 이런 간판을 본 적이 있나요?
• 어떻게 꾸미고 싶나요?</td></tr>
<tr><td>돈과 지갑
만들기</td><td>• 물건을 사고 나면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카드, 돈)
• (지폐 사진을 보며) 돈을 만들어볼까요?
• 지갑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td></tr>
<tr><td>'시장 잔치'
노래 개사하기</td><td>• 수박 수박이 나왔어요. 노랫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 가게 주인이 되어 노래해 볼까요?</td></tr>
</table>
</td><td>유 시장 놀이 준비는 사전에 놀이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자석칠판, 보드마카
자 유아의 이름표
자 간판 만들 종이, 꾸미기 재료 등
자 돈 모형, 카드 모형, 색종이, 가위
자 전자칠판, 음악</td></tr>
</table>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60분)	• 가게를 배치하고, 각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한다. – (배치된 책상을 가리키며) 여기는 어떤 가게를 열면 좋겠어요? – 가게가 잘 보이도록 간판도 붙여줄까요? – 이 물건은 어느 가게에서 팔면 좋을까요? – 장난감 가게에서 팔 물건은 어디에서 가져오면 좋을까요? – 자기 가게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 볼까요? – 산 물건은 어디에 들고 다니면 좋을까요? ☑ **시장 놀이를 하는 방법과 약속 정하기** • 시장 놀이를 하는 방법과 약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시장 놀이를 해 본 경험이 있나요? – 시장이 열린다는 시작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 시장이 끝난다는 것은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타이머, 종, 징 등) – 시장에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 시장 놀이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을 지키면 좋을까요? ☑ **시장 놀이 하기** • 시장 놀이를 한다. – 지금부터 ○○ 전통시장 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 가게 주인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 손님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 놀이가 끝나면 구입한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는 가게 주인이 되어 인사를 하고 있네요 – 손님이 된 ○○는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역할을 바꾸어 놀이해 볼까요?	자 간판, 테이프, 전자칠판, 음악, 징, 종, 타이머, 장바구니, 돈 모형 유 유아들이 계획한 다양한 방법(우리 반끼리, 동생반 초대하기, 선생님 초대하기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유 교사는 손님이 되어서 물건을 사거나, 가게 주인을 도와 물건을 팔 수 있다. 유 교사는 유아들의 활동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한다.
마무리 (5분)	☑ **정리 및 경험 나누기** • 정리를 하고,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 어떤 역할을 해보았나요? – 물건을 사고, 팔아 보니 어떤가요? – 또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자 정리 음악, 활동 사진 전자칠판, 컴퓨터 유 시장에서 사온 실제 물건을 함께 간식으로 먹거나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평가 관점	☑ 친구들과 함께 시장 놀이를 하며 역할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2) 실행 과정

▶ 사전활동) 시장 놀이에 열고 싶은 가게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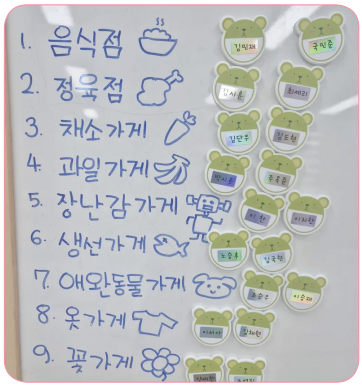


유아: 호박죽을 팔면 좋겠어요.
유아: 콩으로 두유를 만들어야 해요.
유아: 진짜 음식을 먹고 싶어요.
유아: 사슴벌레도 팔아요.
유아: 상추, 당근을 팔아요.
유아: 발레리나 옷을 파는 옷가게요.
유아: 장난감을 팔았으면 좋겠어요.

유아들은 '한이네 동네 시장 이야기' 동화책에 등장했던 애완동물가게, 콩가게, 정육점 등과 전통시장에서 직접 보았던 다양한 가게들을 열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대신,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서로 겹치지 않게 가게들을 계속 제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사는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유아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넘어 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며 주도성을 기르는 의미 있는 성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동화 듣기와 체험학습 등 직·간접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유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9개 가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 사전활동) 시장 놀이 가게 주인 정하기



교사: 가게 주인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유아: 자기가 하고 싶은 가게 주인해요.
유아: 자기가 말했던 가게 주인해요.
교사: 많은 친구들이 한 가게에 몰리면 어떻게 할까요?
유아: 가위바위보요.
교사: 양보를 해줘도 좋겠구요.

18명의 유아 중 13명의 유아는 작년에 유치원에서 시장 놀이를 경험했었고, 작년처럼 주인과 손님 역할을 모두 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먼저 가게 주인을 정하기로 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가게 주인을 정할 때, 특정 가게에 몰려 갈등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했었다. 하지만 교사의 걱정과는 달리, 유아들은 자신들이 제안했던 가게 주인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스스로 합의된 방식으로 가게 주인을 평화롭게 결정했다. 이는 유아들이 가진 문제 해결 능력을 깊이 신뢰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 사전활동) 시장 간판 꾸미기



유아: 우리 가게는 우리가 같이 꾸며볼래요.
교사: 선생님이 글씨를 미리 뽑아왔어요. 글씨를 모르는 손님을 위해 무엇을 더 그리면 좋을까요?
유아: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그려요.

▶ 사전활동) 돈, 지갑 준비하기

교사: 시장에 다녀오니 또 무엇이 있어야겠나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무엇을 내야 했나요?
유아: 돈이요.
유아: 돈이 없으면 도둑이잖아요.
교사: 돈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유아: 돈 그림을 뽑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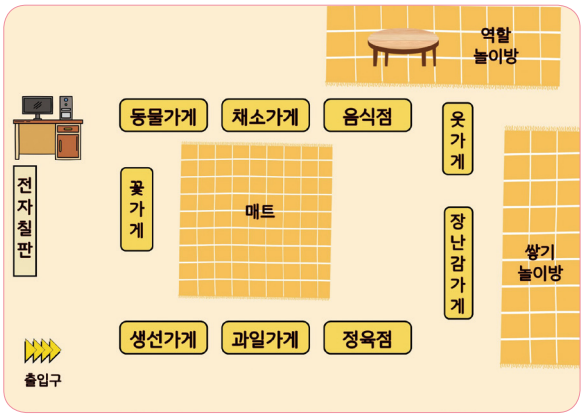


도입 오늘의 활동 알아보기

시장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유아들과 함께 교실의 책상을 사각형 모양으로 배치하였다. 유아들은 "드디어 시장 놀이를 하네."라며 오늘의 활동을 기대하였다.

전개 가게 배치하기

유아들과 함께 어느 곳에 가게를 열지 이야기한 후 미리 만들어 둔 가게 간판을 붙였다. 유아들은 음식 모형이 있는 역할놀이방에 음식점을, 다양한 블록이 있는 쌓기 놀이방에 장난감 가게를 열자고 제안하였다.



유아들과 함께 준비한 가게 배치도

▶ 가게 준비하기





유아: (과일가게) 우리 가게에 복숭아랑 딸기랑 블루베리 가져가도 돼요? 접시도 필요해요.
유아: (애완동물가게) 물고기를 키워야 하는데. 어항이 없네. 퍼즐로 어항을 만들어야지.
유아: (장난감 가게) 로봇을 만들어서 장난감 가게에서 팔 거예요.
유아: (옷가게) 우리가 가져온 여벌 옷을 꺼내주세요.
유아: (꽃가게) 형님 반에 가서 꽃을 빌려올게요.
유아: (정육점) 고기를 찍어 먹는 소스도 준비했어요.
유아: 돈을 담을 통도 필요해요. 가게마다 종이컵을 갖다줘야지.
교사: 친구들이 음식점에서 진짜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짜장맛, 떡볶이맛 과자와 그릇을 준비했어요.
유아: 음식점에서 우유도 같이 마셔요.

아이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고 팔지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만의 가게를 꾸몄다. 저마다 파는 물건도, 꾸미는 방식도 모두 달라 개별성이 드러났다.

▶ 시장 놀이를 하는 방법과 약속 정하기

교사: 시장이 열린다는 시작을 어떻게 알릴까요?
유아: 가게 주인들이 "시작합니다"라고 말해줘요.
교사: 그럼 시장이 끝나면 어떻게 알려줄까요?
유아: 타이머요.
교사: 첫 번째 시장이 끝날 때 물건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유아: 다시 정리하기!
교사: 시장 놀이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약속을 지키면 좋을까요?
유아: 물건을 다 사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못 사요.
유아: 너무 몽땅 사버리면 계산하기 힘들어요.

▶ 시장 놀이하기

지금부터 시장 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아: 이거 얼마예요?
유아: 이천원입니다.
유아: 돈 여기 있습니다.



유아: 생선가게 천원!
생선가게 천원! 어서 오세요!
유아: 이거랑 이거 주세요.



유아: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유아: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유아: ○○야. 끼어들지 마. 줄을 서야지.





유아: 토끼 한 마리 주세요.
유아: 네. 천원입니다.

마무리 시장 놀이를 하고 나서 생각과 느낌 이야기 나누기



유아: 저는 진짜 음식을 파는 게 좋았어요.
유아: 저는 진짜 과자를 먹는 게 좋았어요.
유아: 저는 손님일 때 저에게 물건을 팔아줘서 재미있었어요.
유아: 친구들과 같이 해서 재미있었어요.
유아: 가게 주인을 할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았어요.
유아: 오후 시간에도 시장 놀이를 하고 싶어요.

가게 주인과 손님 역할을 맡은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물건을 흥정하고, 돈을 주고받는 과정을 즐겼다. 유아들 몇몇은 진지하게 "두 개 사면 더 드릴게요!", "이건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라며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증거였다.

물건이 다 팔리거나,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했을 때 실망하기도 했지만, 유아들은 곧 다른 친구를 돕거나 다음 놀이를 기약하며 자기조절 능력을 발휘했다. 돈을 나누거나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수 개념을 익히는 배움도 이루어졌다.

3) 수업 이후

방과후과정 시간에도 열린 시장 놀이



유아: 우리 가게에 도둑이 들었어요.
유아: 그럼 내가 경찰 할게.
유아: 도둑 좀 잡아줘요.
유아: 우리 가게에도 도둑이 왔어요. 도와주세요.

유아들은 시장 놀이를 계속 하고 싶어하였고, 방과후과정 선생님께 놀이 제안을 하여 오후 시간에도 시장 놀이가 이루어졌다. 평소에도 경찰, 도둑 놀이를 즐겨하는 우리반 유아들은 시장에 도둑이 들었다면서 경찰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경찰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시장을 돌며 안전한 우리 동네 시장을 만드는 놀이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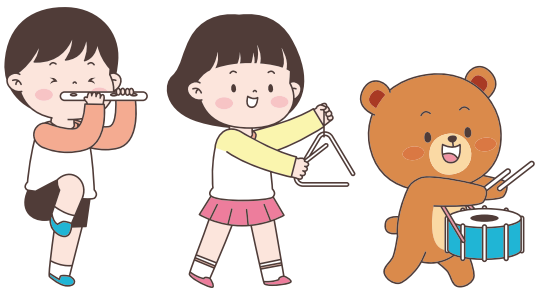
유아들은 교사, 친구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놀이에 참여하였다.

교사 이야기

우리 반에서 진행한 '시장 놀이'는 유아들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한층 더 깊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 처음 시장 놀이를 계획할 때는 교사가 상품 목록이나 역할 분담 등 상당 부분을 미리 정해두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유아들의 흥미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아들이 직접 준비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방향으로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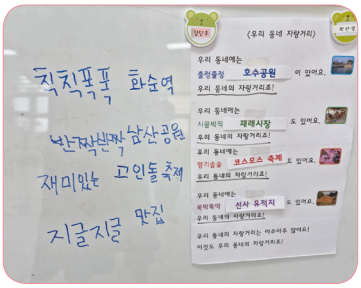
시장 놀이를 준비하고, 진행할 때, 유아들의 주도성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번 시장 놀이를 통해 교사는 유아들의 주도성은 단순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흥미를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문제 해결에 몰입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조절 능력과 지속성을 키워나가는 통합적인 역량임을 깨달았다. 교사의 역할은 모든 것을 미리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교육적 의도를 고려하며 유아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배울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의 자발적인 상호작용과 도전을 지지하며 필요한 순간에 개입하는 조력자이자 관찰자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4주 우리 동네를 알려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요.

• 우리 동네 자랑거리(동시)



유아: 화순역이 있어요. 화순역에서 기차 타고 보성에 가봤어요.
유아: 남산공원도 있어요.
유아: 고인돌 축제가 열려요.
유아: 우리 집 앞에 식당도 있어요.
교사: 화순역, 남산공원, 고인돌 축제, 맛집을 꾸며주는 말을 생각해 볼까요?

유아들이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길 기대하며 '우리 동네 자랑거리'라는 동시를 소개하고 다시 짓기 활동을 하였다.

화순군에는 운주사, 만연산,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등 다양한 문화유산 및 수려한 자연환경이 풍부하고, 파프리카, 토마토, 복숭아 등 품질 좋은 특산물도 많다. 교사 역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동네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 반 유아들이 생각하는 자랑거리는 교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처음에는 교사가 원하던 답이 나오지 않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유아들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보니, 화순역, 남산공원, 고인돌 축제, 심지어 동네 식당까지! 유아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공간과 활동들이 충분히 자랑할 만한 곳들이었다.

유아들의 시선에 공감하며, 유아들이 말하는 장소들로 동시를 바꿔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시에 그대로 담기자 매우 신나하는 모습이었다. 단순하게 교사가 알려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실제로 결과물로 나오니까 스스로 '내가 뭔가 해냈구나!'하는 성취감까지 얻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유아들의 주도성도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 위층 아래층(동화, 동극)

자랑스러운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다. 특히 우리 반 유아들은 모두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에 층간 소음 등 이웃과 지켜야 하는 약속을 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활동이라 생각되어 '위층, 아래층'이라는 동화를 들려주었다. 동화를 듣고, 동극으로 표현하며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고마운 이웃, 다양한 직업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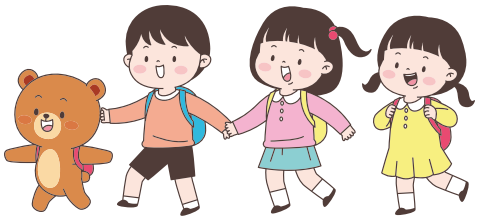
실태

유치원 특성

- 면에 위치하고 있음
- 서순천 IC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많음
- 순천 내에서도 외곽 쪽에 위치하여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함
- 도보 10분 거리에 우체국, 농협이 위치하고 있음
- 연령별로 1학급씩 구성된 총 3학급 병설유치원임

우리반 특성

- 5세 19명 (남아 10명, 여아 9명)으로 구성됨
- 특수교육대상자 1명인 완전통합 학급으로 구성됨
- 유·초이음 활동을 하고 있음
- 80% 이상의 유아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등원하고 있음
- 등·하원 길에 보는 우리 동네의 장소, 기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임
-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유아들이 증가하며 태권도 관장님, 축구교실 코치님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음
- 부모님의 직업과 관련하여 역할놀이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자신과 친구의 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임



생활주제의 흐름

1주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

- 이야기나누기 | 우리 동네 이름, 위치 이야기 나누기
- 동화 | 로지의 산책
- 새노래 | 내가 그리는 우리 동네
- 과학, 디지털 | 함께 관찰하는 우리 동네
- 미술 |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 그리기
- 가정 연계 | 우리 동네 사람들 알아보기
- 일상생활 | 우리 동네의 모습 관찰하기

2~3주 우리 동네 사람들

2030교실 수업주간

- 이야기나누기 |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 체험학습 | 우체국에 가요
- 동화 | 한이네 동네 시장 이야기
- 미술 | 우리가 만드는 시장
- 유·초이음 | 우리는 어른이 되어 어떤 일을 할까요?
- 일상생활 | 우리 동네 사람들 관찰하기

4주 살기 좋은 우리 동네

- 이야기 나누기 |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동네
- 체험학습 | 도서관 현장체험학습
- 동화 | 건물들이 휴가를 갔어요
- 일상생활 | 우리 동네 서면의 좋은 점 생각해보기



1주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

• 우리 동네의 이름과 위치 이야기 나누기

교사: 우리 동네 '서면'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유아1: '서면' 보는 것 언제 끝나요? 연향동을 지도로 보고 싶어요.
유아2: 선생님! 저도 연향동에 가봤어요. 지난번에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으러 갔었어요.

우리 동네에 대한 유아들의 사전 경험과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동네 '서면'의 특징, 위치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시작하였다. 유아들은 '서면'에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순천에 있는 다른 동네의 이야기를 더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면에는 큰 마트나 키즈카페와 같은 대규모 편의시설이 많이 없어, 자연스레 가족들과 함께 순천 내의 다른 동네에 방문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면'의 특징에만 중점을 두고, 실제 유아의 생활은 경험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유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다른 동네의 지도 로드뷰를 통해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1: 선생님, 저 편의점 우리 아파트 앞에도 있어요.
유아2: 편의점 근처에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어요. 연향동에 있는 가게들이 서면에도 똑같이 있어요. 연향동이랑 서면이 서로 같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교사: 그럼 서면과 연향동을 함께 떠올리면서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유아들은 연향동을 살펴보며 우리 동네 '서면'과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면의 모습, 건물 등에 대한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며 점차 우리 동네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유아들은 우리 동네 모습을 떠올리며 놀이하기 시작하였다.





서면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을 지속하며 애정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 그리기' 활동을 제안하였다.

•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 그리기



유아들이 좋아하는 우리 동네의 모습을 계절,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자 같은 장소이지만 다양한 모습의 결과물이 나왔고, 전시 이후에도 유아들끼리 활발히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유아들은 우리 동네에서 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다. 유아들은 이미 우리 동네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한 경험, 사전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며 다양한 직업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030교실 수업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한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2주 3주 우리 동네 사람들(2030교실 수업)

• 수업의 시작

우리 동네에 대해 흥미나 관심을 보이지 않던 유아들이 점차 우리 동네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 동네에서 보았던 사람들로 이어졌다. 따라서 유아들과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며 다양한 직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 유치원이 위치해 있는 곳은 기관, 공공시설 등이 다양하게 위치하지 않아 접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한정적이다. 그래서 가족의 직업도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직업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과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며 각 직업이 지닌 필요성,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더불어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동네 사람들이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며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른이 된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 수업의 흐름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우체국 현장체험학습	우리는 어른이 되어 어떤 일을 할까요?
•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알아보기 • 우리 동네 사람들 직업 소개하기 (유아, 교사 모두) • 궁금한 것 질문하기	• 우체국 현장체험학습에서 지켜야 할 약속 알아보기 • 우체국 돌아보기 및 궁금한 것 질문하기	• 우리 반이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알아보기 • 1학년 1반이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 알아보기 • 가장 많이 되고 싶어 하는 직업 알아보기(그래프)

- 가정 연계활동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알아보기를 통해 우리 동네의 사람들에 대해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 우리 동네 사람들의 직업을 중심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되,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가족의 직업, 내가 어른이 되어 가지고 싶은 직업 등으로 변경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유아가 관심을 보이거나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때, 자료탐색, 기관 방문 등 방법을 함께 계획한다.
- 실제로 우리 동네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고 질문해 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 유아가 하고 싶은 직업 및 우리 동네 관련 활동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간 및 자료를 제공한다.

• (3-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활동명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기대되는 배움	•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 다양한 직업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한다.
교육과정 내용	•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더불어 생활하기 – 친구와 어른께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 인성: 존중 – 나와 다른 생각도 받아들이는 태도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 **동네의 여러 기관 알아보기** • 다양한 기관, 건물, 가게의 사진을 살펴본다. –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 사진에서 보이는 기관, 장소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 사진에서 보이는 기관, 건물, 가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는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활동 알아보기** • 오늘의 활동을 알아본다. –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 우리가 알아본 것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자 컴퓨터, PPT자료 유 사전에 가족의 직업이나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가정에서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전개 (30분)	☑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이야기 나누기** •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자기가 알아온 것을 누가 먼저 소개해 볼까요? – ○○이는 가족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가요? – ○○덕분에 선생님도 간호사분들이 하시는 일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간호사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어떤 점이 더 좋아졌을까요? – △△이는 우리 동네 태권도장의 관장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 친구들이 관장님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이가 알아보고 내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 선생님은 우리 동네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먼저 이 분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들어볼까요? – 이곳은 우리가 매일 아침 유치원에 등원하면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 매일 집으로 돌아가는 하원 길에도 본다고 ○○반이 이야기 했던 곳이에요. – ○○반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았던 공공기관 중 하나에요. 어디일까요?	자 활동조사지 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던 공공기관의 종류를 자유롭게 떠올리고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30분)	– 그래요. 바로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에서 편지나 택배를 배달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할까요? – 선생님은 '집배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함께 들어보아요. • 우체국에서 편지, 택배를 분류하고 배달하는 일을 해요. • 사람들이 보내는 택배와 편지를 직접 가지러 가기도 해요. • 오토바이, 배달 가방, 바코드 스캐너 등을 사용해요. –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마무리 (5분)	☑ **배움 공유하기** • 오늘 알게 된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친구들이 알아온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 중 새롭게 알게된 것이 있나요? –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들어보니 어떤가요? – 우리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 우리 동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학교와 유치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도록 해요. ☑ **다음 활동 계획하기** • 현장체험학습활동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눈다. –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 우체국으로 현장체험학습활동을 가는 길에 만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유 활동 후 자유놀이 영역에 질문지를 비치하여 추가 질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관점	☑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가? ☑ 다양한 직업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가?	

2) 실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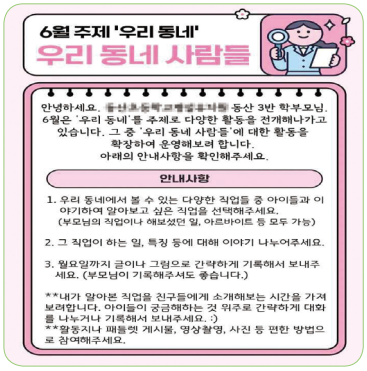
▶ 사전활동)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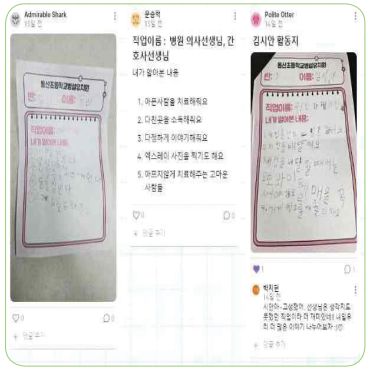
우리 동네에 대한 활동을 하며 우리 동네 사람들과 다양한 직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우리 가족이 하는 일 등에 대해 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도입 우리 동네 기관, 장소 사진 보며 이야기 나누기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기관, 장소 사진을 보며 그 곳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유아들과 교사가 알아본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 보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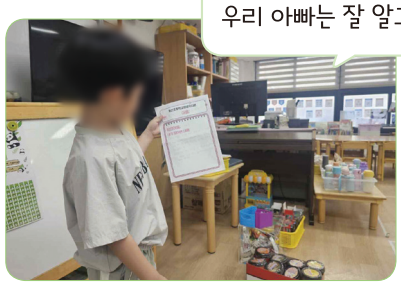
전개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소개하기





우리 동네 사람들 패들렛 기록 QR





유아들은 다양한 직업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궁금한 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알아온 것에 대해 소개하던 유아는 친구들의 질문 중 알아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친구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알아본 뒤에 소개하자고 제안하였다. 유아들의 직업소개가 끝난 후 교사가 알아온 직업에 대해 소개하였다.

▶ 교사가 조사한 우리 동네 직업(집배원) 소개하기

교사: 선생님도 함께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사람들에게 소중한 소식이 담긴 편지나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해요. 이 직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유아들: 택배 아저씨요. 우체부요. '우체부'랑 '집배원'은 같은 말 아니에요?
교사: 옛날에는 우체부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집배원'이라고 불러요.

유아들은 등원 길에 매일 보는 우체국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편이었으나 직접 이용해 본 경험이 없어 우체국과 집배원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교사는 우체국에서 일하는 '집배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였고, 유아들은 '집배원'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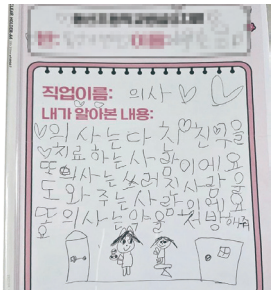
마무리 집배원에 대해 궁금한 것 질문하기

교사: 집배원이나 우체국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유아1: 여자 집배원은 없어요?
유아2: 운전을 못하면 집배원 못 하는 거예요?

유아들은 '집배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질문하였고, 관심을 보이며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마침 우체국 현장체험학습이 계획되어 있었기에 유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체국', '집배원'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가 높아지며 우체국 현장체험학습과 자연스럽게 활동이 이어질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지원하기 위해 궁금한 것들을 질문지로 작성해두었다.

3) 수업 이후

우리 동네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기록하기



교사: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 추가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유아: 좋아요. 새로 알게 된 것들을 적어볼래요. 내용이 가려지지 않게 활동지 뒷면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유아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며 하나의 직업 책을 만들었다.

교사 이야기

과연 '집배원'에 대해 관심을 보일까?

유아들의 등·하원 길에 우체국이 있어 항상 마주치고 있지만, 우체국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집배원'이라는 직업에 흥미와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유아들은 '집배원'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알고 싶어 하는 의지를 보였다.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대해 교사의 기준에서만 판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유아들의 질문에 당황했을까?

'집배원'에 대한 생각지 못했던 질문에 적잖이 당황을 했다. 왜 유아들의 질문에 당황했을까?
'집배원'에 대해 조사하긴 했지만 '집배원'이 하는 일에만 너무 초점을 두고 알아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유아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교사의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다.
유아들의 시선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것들이 궁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3-2)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활동명	우체국에 가요
기대되는 배움	• 우체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가진다. • 우체국에 계시는 분들에게 바르게 인사한다. •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다.
교육과정 내용	•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더불어 생활하기 – 친구와 어른께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 신체운동·건강: 안전하게 생활하기 –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인지적 요소 – 문제해결력 – 문제 해결 • 인성: 협력 – 집단 협력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5분)	☑ **질문 목록 살펴보기** • 질문 목록을 살펴보며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가기로 했나요? – 지난번에 우리 ○○반이 궁금해 했던 질문을 알아보기 위해 우체국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해요. – 우리가 우체국과 집배원에 대해 어떤 점이 궁금하다고 했었나요? –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 어떻게 해야 우체국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까요? ☑ **우체국으로 이동하기** • 안전 규칙을 지켜 우체국으로 이동한다.	자 사전활동에서 작성한 질문지 목록, 녹음기(녹음이 가능한 기기) 유 사전에 유치원 인근의 우체국에 협조를 요청한다.
전개 (60분)	☑ **우체국 둘러보며 궁금한 것 알아보기** • 우체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우체국을 둘러본다. – 우체국 입구에 있는 빨간색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개의 창구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 택배를 보낼 때 필요한 물건들을 살펴볼까요? – 깨지거나 부서지기 쉬운 물건을 포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어디에 써야할까요? – 편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우표를 관찰해 볼까요? – 택배를 보낼 때에는 우표 대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 우리가 알아보았던 우체국 로고를 찾아볼까요? – 우체국 직원분의 안내를 따라 우체국을 둘러보아요.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60분)	• 질문지를 보며 인터뷰를 한다. – 우리가 알아보고 싶었던 것에 대해 질문해 보아요. – ○○반이 궁금해 했었던 질문들을 순서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 답변을 듣고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 **우체국 체험활동 해보기** • 편지 또는 택배 보내기 활동을 해본다. –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려요.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미리 적어온 것을 보며 잘못 적힌 곳은 없는지 확인해 보아요. – 우리가 준비해 온 편지, 택배를 집으로 보내보아요. ☑ **인사 및 마무리** • 우체국을 안내해주신 직원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유 택배,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등을 미리 봉투나 상자에 적어올 수 있도록 한다.
마무리 (15분)	☑ **유치원으로 이동하기** • 안전 규칙을 지켜 유치원으로 이동한다. – 안전 규칙을 지켜 유치원으로 이동해 보아요. ☑ **경험 공유하기** • 유치원에 도착 후, 이야기를 나눈다. – 오늘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 우체국에서 일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니 어땠나요? – 우체국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할까요? – 우리가 보낸 편지, 택배가 잘 도착했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유 녹음 파일을 유아들이 자유롭게 듣고, 회상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놀이 영역에 비치하여 지원한다.
평가 관점	☑ 우체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가지는가? ☑ 우체국에 계시는 분들에게 바르게 인사하는가? ☑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올 수 있는가?	

2) 실행 과정

도입 **우체국 현장체험학습의 취소**

우체국 현장체험학습을 가기로 계획하였으나 원내 사정으로 인해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유아1: 궁금한 것들을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유아2: 선생님이 가서 물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3: 유치원으로 집배원 아저씨를 초대해서 물어봐요.

유아들은 답변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중 많은 유아들이 지난 활동에서 자신들이 몰랐던 것에 대해 다시 알아보고 대답을 했던 것과 같이 선생님도 알아보고 오라는 뜻을 비쳤다. 결국 교사는 유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로 했다.

전개 유아들의 궁금증을 가지고 방문한 우체국

유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인근의 서면 우체국을 찾아갔지만 '집배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순천 우체국으로 가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게 방문한 순천 우체국에서는 당일 인사이동 등의 업무로 분주한 탓에 바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질문지와 연락처를 남긴채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얼마 뒤, 기다리던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Q 집배원은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하나요?
A 네. 이륜 자동차 면허증 및 사륜 자동차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Q 집배원은 주소를 어떻게 찾아가나요?
A 이동 동선이 정해져 있으며, 선배 집배원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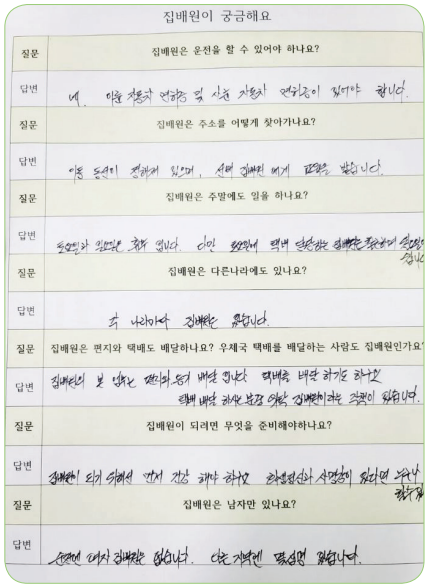
Q 집배원은 주말에도 일을 하나요?
A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다만 토요일에 택배 담당하는 집배원은 출근하며 월요일에 쉽니다.

Q 집배원은 다른나라에도 있나요?
A 각 나라마다 집배원은 있습니다.

Q 집배원은 편지와 택배도 배달하나요? 우체국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도 집배원인가요?
A 집배원의 본 업무는 편지와 등기 배달입니다. 택배를 배달하기도 하고요. 택배 배달 하시는 분 중 위탁 집배원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Q 집배원이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A 집배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해야 하구요. 희생정신과 사명감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Q 집배원은 남자만 있나요?
A 순천에는 여자 집배원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몇십 명 있습니다.



집배원이 궁금해요 질문지



마무리 집배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이야기 나누기

교사: 집배원에 대해 궁금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았어요.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유아1: 집배원은 남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자도 있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유아2: 여자 집배원을 만나려면 순천 말고 다른 곳을 가야겠어요.
유아3: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도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유아4: 우리 집배원 놀이 하자. 여자도 있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아들과 함께 공유해보았다. 유아들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매우 신기해하였다. 그리고 같이 집배원 놀이를 하자며 놀이를 제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 수업 이후

집배원 놀이의 시작

유아들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떠올리며 집배원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유아1: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집배원이 쉬는 날이야.
유아2: 순천에는 여자 집배원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여기 순천 말고 다른 곳이라고 하자.

택배 놀이로의 확장

유아1: 선생님, 편지 배달 말고 택배 배달 해보고 싶어요. 택배 배달하는 집배원도 있잖아요.
유아2: 동생반이랑 형님 반에 배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지보다는 택배를 받아본 경험이 많아서인지 유아들이 택배 놀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택배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택배로 오는 물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도착하는지 과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건 주문부터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며 택배 놀이 준비를 시작하였다.

물건 포장 팀은 주문서를 꼼꼼히 살펴야 해.





파손주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은 조심해서 배달해야 해.





유아1: 선생님, 택배 배달 너무 힘들어요. 택배 기사님들은 택배를 몇 개나 배달하는 거예요?
유아2: 택배 기사님들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택배 기사님들은 여름에 땀띠가 많이 나겠어요.

유아들은 택배를 배달할 때 조심해야 할 점, 배달하는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함과 동시에 궁금한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택배 기사님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며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택배 기사님께 궁금해요' 활동을 계획하였다.

택배 기사님께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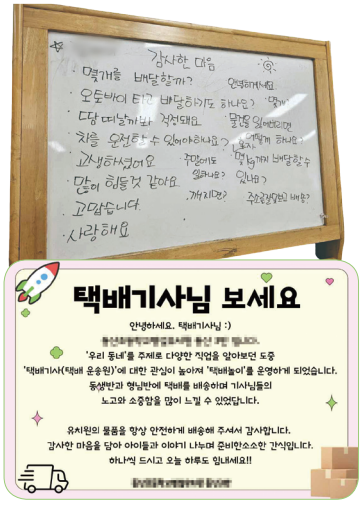
유아들이 택배 놀이를 하면서 느낀 점, 궁금한 점을 칠판에 기록하고 패들렛에 옮겨 게시하였다. 그리고 유치원 택배 보관 창고 앞에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Q 택배를 몇 개나 배송하나요?
A 하루에 200~500개 정도 배송해요.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확인해야 해요.

Q 택배를 배송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잃어버리고 못 찾은 날에는 왔던 곳을 되돌아가면서 찾아봐요.

Q 50kg이 넘는 것처럼 혼자 들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배송하나요?
A 도구나 장비를 사용해요. 카트에 무거운 물건을 담아서 배송하기도 해요.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무거운 것도 잘 들 수 있도록 해요.

Q 주소를 잘못 보고 잘못 배송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고객님께 잘못 배송했다고 전화를 해요. 잘못 배송한 물건을 다시 받아서 원래 주인에게 다시 배송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 주소는 정확한 주소를 적고 확인해야 해요.



Q 배송하면서 엄청 더울 때 미니 선풍기를 사용하나요?
A 엄청 더울 때 미니 선풍기를 사용해요. 시원한 물을 많이 마시고 그늘에서 땀을 식혀요.

Q 택배로 배송할 수 없는 물건도 있나요?
A 네. 택배로 배송할 수 없는 물건으로는 엄청 큰 물건이거나, 위험한 물건은 배송할 수 없어요.

Q 택배차 안에는 몇 개의 택배가 들어가나요?
A 제가 배송하는 차 안에는 500개 정도의 택배가 들어가요.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가득 차요.

택배 기사님께 받은 답변으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유아1: 우와, 택배 자동차에는 택배가 500개나 들어간대. 이것 봐. 나는 나중에 하늘을 나는 택배 자동차를 가지고 택배 1000개를 배달하는 택배 기사가 될 거야.
유아2: 우리 택배 놀이 할 때, 2개 배달하면서도 엄청 힘들었잖아. 택배 기사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유아들은 택배 기사님이 하시는 일이 힘들다며,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교사는 다양한 직업의 힘든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이 필요한 이유, 소중함 등에 대해 유아들과 함께 다루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더 다양한 직업, 직업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유·초 이음 활동을 하고 있는 1학년의 생각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유·초이음 활동으로 계획하게 되었다.

교사 이야기

다수결이 아닌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유아들과 다수결을 통해 집배원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보는 방법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지 조금 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면 색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 (3-3)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활동명	우리는 어른이 되어 어떤 일을 할까요?
기대되는 배움	• 내가 어른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 한다. • 궁금한 것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보는 경험을 한다. •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수량적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교육과정 내용	• 자연탐구: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탐구과정 즐기기 –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성향적 요소 – 개방성 • 인성: 존중 –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5분)	☑ **어른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내가 어른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여러분은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그 일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 어떤 직업이 가장 많이(적게) 나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래프로 나타내 보아요. – 어떤 직업이 가장 많이(적게) 나온 것 같나요? – 우리 반에서는 ◌◌라는 직업이 가장 많이(적게) 나왔네요. – 1학년 1반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 우리 반 친구들이 직접 물어보고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자 화이트보드, 보드마카 등
전개 (40분)	☑ **1학년 1반이 어른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 알아보기 활동 안내하기** • 1학년 1반이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조사해 볼 것인지 이야기 나눈다. – 초등학교는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 알아보러 가면 좋을까요? – 중간놀이 시간에 학교로 이동할 때 지켜야 할 약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내가 알게 된 것을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 중간놀이시간에 1학년 1반으로 이동한다. – 어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 왜 그 일을 하고 싶나요? – 그 일의 어려운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그럼에도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1학년 형도 동생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 볼까요?	자 유아용 메모판, 연필 유 사전에 1학년 학급 담임교사와 활동 시간 및 내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40분)	• 조사가 끝난 뒤 교실로 돌아와 1학년 1반이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을 알아본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1학년 1반은 어른이 되어 어떤 일을 하고 싶어했나요? – 어떤 일이 가장 많이(적게) 나왔을까요?	
마무리 (10분)	☑ **그래프로 표현하기** • 1학년 1반이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알아본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다. – 그래프를 보니 1학년 1반은 어떤 일을 가장 많이(적게) 하고 싶어하나요? –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그 일의 어렵거나 힘든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우리 반과 1학년 1반에서 가장 적게 나온 ○○라는 일과 □□라는 일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결과 알아보기** • 그래프 결과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우리 반과 1학년 1반의 그래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평가 관점	☑ 내가 어른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가? ☑ 궁금한 것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 ☑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수량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가?	

2) 실행 과정

도입 **어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 나누기**

먼저 유아들이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유아1: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들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 멋져요.
유아2: (머뭇거리며) 선생님, 저는 택배 기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가 그건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처럼 택배 기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진짜 없어요?
유아3: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이 제일 많고, 택배 기사가 되고 싶은 사람 수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유아4: 아니야. 요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제일 많아.

어떤 직업이 가장 많이 나오고 적게 나왔는지 서로 의견이 달랐다. 그래서 칠판에 그래프 판을 그린 뒤, 이름표를 붙여 표시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들의 말처럼 택배 기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수가 가장 적게 나왔다. 그래서 유·초이음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1학년 1반의 생각도 들어보기로 했다.

전개 **1학년 1반이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무엇일까?**

1학년 1반이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알아본 뒤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유아1: 선생님, 택배 기사가 되고 싶은 형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아2: (시무룩해하며) 맞아요. 저 혼자만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교사: 사람들이 힘들거나 어렵다고 모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아2: 우리들 모두 필요한 물건을 배달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유아1: 소방관은 불이 뜨거워서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아무도 소방관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도 있어요.
유아2: 모든 일에는 다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점이 있지만 모두 필요한 직업이에요. 소방관도, 택배 기사도 모두 다요.

1학년 1반, 우리 반이 어른이 되어 갖고 싶은 직업 모두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유아들은 많은 생각을 하는 듯 보였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직업의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마무리 그래프로 표현하기

우리 반과 1학년 1반이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을 그래프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여 함께 책으로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자유롭게 그래프의 결과를 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3) 수업 이후



그래프에 대한 관심 증가

다른 주제에 대해 조사한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어 하는 유아들이 많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사용하여 바닥에 그래프 판을 만들어 주었다.





교사 이야기

다양한 직업의 어려움에 대해 알고 나서 달라지는 유아들

친구와 형님들이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 그 일의 어려움, 그럼에도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였다. 이후 유아들은 "생각해보니까 택배 기사 멋진 것 같아. 좋은 일인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양한 직업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해하며 하는 표현이었지만 직업의 좋고 나쁨, 멋지다는 표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4주 살기 좋은 우리 동네

• 우리 동네의 좋은 점 이야기 나누기

우리 동네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직업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보았던 이전의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동네의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교사: 우리 동네의 좋은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아1: 우리 동네에는 우체국이 있어서 택배를 보낼 때 편해요.
유아2: 우리 동네에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빨리 갈 수 있어요.
유아3: 우리 동네에는 공공기관이 많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 대한 좋은 점을 떠올리며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동네



교사: 아름다운 우리 동네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유아1: 공공기관이 더러워지지 않게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해야 해요.
유아2: 내일 가는 도서관도 공공기관인데 도서관에서 조용히 하고 책도 소중하게 다뤄야해요.
유아3: 택배를 배달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인사도 잘하고 고마움을 가져야 해요.

교사 이야기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공공기관 이용 수칙

아름다운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이야기 나누는 활동이 다음날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망가지거나 지저분해지지 않게 깨끗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유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 하여 자연스럽게 도서관 현장체험학습 전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사전 안전교육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활동들이 이어져 유아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동네’를 걷고, 기록하고, 노래하다
보성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이야기



실태

유치원 특성

- 병설유치원 3학급(3-4세 1학급, 5세 1학급, 특수 1학급)
- 2030교실 특색교육 ‘생태환경교육’과 디지털 활용 수업을 접목하여 진행하고 있음
-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루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체험 자원이 풍부함
- 차 산업과 농어업 기반이 튼튼하며 이를 연계하여 교육과정, 체험활동은 연계가 활발함
- 읍내에 위치하여 우리 동네 도보 이동이 가능하며 산과 바다, 전통문화, 특산품 등 보성 다양한 지역 자원을 교육과 체험에 활용하기에 용이함

우리반 특성

- 5세 통합학급 여아 3명, 남아 3명 (총 6명)
- 도돌이: 다양한 농가 경험을 바탕으로 호기심이 높고 또래와 존중하며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유아
- 현순이·유순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며 놀이와 활동을 주도하고 책임감이 강한 유아
- 옥돌이: 바다 경험과 지식을 놀이로 확장하며 탐구적 태도가 뛰어난 유아
- 현돌이: 감정과 생각을 그림으로 세밀하게 표현하는 데 흥미가 높은 유아
- 채순이: 생각이 뚜렷하고 의견 제시가 활발하며 놀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확장하는 유아

생활주제의 흐름

1주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

- 이야기나누기 | 우리 동네 브레인스토밍
- 탐색 | 구글어스 우리 동네 탐색하기
- 산책 | 우리 동네 한 바퀴_우리 동네 사진작가
- 미술 | 우리 동네 지도 그리기
- 놀이 | 우리 동네 구성하기
- 놀이 | 우리 동네 강 만들기

2주 우리 동네 꽃과 식물

공동교육과정 계획과 다르게 추가된 주제

- 동요 | 새노래 '우리 동네 이름은'
- 산책 | '우리 동네 오일시장' 탐방
- 텃밭 | 우리 동네 오일시장 모종 심기
- 체험학습 | 윤제림 수국정원 체험학습
- 미술 | 윤제림 수국 물감놀이

3주 우리 동네 사람들

- 체험학습 | 우리 동네 관공서 탐방
- 미술 | 경찰서에 일하는 사람은?
- 놀이 | 내가 되고 싶은 우리 동네 사람들
- 놀이 | 내가 일하는 공간 구성하기
- 동극 | 우리 동네 이야기할머니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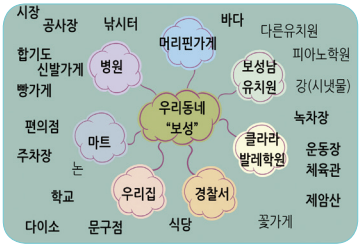
4주 우리 동네를 알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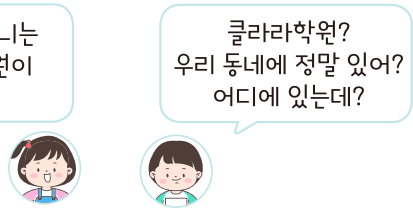
2030교실 수업주간

- 이야기나누기 | 우리 동네 자랑거리는 무엇일까?
- 활동 | 별님이에게 보내는 우리 동네 편지 녹화하기
- 이야기나누기 | 녹차는 무엇일까?
- 체험학습 | 녹차다원 탐방
- 음악 | 우리 동네 노래 만들기

1주 1주 -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

• 브레인스토밍 "우리 동네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아들은 가족과 함께한 공간,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 곳 등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를 자신만의 경험과 연결 지어 확장하며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친구가 제시한 우리 동네 장소에 호기심을 보이는 유아들의 반응을 따라 '우리 동네 한 바퀴' 탐방으로 아래와 같이 연계했다.

• 우리 동네 한 바퀴 탐방

'우리 동네 한 바퀴' 탐방하기에 앞서, 안전교육과 실제적인 사전 계획을 위해 구글어스 위성지도를 함께 살펴보며 탐색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은 저마다 가고 싶은 곳을 선정하고, 어떤 길과 상가를 지나 갈지,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이동할지를 함께 계획했다.



교사 이야기

"브레인스토밍 활동과 우리 동네 탐방을 이어가며…"

브레인스토밍 활동은 특정 답을 찾기보다, 유아가 가진 각자의 동네 경험, 감정, 기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돕기 위한 교사주도적 활동 구성이었다.

유아들은 친구가 이야기한 장소에 대해 "거긴 어떤 곳이에요?", "나도 가보고 싶어요!"라고 반응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보였다.

유아들 사이에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소통이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고, 교사는 이 관심을 이어 '우리 동네 한 바퀴' 탐방으로 활동을 확장했다. 방향을 제안한 것은 교사였지만, 어디로 갈지, 무엇을 볼지, 어떤 길로 갈지는 유아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 탐방의 중심에 유아의 시선을 두었다.



우리 동네 한 바퀴 탐방이 단순히 익숙한 길을 걷는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교사는 유아가 실제로 탐구하고 싶은 장면을 깊이 관찰할 수 있도록 유아용 카메라를 지원했다. 이는 '우리 동네'를 알아가는 과정이 교사가 정한 탐방이 아닌, 유아의 관심과 선택에서 출발하는 진정한 탐험이 되도록 지원을 위한 교사의 의도를 담고자 했다.

• 우리 동네 책 만들기



선생님, 제가 찍은 우리 동네 사진 봅아주세요!



'우리 동네 한 바퀴' 탐방 후, 기억하고 싶은 장소를 사진에 담아온 유아들은 직접 촬영한 사진을 궁금해하며 인화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는 단순 사진 인화가 끝이 아닌, 폐기 도서를 재활용하여 '나만의 우리 동네 기록책'을 만들며, 유아가 촬영한 사진과 함께 자신이 본 우리 동네 이야기를 구성해 보는 확장 활동을 제안하였다.

• 우리 동네 지도 그리기

'우리 동네 한 바퀴' 탐방부터 '우리 동네 책 만들기' 활동까지 이어가며, 유아들은 우리 동네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더욱 깊게 보이기 시작했다. 유아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즐거웠던 추억과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교사는 이러한 유아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 동네 지도' 만들기를 제안하여 각자의 경험과 시선을 함께 시각화해보는 협동 미술활동으로 확장하였다.

율포바다를 여기에 그릴래.

모래사장도 그리자



엄마랑 아빠랑 갔던 캠핑장이에요.



이후 자유놀이시간에 유아들은 함께 만든 우리 동네 지도 속 율포 바닷가를 배경으로 바다 생물을 만들어 보며, 자연스럽게 낚시놀이로 확장해 나갔다.

여기 율포바다에서 낚시놀이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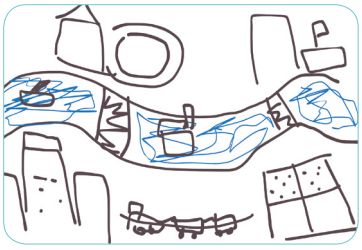


• 우리 동네 책 만들기

친구들이 '우리 동네 지도'에서 낚시놀이가 한창이던 중, 도돌이는 구글어스 탐색에 흥미를 보이며 지도에 표시된 알파벳의 의미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지도에 S가 있어요. W 같기도 해요!


그것이 '강(River)'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이 살고 있는 광주에도 강이 있을까?"

구글어스 탐색을 하며 우리 동네 뿐만 아니라 교사가 거주하는 광주와 다른 도시에도 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탐구는 자연스럽게 바깥놀이로 확장되어, 모래놀이장에서 우리 동네의 강을 협동으로 표현하며 놀이로 이어갔다.

교사 이야기

관심이 흐름이 되고, 흐름이 탐구가 된 '한 주'의 성찰

'우리 동네 한 바퀴' 탐방 후 유아들이 사진 인화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며, 이번 1주 활동이 유아의 자발적 흥미에서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음을 느꼈다. 교사는 '우리 동네 책 만들기'를 제안하여 유아가 사진과 경험을 연결해 기록하도록 했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유아가 스스로 선택하며 주도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도록 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동네 지도 그리기' 활동 역시 유아들이 떠올린 장소와 이야기를 관찰한 뒤 제안한 확장 활동이었으며, 교사는 틀만 열어주고 표현 방식과 장소 선택은 유아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유아들이 지도 속 율포 바닷가를 배경으로 낚시놀이를 펼쳤을 때도, 이를 별도의 활동으로 전환하지 않고 유아의 주도성을 살리며 지원하도록 노력했다. 개입을 최소화하되 유아가 놀이를 더 깊이 확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발문과 환경 및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도돌이가 구글어스 강줄기(알파벳)에 주목하며 탐구가 확장된 순간이 인상적이었다. 유아의 질문을 즉각 탐구로 연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며, 탐색하고 친구들과 협동놀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을 보았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일부 순간에는 설명을 길게 하거나 구조(지도)를 제시하며 교사 중심의 개입이 드러나기도 했다. 앞으로는 설명보다 발문을 통해 유아가 스스로 결정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상호작용 방법을 고민해야겠다고 느꼈다.

이번 1주간의 활동과 놀이는 교사가 방향을 열어주고, 유아가 스스로 길을 선택하며 활동을 만들어가는 흐름을 이어보고자 한 과정이었다. 앞으로도 '교사 제안 → 유아 주도적 실행 → 교사의 민감한 지원'으로 유아의 관심과 경험이 일시적으로 끝이 아닌 지속되어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과 교사 주도성에 대한 중요함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2주 우리 동네 꽃과 식물

• 새노래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이름은 보성인데,
아주 아주 좋아요 정말 좋아요
1. 우리 동네에는 발레학원도 있고 꽃가게있고 **오일시장** 있어요
2. 우리 동네에는 소방서있고 경찰서 있고 학교도 있어요

새노래 '우리 동네' 바탕으로 유아와 함께 우리 동네를 떠올리며 개사했다, 유아들이 만든 일부 가사는 위와 같다. 개사한 우리 동네 장소 중 '오일시장'에 유아들의 공통된 경험들이 이야기가 나오며 자연스럽게 오일시장 탐방으로 이어졌다.



오일시장에서 꽈배기 먹었잖아요! 또 시장에 가봐요.

• '오일시장 탐방'으로 시작된 우리 동네 꽃과 식물 찾기

유아들은 오일시장에서 발견한 다양한 식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직접 찾은 메리골드와 텃밭 모종을 구입하여 유치원 화단과 텃밭에서 '꼬마 농부 활동'으로 연계되었다, 이후 유아들은 다른 꽃을 심어보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우리 동네 화원을 방문하여 꽃 모종을 골라 '꼬마 농부 활동'을 이어갔다.



교사 이야기

공동교육과정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2주,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사일정에 따라 '오일시장' 탐방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교사는 단순 탐방이 아닌 유아의 경험과 흥미를 기반으로 한 기회가 되길 바랐다. 그래서 '우리 동네' 새노래 가사를 유아의 경험 속 장소로 바꾸어 부르며, 자연스럽게 오일시장 경험을 떠올리고 나누도록 연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아들은 오일시장에서 발견한 텃밭 모종과 꽃 모종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는 유치원의 고유 활동인 '꼬마 농부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이 지점에서 공동교육과정의 큰 틀을 유지해야 하는지, 유아의 흥미와 학사일정을 반영해 유연하게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결국 유아의 지속적인 흥미와 학사일정 현실성을 고려하여, 공동교육과정의 흐름 안에서 우리반만의 경험이 반영된 활동으로 재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유아들이 선택한 꽃과 식물을 직접 살펴보고, 심고, 가꾸는 과정을 한층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돌아보면, 활동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지만, 무엇을 더 탐색하고 싶을지 결정하는 것은 유아였다. 앞으로도 계획과 교육적 의미를 찾아가는 교사주도와 흥미와 탐구 중심의 유아주도의 균형을 고민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화를 찾아가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3주 우리 동네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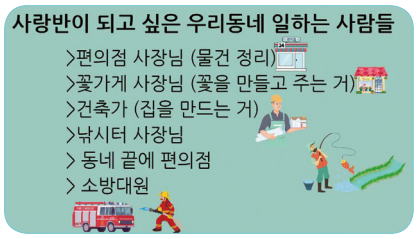
1-2주차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우리 동네의 다양한 장소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3주차에는 그 관심을 확장하여 우리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주목하고, 다양한 직업과 그에 연결된 장소를 알아보는 활동으로 전개하였다.

• 우리 동네 일하는 사람들 역할놀이

"우리 동네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놀이에 표현하고 싶은 우리 동네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

교사의 발문을 시작으로 유아는 맡고 싶은 역할을 스스로 정하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실 곳곳을 자신만의 일터로 꾸미며 주도적으로 역할놀이를 전개했다. 교사는 유아가 자유롭게 일터를 선택하고 새롭게 구성하도록 지원했다.



첫째 날 놀이는 주로 혼자놀이·병행놀이 중심이었다. 교사는 유아의 흐름을 관찰하며 유아가 스스로 놀이 과정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확보했다.


낚시터 사장님
놀잇감을 세워 일터의 경계 만들기


편의점사장님
종이를 활용하여 자신이 일하는 일터를 표현


낚시터로 출동하는 소방관

이후, 협동놀이로 확장될 수 있는 시점이라 판단한 나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소방관이 낚시터 사장님을 도와줄 수 없을까?"

교사의 제안에 따라 친구와 함께 일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며 서로의 역할을 이행하며 협력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모습으로 놀이가 확장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유아들은 한동안 '우리 동네'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놀이를 통해 흥미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유아의 관심이 일상생활 속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는 단순한 우리 동네 흥미를 넘어 우리 동네에 대한 자긍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제를 '우리 동네 자랑거리'로 확장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 이어지는 4주 '우리 동네 자랑거리'를 중심으로 2030교실 수업을 전개하였다.

4주 우리 동네를 알려요(2030교실 수업)

• 수업의 시작

앞서 진행한 1~3주의 활동을 통해 유아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 '추억이 깃든 것'들이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특색과 자랑거리가 존재하지만 많은 유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부터 지역의 특징, 식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성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녹차, 꼬막, 키위 등 여러 농산물 및 해산물의 특산품이 있음에도 유아들은 잘 몰랐다. 특히 보성은 지역과 연계하여 다도체험을 매년 지역청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실정이지만, 형식적인 체험으로 그치며 유아의 삶과 연결된 '우리 동네' 배움의 경험으로 연계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에 따라 4주 활동을 통해 우리 동네의 특색과 자랑거리를 알고 우리 동네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인식하길 바라며 계획했다. 더불어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보성의 '녹차'를 오감으로 느끼고 관찰과 탐구의 과정을 통해 다채로운 녹차를 경험하길 의도하였다. 또한 우리 동네 보성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유아의 삶과 경험을 노래로 만들어 불러봄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우리 동네의 구성원으로서 표현하고 자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연계하여 계획했다.

• 수업의 흐름

우리 동네 자랑거리는 무엇일까?	녹차는 무엇일까?	우리 동네 노래 만들기
• 이웃 동네 친구에게 온 편지 감상하기 • 우리 동네 자랑거리 이야기 나누기 • 우리 동네 자랑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 소감 나누기	• 녹차에 대한 경험 나누기 • 우리 동네 녹차 관찰하기 • 우리 동네 녹차 오감으로 탐색하기 • 소감 나누기	• 지난 시간 새노래 회상하기 • 우리 동네 노랫말 브레인스토밍 • 노랫말 바꾸기 • 바꾼 노래 함께 불러보기 • 다음 활동 계획 및 활동 정리하기

- 유아의 경험 회상을 돕기 위해 체험학습 사진, 활동 영상, 지역 먹거리를 준비한다.
- 불필요한 디지털 활용을 최소화하고, 실제 녹찻잎, 마른 잎 등 실물 제공하여 유아가 오감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 우리 동네 음식·체험·문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자료와 보조 미디어 자료를 준비한다.
- 유아의 관찰·느낌·표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 발문을 사전에 계획한다.
- 활동을 거부하는 유아를 위한 다양한 탐색, 표현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 (3-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활동명	우리 동네 자랑거리는 무엇일까?
기대되는 배움	•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에 관심을 가진다. • 자신의 경험을 관련지어 우리 동네 자랑거리를 말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한다. • 우리 동네 자랑거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진다.
교육과정 내용	•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 예술경험: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0분)	☑ **이웃 동네 친구의 편지 듣기** • 이웃 동네 친구의 메시지 함께 듣는다. – 이웃 동네에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함께 들어볼까요? ○○○유치원 어린이 친구들에게 안녕! 나는 '◇◇'동네에 사는 별님이야. 이렇게 편지로 인사하게 되어 너무 반가워! 혹시 ◇◇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은 자연이 참 아름다운 동네야. 울창한 숲과 깨끗한 물이 가득한 ◇◇적벽(사진1), 그리고 공룡 발자국이 남아 있는 공룡공원(사진2)도 있지! 직접 가 보면 마치 옛날로 시간 여행을 떠난 기분이 들거야. 또 ◇◇국화축제(사진3)가 열릴 때면, 향기로운 국화꽃이 동화처럼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오면 사진도 예쁘게 찍을 수 있고, 체험할 거리도 많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 사람들은 마음이 고와서, 누구든 반갑게 맞이해줘! 기회가 되면 꼭 ◇◇에도 놀러 와 줘! 별님이가 두 팔 벌려 기다릴게. 참, 너희가 사는 보성 동네도 소개해 줄 수 있어? 나도 놀러 가서 마음껏 즐겨볼게!! 안녕~ 친구 별님이가 ☑ **오늘의 활동 안내하기** • 우리 동네 자랑거리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안내한다. – 이웃 동네 별님이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나요? – 우리에게 무엇이 궁금하다고 했나요? – 우리도 별님이에게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자 화순 별님이의 편지 영상 자 클로바더빙, 캔바 활용 유 이웃 동네 화순에 사는 별님이의 이야기로 우리 동네 자랑거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하기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30분)	☑ **우리 동네 자랑거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우리 동네 자랑거리에 대해 생각을 나눈다. – 별님이에게 보성에 대해 어떤 것을 알려주면 좋을까요? – 바다도 있고, 갯벌도 있고, 녹차밭도 있고, 제암산도 있구나. (유아의 다양한 의견 적기) – 지난 시간에 만든 우리 동네 지도도 살펴볼까요? – 지난 시간에 만든 우리 동네 지도에서 우리가 말한 곳을 찾아볼까요? – 율포해수욕장이 있군요. 우리 친구들은 이곳에 가 보았나요? – 율포해수욕장에서 무엇을 하고 놀았나요? – 갯벌에서 여러 바다 동물을 만났군요. 꼬막을 캔 친구도 있네요. – 보성 갯벌에서 자란 꼬막을 먹어 본 친구도 있나요? – 별님이에게 맛있는 꼬막을 먹으러 놀러 오라고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요? – 숲 체험을 하러 가는 제암산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을까요? – 다람쥐 선생님을 이야기해 주고 싶군요. 선생님은 제암산에 피는 꽃과 나무들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별님이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 또 좋았던 기억이 있는 장소가 있나요? –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별님이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싶나요? – ◇◇이는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주고 싶구나. – 지도를 그려주고 싶은 친구도 있네요. 친구들이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이 써줄게요. – 그럼 각자의 그림을 모아서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 보내볼까요? 원하는 미술도구를 가지고 자리에 모여봅시다. ☑ **우리 동네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 우리 동네 자랑거리를 글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 ♡♡이는 다람쥐숲 선생님이 계시는 제암산을 그렸군요. 그림 옆에 뭐라고 써주고 싶나요? – ♧♧이는 엄마와 형이랑 함께 가는 율포해수욕장을 그리고 있군요. 율포해수욕장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 ♤♤이는 녹차꽃이 가득한 녹차밭을 그리고 싶은데 그리기 어렵군요. 선생님이 녹차밭 사진을 보여줄게요. 오려 붙여볼까요?	유 유아의 사전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발표기회 부여 자 캔바에 유아의 의견 적기
마무리 (5분)	☑ **경험 나누기** • 우리 동네 자랑거리를 표현한 결과물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 – 우리 동네 보성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친구들이 만든 그림편지를 볼까요? – 이렇게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를 살펴보니 우리 동네 보성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나요? – 별님이가 이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 다음 활동 안내한다. – 다음시간에는 친구들이 표현한 우리 동네 자랑거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입혀 별님이에게 보내봅시다. (캔바– 녹화하기)	유 우리 동네 자랑거리를 표현한 유아의 기분과 생각 나누도록 발문
평가 관점	☑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에 관심을 가지는가? ☑ 우리 동네 자랑거리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하는가? ☑ 우리 동네 자랑거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 하는가?	

2) 실행 과정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의도

유아가 '우리 동네' 자랑거리에 흥미를 느끼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할까?

위와 같은 고민에서 출발해, 4월에 진행했던 'ㅇㅇ에게 온 편지' 활동이 유아의 흥미와 자발적 참여를 활발하게 이끌어냈던 경험을 떠올렸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편지'를 활용하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이에 '이웃 동네 친구에게 온 편지'를 도입으로 설정하여 유아가 주도적으로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답장을 보내는 방법으로 활동을 구성했다.

도입 딩동, 별님이에게 온 편지 감상하기

[별님에게 온 편지 일부 내용] *계획안 참고
안녕! 나는 '◇◇'동네에 사는 별님이야. 이렇게 편지로 인사하게 되어 너무 반가워!
혹시 ◇◇동네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중간 내용 생략)
너희가 사는 보성 동네도 소개해 줄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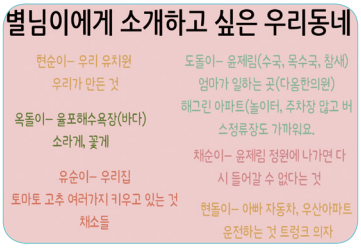


별님에게 온 편지 QR코드 (동영상)

전개 별님이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동네는 무엇이 있을까?

도돌이: 저는 윤제림에 있는 수국이랑 목수국이랑 참새가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요.
채순이: 그럼 저는 윤제림 들어왔다가 그냥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려 줄래요!
(윤제림 탐방을 통해 입장티켓을 내고 들어가고 다시 나오면 티켓을 다시 출력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함)
교사: 우리 보성에서 맛있는 것이나 꼭 가면 좋은 곳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현순이: 저는 우리 유치원이요. 우리가 만든 텃밭을 알려주고 싶어요.
옥돌이: 나는 율포바다(보성율포해수욕장)에 살고 있는 소라게, 꽃게 알려줄 거예요.

체험 경험을 토대로 '윤제림'과 같은 보성의 수국정원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다수 유아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나 관심사를 알려주고 싶어했다. 이전 체험학습 갔던 장소에 대한 기억, 우리가 가꾸고 있는 유치원 텃밭 등과 같이 유아들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했다.



교사: 현돌이는 별님이에게 무엇을 소개해주고 싶나요? 우리가 만든 우리 동네 지도 살펴보면서 생각해볼까요?
현돌이: (우리 동네 지도를 살펴보다가) 내가 살고 있는 우산아파트랑 아빠가 타는 자동차를 알려줄래요. 트렁크가 엄청 넓거든요?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앞에는 큰길이 있어요.

교사는 유아들이 당연히 녹차, 꼬막, 키위 등을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특산품)로 이야기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읍에 사는 유아들에게는 이러한 주제들이 실제 생활과 깊이 연결되지 않은 듯했다. 이에 교사는 유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보성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따라가 보기로 했다.



교사: 우리가 발표하고 나눈 이야기를 별님이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도돌이: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줘요!
현순이: 그림에다가 우리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사전경험으로 캔바 녹화하기 기능으로 여러 차례 나의 이야기를 담아 본 경험이 있음)

유아들 제안대로 그림을 그려보기 했다.

전개 내가 소개하고 싶은 우리 동네 그림 그리기

교사: 우리 동네 어떤 자랑거리를 그리고 있나요?
현순이: 유치원 텃밭 나무 세운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교사: 옥돌이는 좋아하는 바다 동물도 별님이한테 소개하고 싶었군요. 선생님은 율포바다에 갔을 때 해파리를 정말 많이 봤었어요.
옥돌이: 저도 엄청 많이 해파리 봤어요! 해파리도 그려야지. 그리고 철갑상어도 그려줄래요.
교사: 율포바다에서 철갑상어 본 적 있어요?
옥돌이: 아니요. 내가 좋아하니까 별님이한테 보여줄거예요.



실제 살고 있는 동물과 좋아하는 생물을 함께 그린 율포바다 옥돌이 그림



부모님께서 일하는 한의원과 교회 텃밭을 표현한 도돌이 그림

마무리 소감 나누기

교사: 별님이가 이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우리 동네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순이: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현돌이: 별님이 받고 좋아할 것 같아요.
도돌이: 별님이한테 다시 연락 왔으면 좋겠다!

도돌이: "별님이한테 다시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같이 말하며 활동의 연속성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교사가 즉각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실제로 이웃 동네에 근무하는 교사와 협력하여 유아 간 실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보다 사실감 있게 우리 동네를 소개하고 이웃 동네를 알아보는 확장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3) 수업 이후

별님이에게 보내는 그림편지 녹화하기



[캔바 녹화하기]기능을 활용해보며,

발표할 때 말하지 못한 나의 그림 속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내며 녹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평소 발표나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소극적이거나 말하기를 거부하던 유아에게도 자신감을 주어 유아 주도적인 참여와 표현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별님이에게 소개하는 우리 동네 편지 QR코드

교사 이야기

우리반 아이들이 생각하는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가 성인의 시각에서는 특산품이나 관광지가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유아에게는 행복을 느끼고 좋아하는 장소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녹차예요.", "꼬막이에요"라는 대답이 단순한 사실 암기가 아니라, 유아의 경험과 감정 속에서 형성된 자긍심의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아가 주도적으로 우리 동네의 관광지, 특산품을 생활 속에 경험하고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얻으며 우리 동네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얻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 활동을 통해 유아의 수준과 경험에서 출발하여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부심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가 새로운 경험과 맥락을 제공하는 교육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함을 성찰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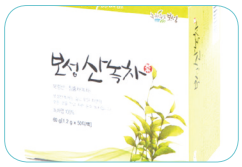
이에 따라 우리 동네 특산품 경험을 위해 다음활동은 보성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녹차'를 중심으로, 유아들이 우리 동네만의 자랑거리를 알고 흥미를 느끼고 알아갈 수 있도록 다음 '녹차를 만나요' 활동으로 오감 탐색 활동을 이어가보고자 한다.



• (3-2)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활동명	녹차를 만나요
기대되는 배움	•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인 녹차에 관심을 가진다. • 녹차를 탐색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 오감으로 느끼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교육과정 내용	•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 자연탐구: 탐구과정 즐기기 –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문제해결력,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몰입 •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0분)	☑ **사전경험 나누기** • "우리 동네 자랑거리"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회상한다. – 지난 시간 별님이에게 무엇을 소개해 보았나요? – 우리 동네 자랑거리 편지를 함께 볼까요?(동영상 파일) ☑ **오늘의 활동 알아보기** • 녹차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안내를 한다. – 오늘은 우리 동네 자랑거리 중, "녹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 녹차를 마셔본 적 있나요? 맛이 어땠나요?	자 별님이에게 보내는 우리 동네 자랑거리 편지영상 유 사전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기회 부여하기
전개 (30분)	☑ **녹차의 모습과 특징 알아보기** • 녹차를 오감으로 관찰한다. – 선생님이 우리 동네 보성녹차를 가지고 왔어요. – 우리 동네 녹차를 본 적 있나요?    – 여기 있는 녹차는 어떻게 생겼나요? – 전에 먹어 본 녹차와 어떤 점이 다르나요? – 마른 찻잎은 어떤 색인가요? – 어떤 향기가 나는지 맡아볼까요? – 맡아보니 어떤 냄새 같나요?	자 녹찻잎, 티백, 녹차가루, 우린 물 유 오감으로 느끼며 탐색, 관찰하도록 기회 부여 자 캔바 슬라이드 → 녹차 먹거리 사진 자료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30분)	– 또 어떻게 해보고 싶나요? – 어떤 향기가 나나요? – (생잎 녹차, 마른 녹차)손으로 만져보니 어떤가요? – 서로 같은 녹차인데 왜 색깔과 느낌이 다를까요? – 선생님이 준비한 녹찻물 색깔은 어떤가요? – 선생님이 찻잎에 따뜻한 물을 부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 찻잎에 들어간 물의 색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 물의 색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기다리면서 지켜볼까요? – 점점 물의 색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 물을 만난 녹찻잎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녹차를 마셔볼까요? – (녹차 맛보기)맛은 어떤가요? – 향기는 어떤가요? – 녹차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쿠키(가래떡, 약과)를 준비했어요. 녹차를 마시며 함께 먹어볼까요? – 함께 먹으니 어떤가요? – 녹차로 만든 다른 음식을 먹어 본 적 있나요? – ◇◇이는 녹차아이스크림을 먹어봤구나. 맛이 어땠나요?	유 안전을 위하여 너무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유 녹차가 맛이 없다고 활동을 거부하는 유아 맛보기 대신 향과 촉감으로 탐색하기 유 녹차의 성분 특성에 따라 유아에게 시음 주의 안내(카페인 함양)
마무리 (5분)	☑ **경험 나누기** • **녹차 탐색 후 느낌과 생각을 나눈다.** –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인 녹차를 마셔보니 어떤가요? – 우리 동네에서 나는 녹차를 사람들이 많이 마시고 좋아한대요. – 왜 그럴 것 같나요? – 이렇게 몸에 좋은 녹차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니 친구들 기분은 어떤가요? • **다음 활동 안내한다.** – 다음시간에는 녹차로 어떤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 녹차 그림을 그려볼까요?	
평가 관점	☑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인 녹차에 관심을 가지는가? ☑ 녹차가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가? ☑ 녹차를 오감으로 탐색하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2) 실행 과정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의도

우리 동네 녹차를 선정한 이유

보성은 군과 지역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매해 다원을 방문해 녹차를 보고, 만지고, 맛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러나 앞선 활동과 놀이 과정을 돌아보니, 유아들이 우리 동네의 대표 특산물인 '녹차'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로 연결해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이번 활동에서는 우리 동네 녹차를 보다 깊이 탐색하며 관심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도입 녹차에 대한 경험 나누기

교사: 녹차를 마셔본 적 있나요?
현순이: 저는 집에서 이모가 왔을 때 마셔봤어요.
도돌이: 엄마랑 아빠랑 카페에서 마셔봤어요.
채순이: 행복반(4세)때 녹차밭에 가서 마셔봤잖아요~

이전 활동에서 우리 동네 자랑거리로 보성을 대표하는 '녹차'가 언급되지 않아 다소 의아했다. 그러나 유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각자 '녹차'와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전개 녹차 탐색하기

교사: 선생님이 우리 동네 보성녹차를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생겼나요?
현순이: 미역 같아요!
옥돌이: 으으, 애벌레 같은데 나는.
교사: 선생님이 보여준 녹차 사진(생잎)과 이 녹차랑은 뭐가 다른지 관찰해볼까요?
도돌이: 색이 달라요. 얘는 진한 초록색이고 사진은 연두색이에요.
채순이: 사진보다 이게 더 잎이 쪼그라들었어요. 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교사: 향기는 어떤지 맡아볼까요?
현순이: 오~ 향기 좋은데?
유순이: 건강해지는 냄새예요.



유순이: 나는 숲 체험 갔을 때 맡았던 냄새 같은데.. 선생님 이거 먹어봐도 돼요?
옥돌이: 어, 나도 먹어 보고 싶다!
교사: 마른 녹찻잎을 맛보고 싶나요? 그럼 한 입 먹어볼까요? 무슨 맛이 나나요?
현돌이: 나는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유순이: 왜? 나는 맛있는데? 뭔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

다양한 녹차의 모습에 호기심을 갖고 오감으로 탐색하는 유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 따듯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순이: 연두색으로 바뀔 거예요!
현순이: 맞아. 물 색깔이 바뀔거야.
교사: 그럼 마른 녹찻잎은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도돌이: 잎이 열릴 것 같아요.
채순이: 나는 잎이 둥둥 뜰 것 같은데.
교사: 선생님이 물을 부어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볼까요?



유아들은 색이 변한 녹찻물과 녹찻잎의 변화를 매우 흥미롭게 관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녹찻물이 점차 진해지는 색깔의 변화, 녹찻잎이 풀어지며 움직이는 형태적 변형을 세밀하게 주시하며, 이를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과 연결하여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개 녹차 마셔보기



교사: 따듯한 녹차를 마시니 어떤가요?
시순이: 몸이 따듯해지고 있어요!
옥돌이: 녹차 마시니까 힘이 세지는 것 같아요.
현순이: 나무에서 나는 냄새가 나요.

전개 시간에 따라 달라진 녹차 관찰하기



[10분 뒤 녹차]
현돌이: 물 색깔이 더 진해졌어요!
유순이: 음, 아까보다 맛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채순이: 약맛이 나는 것 같은데?
교사: 녹차를 오랫동안 물에 우리면 약맛처럼 진해지나보군요.
도돌이, 현돌이: 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 더 지켜봐요!
교사: 그럼 더 지켜볼 수 있게 선생님이 잔을 치우지 않을게요.

유아들은 녹차를 마시는 것보다, 색이 변해가는 과정과 그에 따른 맛의 변화를 경험하는 데 더 큰 흥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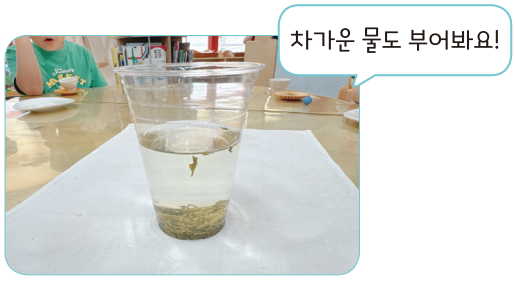
3) 수업 이후

차가운 물을 만난 녹차는 어떻게 될까?

계속 관찰을 하고 싶다는 유아의 제안에 교실 책상에 올려두고 관찰하기로 했다. 녹찻물의 색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 유아들이 물의 온도에 따른 변화도 관심을 보이며 함께 탐색했다.



왼쪽-차가운 물 / 오른쪽-따듯한 물



30분 뒤 차가운 물을 부은 녹차

교사: 물을 붓고 기다려보았는데, 녹차 물 색깔이 어떤 것 같나요?
현순이: 내 말이 맞았어요! 따듯한 물이 더 진해요.
시순이: 나는 시원해서 녹차가 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도돌이: 근데 차가운 물도 연두색으로 조금 변한 것 같아! 시간 지나면 더 색이 진해질거야.

마무리 우리 동네 자랑거리, 녹차에 대한 소감 나누기

유아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녹찻물의 변화 관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수업의 목표는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인 보성녹차를 알아보는 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 녹차에 대한 소감 나누는 시간으로 활동을 마무리해 보았다.

교사: 사람들은 우리 동네 보성녹차를 많이 마시고 좋아한대요. 마셔보니 어떤 것 같나요?
유순이: 몸이 튼튼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현돌이: 약맛이 나는 녹차니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거예요.
교사: 너희가 말한 것처럼 녹차는 우리 몸이 아프지 않도록 도움을 준대요. 우리 동네 녹차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니 친구들 기분은 어떤가요?
도돌이: 우리 동네 녹차가 좋아졌어요.
현순이: 나중에 녹차밭에 가면 녹차를 더 아껴줄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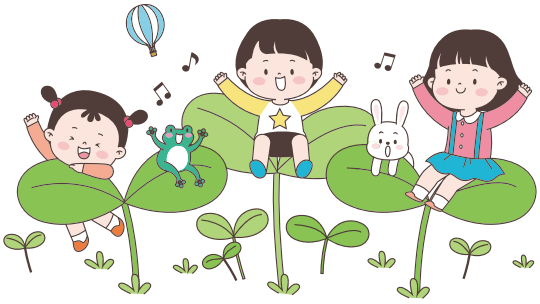
교사 이야기

유아들은 마른 녹찻잎을 맡고 만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맛을 보며 관찰하는 등 높은 탐구 의지를 보였다. 물을 붓기 전과 후의 변화를 추측하고 상상하며 표현하였고, 따뜻한 물을 부은 뒤 색과 형태가 달라지는 현상에 큰 흥미를 보였다. 나는 유아가 스스로 물을 더 붓고 기다리며 색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재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심으로 탐색하도록 지원하였다.

활동 유형의 유연한 변경과 대처, 어디까지 정답일까?

본 활동은 당초 '의사소통' 중심으로 계획되었으나, 유아의 자발적 탐색과 호기심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연탐구'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교사는 유아의 흥미 흐름을 존중하며 개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활동의 본래 목표였던 '우리 동네 보성녹차 이해'와 같이 기대되는 배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 주도성과 교사 주도성 사이의 균형, 그리고 유아의 질문과 탐구를 어떻게 더 깊이 끌어낼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교사는 이러한 우리 동네 대표 먹거리(녹차) 경험을 바탕으로 유아가 '우리 동네 자랑거리'를 느끼고 생각한 점을 노랫말로 표현해보는 '우리 동네 노래 만들기' 활동으로 연계하여, 유아의 경험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쳐볼 수 있도록 다음 활동으로 이어가 보았다.



• (3-3)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활동명	우리 동네 노래 만들기
기대되는 배움	• 노랫말을 바꾸며 우리 동네에 대해 소중한 마음을 가진다. • 친구와 함께 노래 만드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 자기의 경험과 관련지어 우리 동네 자랑거리를 말로 표현한다.
교육과정 내용	•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더불어 생활하기 –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 예술경험: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노래를 즐겨 부른다. •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사고의 수렴, 몰입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집단 협력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 **지난 활동 회상하기** • 지난 시간 새노래 "내가 그리는 우리 동네"를 회상한다. – 지난 시간 어떤 노래를 불러보았나요? – '내가 그리는 우리 동네'를 다시 한 번 불러보고 시작해 볼까요? – 이 노래를 불러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 **오늘의 활동 안내하기** • 우리 동네 노래 만들기 활동을 안내한다. – 오늘은 우리 동네에서 느끼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노래로 만들어볼까요? – '내가 그린 우리 동네'는 우리가 살고 있는 '보성'동네의 이야기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자 새노래 '내가 그린 우리 동네"음원 유 사전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우리 동네에 대한 경험을 확인한다.
전개 (30분)	☑ **'우리가 살고 있는 보성' 이야기 노랫말 생각하기** • 우리 동네에서 즐거웠던 경험이나 생각을 떠올리며 노랫말을 생각한다. (브레인스토밍→시각화) – 우리 동네에서 즐거웠던 이야기를 노랫말로 만들면 어떨까요? – 우리 동네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 우리 동네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해 볼까요? –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윤제림에 있던 수국이 예쁘고 아름다웠군요. – 그곳에서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 무엇이 생각나나요? – 우리 동네에서 먹었던 것 중 가장 맛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 우리 동네에서 보았던 것 중 가장 예쁘고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30분)	☑ **'우리가 살고있는 보성' 이야기 노랫말 정하기** • '내가 그리는 우리 동네' 노래에 바꿔 넣을 노랫말을 정한다. – '내가 그리는 우리 동네' 노래에 우리가 모은 생각으로 가사를 바꿔볼까요? – '우리집 앞 마당엔' 대신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린 우리 동네** 우리집 앞 마당엔 요술 놀이터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죠 놀이터 땅 속 아랜 나만의 비밀창고 있죠 횡단보도 건너면 뭐든 살 수 있는 마트도 있지 마트 옆에는 수영장도 있죠 우리 매일 같이 놀자 내가 그리는 우리 동네로 놀러 오세요 **(예)우리 동네 노래** 유치원 앞 놀이터는 우리 아지트 보성 동네 행복 가득하죠 보성에 녹차밭과 제암산 비밀 숲이 있죠 ... . – 제목은 무엇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 더 바꾸고 싶은 노래 가사말이 있을까요? – 남은 노랫말은 어떻게 할까요? ☑ **함께 만든 노래 부르기** • 바꾼 새노래 가사로 노래를 불러본다. – 함께 바꾼 가사말로 우리 동네 노래를 불러볼까요? – 가사를 잊지 않기 위해 손동작이나 율동을 만들수 있을까요? – ○○이처럼 손박수와 발박수를 치며 박자를 맞춰 볼 수 있겠구나.	자 캔바 →브레인스토밍 유 유아가 개사하길 원하는 노래가 있는 경우 반영하기 (예-내가 그리는 우리 동네→예쁜 꽃 우리 동네 변경) 자 새노래판 자 캔바→새노래판 유 브레인스토밍한 유아 경험과 연결된 아이 디어를 바탕으로 가사말 만들기 유 기존 유아가 잘 알고 있는 새노래 바탕으로 가사 변경하기
마무리 (5분)	☑ **활동 정리하기** • 우리 동네 노래 소감을 나눈다. – 우리 동네송을 함께 만들어 보니 어땠나요? – 노래를 불러보니 우리 동네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나요? – 우리가 만든 노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어떨까요? – 우리 동네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 동네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 다음 활동 안내한다. – 다음 시간에는 누구에게 우리 동네 노래를 들려줄까요? – 우리의 노래 영상을 촬영하여 동생들에게 알려볼까요?	
평가 관점	☑ 노랫말을 바꾸며 우리 동네에 대해 소중한 마음을 가지는가? ☑ 친구와 함께 노래만드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는가? ☑ 자기의 경험과 관련지어 우리 동네 자랑거리를 말로 표현하는가?	

2) 실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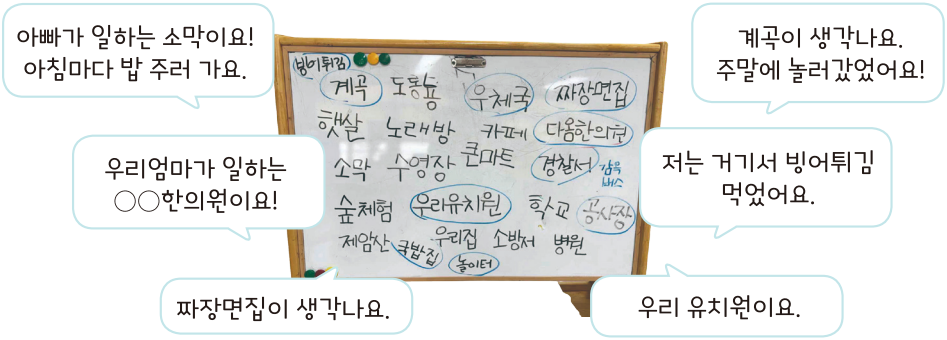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의도

우리 동네 노래 만들기 활동 선정 이유

우리반 유아들은 배운 새노래를 우리만의 노랫말로 바꾸어 부르며 즐겁게 참여하는 사전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아가 자신의 우리 동네 경험을 노랫말로 표현하도록 유도하면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아 주도적 표현과 흥미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 동네 노래 만들기'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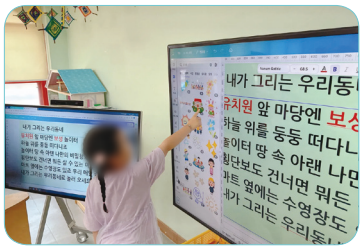
도입 우리가 살고 있는 보성' 노랫말 생각 모으기

"우리 동네 '보성'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유아들은 각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즐거웠던 기억이나 추억이 담긴 장소와 먹거리를 소개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의 생각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칠판에 기록하며 이야기를 이어갔고, 이를 통해 유아들이 서로의 경험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공감하고 확장된 대화를 나누도록 했다.

전개 우리 동네 노랫말 정하기



교사: 우리가 모은 우리 동네 단어로 노랫말을 바꿔볼까요? '우리집 앞 마당엔-' 무엇으로 바꿔볼까요?
현순이: '우리집' 말고 '유치원'으로 바꿔요!
유순이: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죠' 하는게 이상해요.
채순이: 그럼 '하늘 위를' '씩씩하게'로 바꾸자.
교사: 우리가 함께 다녀 온 장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무엇인가요? 우리 동네의 특별한 장소를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유아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우리 동네의 경험을 떠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가사를 만들어 갔다. 친구의 단어와 자신의 단어를 조합하거나 바꾸며 즐겁게 노래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글을 모르는 유아를 위해 교사는 캔바 요소(그림) 기능을 활용해 스스로 그림을 넣으며 노래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전개 함께 만든 우리 동네 노래 불러보기



<1절>
유치원 앞 마당엔 ○○○ 놀이터
씩씩하게 함께 걸어가요.
경찰서 경찰버스 감옥이 있죠
빙어튀김 계곡이 있죠
횡단보도 건너면 국밥집, 짜장면집
옆에 다옴한의원 우체국 옆에 공사장도 있죠
우리 매일 같이 놀자
햇살 가득한 우리 동네로 놀러 오세요

교사: 우리가 바꾼 새노래를 불러볼까요? (노래 후) 어땠나요?
채순이: 엄마랑 간 곳을 노래로 부르니까 신났어요.
옥돌이: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노래가 되니까 신기했어요.
도돌이: 바꾼 노래가 아직 안 외워지니까 가사 종이를 뽑아주면 좋겠어요.

유아는 좋아하는 우리 동네의 장소와 가족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 노래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는 듯했다. 또한 우리 동네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빨리 외우고 싶어 하며, 가사판을 출력해 집에서 연습해 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마무리 함께 만든 우리 동네 노래 소감 나누기

교사: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함께 바꾸어 보니 어땠나요?
유순이: 어려웠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좋았어요.
현순이: 도돌이랑 옥돌이가 말한 계곡에 놀러 가고 싶어졌어요.
도돌이: 노래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어요.

이에 교사는 유아의 제안을 존중하여, 유아가 만든 노랫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이어갔다.

3) 수업 이후

우리가 만든 노래 그림 그리기

유아는 저마다 자신이 말한 우리 동네 장소, 먹거리 등을 그림 그리기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이전에 다녀온 경찰서를 회상하며 그림으로 표현하는 유아, 엄마와 함께 간 국밥집과 짜장면집을 그리는 유아 등 자신이 바꾼 노랫말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2절, 3절, 4절까지 이어 만들기



교사: 우리가 모은 남은 노랫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채순이: 2절 만들면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다음날, 집에서 1,2절을 외워 온 도돌이는 3절을 만들고 싶다고 자유놀이시간에 교사를 찾아왔다.

<2절>

우리집 앞 마당엔 보성 아파트
씩씩하게 함께 걸어가요.
아빠가 일하는 소막도 있죠
수영장도 있죠
횡단보도 건너면 노래방, 큰마트, 카페도 있죠
우리학교 옆에 보건소 있죠
제암산 숲 체험 가자
내가 그리는 우리 동네로 놀러 오세요

<3절>

편의점 앞 마당엔 ○○○ 유치원
씩씩하게 함께 걸어가요.
구두 운동화 파는 신발가게
소방서도 있죠
학교버스 타고 가는 율포바다
해파리도 있어요
보성도서관 옆에는 오일시장
체육관에서 같이 놀자
내가 그리는 우리 동네로 놀러 오세요

<4절>

치킨집 앞 마당엔 할아버지 농장
씩씩하게 함께 걸어가요.
수국 많은 윤제림~ 캠핑할 수 있어요.
녹차밭도 있죠~
피아노학원 옆에는 아동센터 옷가게
주차장 옆에는 햄버거집 있죠
센트럴뷰에서 같이 놀자
내가 그리는 우리 동네로 놀러 오세요



도돌이의 3절, 4절 만들기를 시작으로 다른 유아들도 관심을 보이며 함께 노랫말을 구성하였고, 위와 같은 노랫말로 바꾸었다. 이후 유아들은 함께 만든 우리 동네 노래를 즐겨 부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 이야기

선생님, 노래 부르기 말고 노랫말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요!

실제 활동 중,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왔다. 유아들이 '바꾼 노랫말로 노래를 부르기 보다는, 내가 만든 가사를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고 제안한 것이다. 교사는 잠시 당황했다. 교사로서 '우리반만의 노래를 완성하고 함께 불러본다'는 계획이 분명했기 때문에, 유아의 흐름을 그대로 따를지, 아니면 교사의 계획에 맞춰 노래 부르기에 집중하도록 이끌지 고민되었다.

결국 교사는 우리반 특성과 활동 맥락을 고려해, 유아가 제안한 '노랫말 그림 그리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활동 몰입의 지속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유아들은 자신이 만든 가사를 시각적으로 그림표현하며 노랫말을 더욱 깊게 이해했고,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사를 반복하며 익혀갔다. 이후 교실은 유아들이 스스로 기억해 온 우리 동네 노랫말을 흥얼거리는 목소리로 가득 찼고, 그제야 교사는 이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교사는 '교사의 계획적 의도'와 '유아의 주도적 선택'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배움의 깊이를 확장하는 요소임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었다. 교사가 계획한 방향이 필요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유아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흐름을 민감하게 수용할 때 어린이의 배움은 더 풍부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그리는 우리 동네" 노래 (우리반 아이들의 우리 동네 노랫말 그림과 녹음QR)

스스로, 천천히, 함께 만들어간 '우리 동네' 이야기



실태

유치원 특성

- 최근 인근 신도시로 이주한 인구가 많아 지역 원도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학령인구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인근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그 밖에 주택과 상가가 있음
- 지역의 원도심에 위치한 4(1)학급 병설유치원
- 3, 4, 5세 각 1학급, 특수학급 1학급으로 구성됨
- 유치원의 사방이 좁은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등·하원 교통안전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 최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사 중으로 마을주민의 모임 장소였던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2025. 5월 ~ 2026. 6월 완공 예정)

우리반 특성

- 5세 학급으로 남아 6(2)명, 여아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통합학급으로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2명 있음
- 교사가 제안한 놀이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
- 교사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한 유아들이 많음
-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친절하며 놀이 시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놀이하는 유아들이 일부 있음



생활주제의 흐름

1주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

- 쌓기 | 우리 동네 꾸미기
- 미술 | 우리 동네 다양한 집
- 체험 | 우리 동네 탐험(산책)하기
- 동화 | 로지의 산책
- 디지털 | 구글어스로 우리 동네 변화 보기
- 일상생활 | 등·하원 길에 우리 동네 관찰
- 환경 | 우리 동네와 관련된 그림 자료

2주 우리 동네 사람들

- 체험 | 우리 동네 시장 방문하기
- 역할 | 가게놀이
- 다모임 |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 언어 | 질문카드 만들기
- 초대장 | 우리 가족 초대하기
- 일상생활 |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 환경 | 우리 동네 기관 사진

3주 아나바다 나눔장터

- 줍깅 | 우리 동네 줍깅 실천하기
- 요리 | 텃밭 채소 요리하기
- 미술 | 아나바다 장터 간판 만들기
- 디지털 | 쿠폰 디자인하기
- 역할 | 아나바다 나눔장터 놀이
- 언어 | 손님과 주인이 하는 말
- 일상생활 | 쿠폰을 모아요
- 환경 |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 물 주기

4주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요

2030교실 수업주간

- 미술 | 우리 동네 안전 표지판 만들기
- 다모임 | 우리 동네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 동화 |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 노래 | 행복한 우리 동네
- 디지털 | 전자책 만들기
- 체험 | 불편한 점 찾아보기
- 일상생활 | 등·하원길 쓰레기 줍기
- 환경 | 깨끗한 동네를 위한 약속판

1주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

• 우리 동네 탐험(산책)하기 1

우리 동네를 돌아보기로 하였다.

교사는 '탐험'을 떠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유치원 주변을 돌아본 경험은 있었으니, 이번에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바랐다.

유아들은 좋다고 했고, 우리 동네를 다녔을 때 기억에 남는 장소나 가고 싶은 곳을 이야기 나누었다. ○○인스빌(유치원 인근 대단지 아파트)에 있는 '부채 놀이터'에 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 놀이터 말고 다른 곳은 없을까요?
유아: 아니요! 부채 놀이터에 가고 싶어요.
교사: (지도의 다른 곳을 가리키며) 이곳은 어때요?
유아: 아니요!! 부채 놀이터에 가고 싶어요.
교사: 왜 부채 놀이터에 가고 싶나요?
유아: 재밌어요! 안 가본 친구들도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교사: 그럼 투표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유아: 좋아요!!

우리 동네 탐험을 하기로 했으니 그동안 가지 못한 곳으로 가기로 했는데 유아들은 자꾸 '부채 놀이터'를 가자고 했다. 교사는 다른 곳을 가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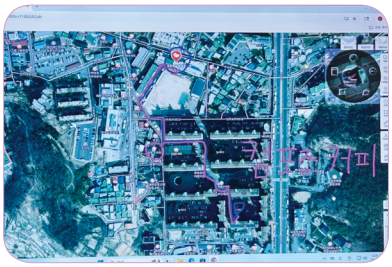
-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이 좋지 않을까요? (탐험의 의미 알리기)
- 부채 놀이터는 많은 친구들이 가본 곳이잖아요. (반론)
- 선생님은 다른 곳에 가고 싶어요. (의견 제시)

'탐험'이라는 말을 자꾸 상기시키며 여러 의견을 제시했지만,
투표 결과는 압도적인 차이(9:2)로 교사가 졌다. 그래서 유아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유아들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지만, 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용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양한 이유를 들어 교사를 설득했다.

유아 주도성과 교사 주도성

교사는 내 의견대로 결정하지 않고 생각을 말하고 조율하면서 함께 탐험 장소를 결정했다.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였다.



전자칠판으로 그린 탐험 경로

유아들과 함께 인터넷 지도에서 부채 놀이터까지 다녀오는 탐험 코스를 정했다.

부채 놀이터에서 유아들은 친구들과 마음껏 신나게 놀았다.

돌아오는 길에는 함께 정한 경로대로 카페에 들려 시원한 음료를 나눠 마셨다. 부채모양을 닮아 '부채 놀이터'라고 이름 지어진 놀이터는 이제 우리반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교사 이야기

[왜?] 유아들은 왜 '부채 놀이터'에 가고 싶어 했을까?

'부채 놀이터'가 왜 좋냐는 교사의 발문에 유아들은 "재미있어요." , "엄청 높은 미끄럼틀이 있어요." , " 놀이터가 부채 모양이에요" , "언제 **이랑 놀았는데 재미있었어요. "등등 저마다의 이유를 말했다.

결국 유아들은 우리 동네에서 익숙하면서도 가장 재미있는 장소를 선택한 건 아닐까?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라는 유아의 말처럼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장소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공간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도 놀이터라는 공간에 충분히 흥미를 느꼈다. 같은 아파트에 살지 않은 반 친구가 모두 함께 노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왜?] 교사는 왜 '부채 놀이터'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

교사는 새로운 곳을 원했다. 탐험을 떠나 우리 동네에서 한 번도 가지 못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우리 동네의 비밀 같은 것을 짠! 하고 발견하길 바란 것은 아니었을까? (탐험에 대한 교사의 편견)

평소에는 잘 하지 않지만 (나름 유아들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임) 이번에는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교사의 의견이라는 말과 설득이라는 명분으로 욕심을 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알았지만, 부채 놀이터를 보고 나서 새로운 곳을 가야 한다는 교사의 고정관념을 더욱 반성하게 되었다. 4~5미터 정도 높이의 놀이터에 미끄럼틀이 있었고 주변은 뛰어놀기 좋았으며 그것만으로도 매력적이었다. 교사는 동네라는 넓은 공간을 생각하며 접근하려고 했지만 결국 유아들은 자신의 생활과 가장 익숙하고 가까운 곳에서 생각하며 경험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미끄럼틀에서 내려올 때 친구의 머리가 번개 모양으로 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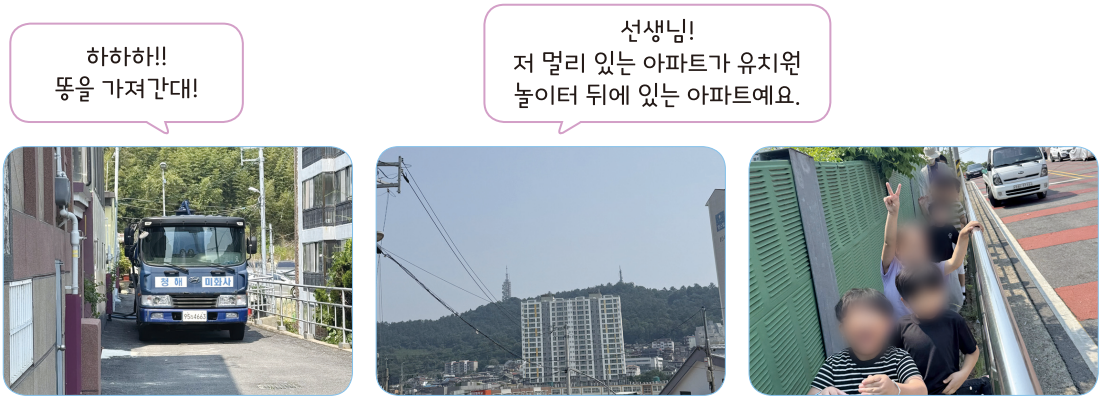
"시원한 카페에서 초코라떼 먹는 거 맛있었어요."

"봄에 봄소풍 갔을 때도 좋았는데 정말 좋아요." (봄소풍 장소를 결정할 때도 유아들은 아파트 안의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는 넓은 곳을 결정했었다)

여러 이야기를 통해 추측해 보면 즐거움, 우리 동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우리 동네의 다른 장소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았을까?

• 우리 동네 탐험(산책)하기 2

그 후 유아들은 우리 동네의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목포시 의료원 옆길로 가보자며 탐험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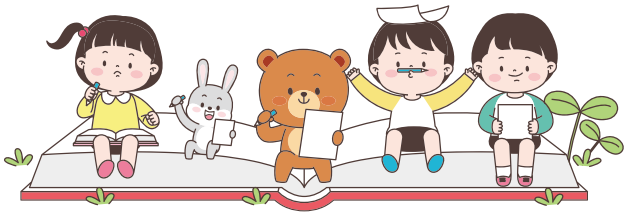


처음 가본 우리 동네 장소에서 발견한 새로운 것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고 자신들도 몰랐던 곳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사실에 무척 즐거워했다. 옛날 주택에서 볼 수 있었던 미화차(교사는 미화차의 의미를 알려주고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이로동, 어느 주택의 장미와 바닥에 핀 꽃 등을 발견하고 재미있어했다.

"야호!! 라고 외쳐봐요."
"이렇게 높은 곳이 있었어요?", "이 길은 진짜 처음 와봐요."
이로동에 대해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처음에 교사의 의도대로 유아들의 생각이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바심을 냈지만,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따라가며 함께하다 보니 결국 스스로 교사의 생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경험하고 발견해 나갔다.



2주 우리 동네 사람들

• 이로 시장을 가다



유치원 인근에는 작은 시장이 있다.

순대국밥을 파는 가게가 몇 곳 있고 떡집, 과일가게, 방앗간 등 많지 않은 가게가 있는 오래된 시장이다.

시장은 여러 가게를 살피기 좋았고, 마침 동생 반의 '결혼식 놀이' 소식이 들려왔다. 결혼식 음식 중 떡을 사서 함께 나눠 먹자고 제안한 후 시장으로 향했다.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우연히 이로 시장의 좁고 작은 골목길을 발견한 에피소드는 시장과 동네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가 언제 오지?
(빼꼼)
선생님, 말하지 마세요.





유아: 선생님! 우리 숨어 있어요.
교사: ??
유아: □□가 순대를 사서 올 때까지 숨어 있어요. 저기 뒤로 가면 되잖아요.
(시장 안의 작은 골목길을 재미있어함)



(친구가 순대를 사서 나오자)
유아들: (골목에서 다 함께 뛰어나오며 큰소리로)
□□야~~ 우리 여기 있어!! 놀랬지?
□□: (놀라는 표정을 하며) 어딨었어?
유아들: 우리가 너 놀래 줄려고 저기 뒤에 골목에 숨어 있었어. 하하!! 호호!!

유아들은 왜 작은 시장에 관심을 가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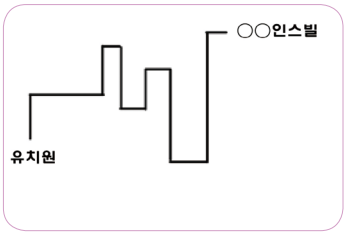
- 유아들은 시장 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맛집 이야기를 함(다양한 개인 경험 이야기)
- 우리반 유아들은 익숙한 경험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음
- 경험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골목길에서의 재밌는 놀이가 시장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계기가 됨

이로 시장 체험학습은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1주)'와 연계하여 '우리 동네 사람들(2주)'로 놀이와 활동을 연계하여 운영하기 좋았다.

• 우리 동네 여러 가지 길

시장을 다녀온 후 유아들은 자유놀이 시간에 골목길을 만들어 놀기 시작했다.
다양한 테이프를 사용해 저마다의 길을 만들고 골목과 골목이 연결되는 복잡한 길이 완성되었다.
자동차, 공공기관 건물(미술활동) 등 여러 가지 소품을 활용한 놀이가 이어졌다.

며칠 후 한 유아가 제안을 했다.
유아: 선생님, 이번엔 ○○인스빌(유치원 인근의 큰 아파트 단지)로 가는 길을 만들어요.



↑유아들과 함께 그린 경로

교사: 어떤 길을 만들고 싶나요?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전자칠판에 ○○인스빌 아파트로 가는 길의 경로를 결정했다. 유아들은 "오른쪽, 왼쪽, 아래로, 위로, 도착!!" 이라고 외치며 아파트로 가는 길을 완성했다.
교사: 길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모아볼까요?

유아들은 책상, 의자, 블록, 줄, 징검다리, 체육놀이 막대, 이동식 칠판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했다.
교사는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종류의 길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함께 참여하며 복도 공간 활용하기, 높낮이가 다른 길을 구성하기 등을 도왔다.
교실과 복도 공간을 활용하여 함께 만든 길은 한참 동안 열매반 유아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인스빌로 가는 산책길 구성하여 놀이하기

교사 이야기

교사가 골목으로 들어간 이유는 보도가 없는 시장길 때문이었다.
오래된 시장으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가게 앞이 바로 도로이다. 좀 더 안전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 보려고 선택한 미로 같은 골목길은 시장 곳곳에 대한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면서 공공기관, 직업, 가게, 사람들로 이어지는 '우리 동네 사람들(2주)' 주제를 운영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가 되어주었다.
작은 에피소드가 교사의 교육적 의도,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 발견한 유아의 흥미를 확장하기 위한 수업 설계로 이어졌을 때 유아들은 더 즐거워하며 새로운 경험에도 두려움 없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주 우리 동네를 알려요 → 아나바다 나눔장터

▶ 계획의 변경

• 아나바다 나눔장터

6월을 계획할 때는 3주째에 우리 동네의 경험을 목포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었다.

목포는 근대역사문화공간, 해상케이블카, 갓바위, 유달산 등 풍부한 자원을 갖춘 지역이므로 우리 동네를 알리고 자긍심을 느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아들은 생각보다 목포의 관광명소나 지역의 특색을 아는 것에 관심이 많지 않았다. 게시한 사진 자료는 바라보는 것에 그쳤다. 교사는 주제를 어떻게 전개하면 좋을지 생각했고 고민 끝에 주제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특색교육(이로운 지구 이야기-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아나바다'에 대해 알아본 경험이 있으며 보호자 참여 행사(6월)로 생태환경교육을 병행하여 운영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함께 놀이한 동생반이 삼둥이(3~5세)가 함께하는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제안했다.





삼둥이(3~5세)와 우리 동네 '줍깅' 실천하기

② 이로 시장에 다녀온 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여전히 유아들은 우리 동네의 이곳저곳을 살피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즐거움이 있다.

③ 다모임 시간에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아들은 나의 예상대로 목포 지역보다 동생들과 함께하는 나눔장터에 관심이 많았다. 교사는 "목포의 자랑거리를 알면 재밌을 것 같아요.", "목포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여행하기 좋은 곳을 알려주면 어떨까요?"라고 발문을 했지만, 공감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았다. 유아들의 관심이 유치원 주변 동네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고 3주째 주제를 '우리 동네를 알려요'에서 '아나바다 나눔장터'로 바꾸었다.

• '아나바다 나눔장터' 놀이의 과정

1. '아나바다 나눔장터' 안내하기

'아나바다'의 뜻을 알아보고 집에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기로 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안내하고 물건 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2. 놀이를 위해 필요한 준비 (유아들과 함께 결정)

- 지갑 만들기
- 쿠폰 디자인하기
- 쿠폰 모으기(삼둥이가 모두 참여하므로 물건의 가치를 돈이 아닌 쿠폰의 개수로 결정하였고 일주일 동안 스스로 쿠폰을 모았다)
- 가게 간판 만들기
- 장터 꾸미기
- 역할 정해 '아나바다 나눔장터' 놀이하기

3. 가게 종류와 이름 정하기





그동안의 우리 동네 놀이 경험을 바탕으로 가게 종류와 이름을 정했다. 교사는 가게 이름이 갖는 중요성을 알려주었고, 유아들은 저마다 재미있는 가게 이름을 선정했다.
가게를 정하는 과정에서 식당이 나왔는데 텃밭 채소를 활용한 요리를 제안했고 '호박'을 활용한 전 가게가 생겼다.(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운영)

[유아들이 결정한 가게 종류와 이름]
또또 옷 가게(옷, 모자, 신발 등)
맛있는 과자 가게(과자)
신기한 장난감 가게(장난감)
이것저것 가져 가게(잡화)
새우랑 호박이랑 전 가게(식당)

4. 전 가게 준비하기





유아: 선생님,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요.
먹어보고 싶어요.
교사: 시식해 볼래요?
유아: (한입 먹고) 새우깡 맛이 나요.
우와! 이로 순대처럼 맛집 될 것 같아요.
교사: '맛집'이라고 가게 앞에 적어놔도 될까요?
유아: (종이를 가지러 가더니) 제가 적을게요.

교사는 조금 힘들었다.
유아들과 요리 준비도 하고 전도 부쳐야 하니 시간이 걸렸고 마음이 바빴다. 시장이 열리는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다음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하도록 시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 같다.

5. 아나바다 나눔장터 놀이하기

주인(3세): 전 사세요! 전 사세요! 돈은 내고 오세요. 돈 줬어요?
손님: 얼마예요?
(손님이 돈을 주자 받아서 옆 친구에게 줌)
주인(3세): (접시에 새우전을 담아주며)
먹으면 또 오세요.

3세도
잘할 수 있어요.^^



5. 아나바다 나눔장터 놀이하기



드디어 시작된 '아나바다 나눔장터'
손님과 주인의 역할을 나누었다. 주인은 형님과 동생을 함께 두어 서로 도우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우리반 유아들은 시장을 돌아보며 스스로 필요한 물건을 잘 골랐다. 신발 크기가 맞는지 신어보고, 교사가 제안한 물건은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하기도 했다.

6. 경험 나누기



유아들은 모든 것이 좋았다고 했다.
"제가 사고 싶은 거 다 샀어요."
"제 신발은 **반 ○○이가 사는 거 봤어요."
"저는 동생 주려고 아기 물건을 샀어요."
"아까 주인 할 때 동생이 돈이 없다고 하길래 돈을 받지 않고 서비스로 줬어요."

필요한 물건을 얻는 것, 나는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지난주에 우리 동네의 다양한 가게와 사람들을 알아보았는데 '아나바다 나눔장터' 놀이를 통해 유아들에게 내면화할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교사 이야기

유아들은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놀이하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하였다. 텃밭 채소 요리를 활용한 식당은 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적은 수의 유아가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함), 여러 날에 걸쳐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가득했다.

사후 협의회와 유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았을 때 이 활동의 교육적 의미는 충분했다.

-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 또래 및 동생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 양보, 배려의 태도를 기름
  -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
  - 가게 역할 분담을 하며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성취감을 경험함
- **민주시민·생태환경교육 측면에서**
  - 공동체 안에서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경험을 통해 민주적 생활 습관 형성
  - 아나바다 정신을 실천하며 환경보호 가치 내면화

하지만, 이런 교육적 의미와는 별개로 지나고 보니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왜?] 유아들은 왜 관심을 지역으로 넓히지 못했을까?

열매반 유아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하거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기보다 익숙하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의미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배움을 키워 나가는 것 같다. 유아들의 성장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반 유아들이 그런 성향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다.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서는 경험하지 않은 목포(지역)의 관광 명소, 알리고 싶은 곳을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특별히 잘 알려졌으며(예: 갓바위) 유아들에게 익숙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차근차근 제안해 보고 싶다.

4주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요(2030교실 수업)

• 주제가 시작된 이야기


학교 앞 횡단보도


보도가 없는 시장길

- 우리 유치원은 학교를 기준으로 네 방향 모두 도로가 바로 인접한 곳임
- 등·하원을 할 때나 산책을 할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 때도 항상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임
- '우리 동네' 생활주제에 더 자주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짐
- 5월에 시작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교 공사는 유아들의 생활에 여러 변화를 불러옴
- 유치원 주변에 대한 유아들의 생각을 물어보며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고자 주제로 정함

• 수업의 시작

이 활동은 유아가 실제로 생활하는 이로동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좁은 보도, 신호등 없는 길, 쓰레기 문제 등 유아의 생활에 기반한다. 동요, 이야기 나누기, 토의 및 실천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유아는 문제 상황을 스스로 발견하고, 놀이를 통해 해결 방법을 탐색하며, 나아가 자신들의 생각을 이웃에게 알리는 경험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유아들은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주체적인 태도와 민주시민의 기초 역량을 기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나'에서 '우리'로, '우리 반'에서 '우리 동네'로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며 일상생활 속 문제해결력과 공동체적 책임감을 함양하길 기대해 본다.

• 수업의 흐름

행복한 이로동 노래 만들기	달라진 우리 동네 이야기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함께 만들어요
• 동요를 부르며 이야기 나누기 • 우리 동네 사진을 보며 이야기 나누기 • 동요 노랫말 바꾸기 • 바꾼 동요 함께 부르기 • 경험 공유하기	• 함께 만든 노랫말을 회상하며 이야기 나누기 • 달라진 우리 동네 이야기 나누기 • 우리 동네의 불편한 점 알아보기 • 불편한 장소 직접 살펴보기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 지난 활동 회상하며 이야기 나누기 • 전자책에 넣을 내용 결정하기 • 역할을 정해 전자책에 넣을 자료 제작하기 • 완성된 전자책 보며 경험 공유하기

- 사전에 우리 동네의 곳곳을 함께 알아보며 유아의 경험에서 확장되도록 지원한다.
-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결과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불편한 점과 해결 방법은 유아 수준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토대로 운영한다.
- 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며 다양한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보는 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활동명	행복한 이로동 노래 만들기
기대되는 배움	• 노래를 부르며 우리 동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 • 친구들과 생각을 모아 우리 동네 장소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노랫말을 바꾼다.
교육과정 내용	•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 예술경험: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노래를 즐겨부른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 인성: 질서 – 기초질서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0분)	☑ **동요를 함께 부르며 이야기 나누기** • '행복한 우리 동네' 동요를 부르며 이야기를 나눈다. – 지난 시간에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표현한 노래를 배우고 함께 불러보았을 때 어땠나요? –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모습이 떠올랐나요? – 노랫말처럼 우리 동네에서 신나고 행복한 적이 있었나요? – 이로동의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가요? • 우리 동네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그동안 친구들과 다녔던 이로동의 사진을 살펴볼까요? – 부채 놀이터에서 놀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웰빙공원의 황토길을 걸을 때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나요? – 산책길에 높은 곳에서 우리 동네를 바라볼 때는 어땠나요? – 행정복지센터에 갈 때는 어떤 소리를 들었나요? –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갈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이로 시장은 어떤 점이 특별했나요? – 우리 동네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소가 또 있나요? – 기억에 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친구들도 이로동을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는군요. ☑ **함께 할 활동 알아보기** • 오늘 함께 할 활동을 알아본다. –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에 우리가 사는 이로동에 맞춰 노랫말을 바꾸어 준다면 특별한 노래가 될 것 같아요. – '행복한 우리 동네' 동요를 이로동에 어울리게 바꾸어 볼까요?	자 가사판, 사진자료 (친구들과 함께 가보았던 우리 동네 사진) 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25분)	☑ **'행복한 우리 동네' 동요 노랫말 바꾸기** • **'행복한 우리 동네' 노랫말을 우리 동네와 어울리게 바꿔본다.** – 이로동을 떠올리며 어떤 노랫말을 넣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 어떤 노랫말을 바꾸고 싶은가요? – '예쁜 새들 노래하는'이라는 말을 우리 동네에 어울리게 바꾼다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 미용실에서는 또 어떤 소리가 날까요? – 북적북적북적 대신 어떤 말이 이로시장에 어울릴까요? – 제목도 함께 지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군요. – 모둠별로 나누어서 '행복한 우리 동네' 동요를 바꿔봐요. • **모둠활동을 할 때 지킬 약속에 대해 알아본다.** – 모두 즐겁게 모둠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모둠 활동을 통해 노랫말을 바꾸어 본다.** – ○○이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부분을 바꾸고 싶군요? – 어떤 말로 바꾸고 싶나요? – 모둠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 어떤 노랫말이 더 어울리는지 번갈아가며 불러볼까요? – 태권도를 나타내는 말은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 ◇◇이가 갔던 미용실에서는 어떤 소리가 났나요? – ☆☆이는 □□가 바꾼 노랫말을 적어주고 있네요. – 더 바꿔보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 친구들과 함께 바꾼 가사로 노래를 불러볼까요?	자 '행복한 우리 동네' 음원, 가사판, 피아노 유 가사를 실제 유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발문한다. 자 가사판, 도화지, 그리기 도구 유 전체 가사를 개사하기보다 유아들이 흥미 있고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을 개사한다.
마무리 (5분)	☑ **경험 공유하기** • **활동 후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눈다.** – 좋아하는 동요를 우리 동네에 어울리게 바꾸어 보았는데 어땠나요? – 다른 모둠 친구들이 바꾼 노래를 들으니 어떤가요? – 어떤 노랫말이 우리 동네를 잘 표현한 것 같나요? – 제목을 바꾼다면 '행복한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 • **유아들이 바꾼 동요를 함께 공유한다.** – 우리가 만든 특별한 노래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을까요? – 가족들도 이 노래를 알 수 있게 녹음을 해볼까요? – '학교종이' 앱에 함께 부른 노래를 올려볼까요?	자 유아들이 바꾼 노랫말 가사판 유 유아들의 생각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 관점	☑ **노래를 부르며 우리 동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가?** ☑ **친구들과 함께 노랫말 바꾸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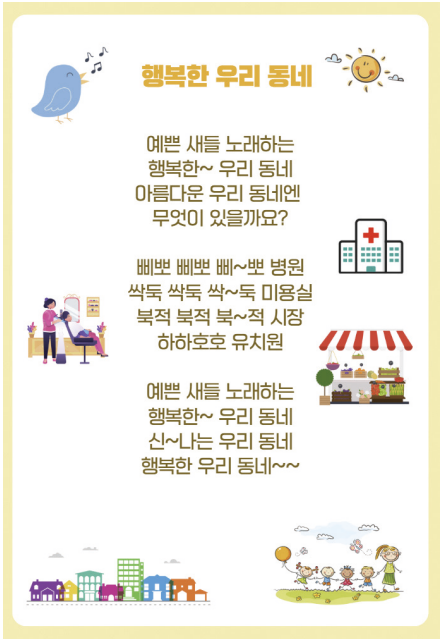
2) 실행 과정

▶ 사전활동) '행복한 우리 동네' 동요 배우기

· 사전활동으로 '행복한 우리 동네' 동요를 함께 배움
· 열매반 유아들은 '행복한 우리 동네' 동요를 무척 좋아함
· 교실에서 배경 음악으로 들려주었을 때 "어?, 이 노래 좋다."며 제목을 궁금해하고, 함께 노래를 배운 이후에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교사는 열매반이 좋아하는 동요를 이로동에 맞춰서 바꿔본다면 자연스럽게 이로동의 좋은 점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활동을 제안하기로 함
·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데 서툰 반 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모둠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함
· 활동 방법은 수업 중에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로 함

1. 대집단으로 교사와 함께 개사하기
2. 모둠별로 개사하기

도입 동요를 함께 부르며 이야기 나누기



교사: 행복한 우리 동네라는 말을 들으면 이로동의 어떤 곳이 생각나나요?
유아: 부채 놀이터요.
유아: 이로 시장 갔을 때 ◇◇기다리면서 골목길에 숨어 있었던 거 재밌었어요.
유아: 그때 산 떡과 순대로 동생들 결혼식 하는데 음식도 줬잖아요.
유아: ○○인스빌로 우리 동네 소리 찾으러 갈 때 강아지 짖는 소리에 모두 놀란 적 있었잖아요.

교사는 노랫말과 관련하여 이로동을 떠올리는 발문을 했고, 유아들이 이로동에 대해 충분히 회상하며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전개 '행복한 우리 동네' 동요 바꿔보기

교사는 '어떤 발문으로 유아들에게 노래 바꾸기를 안내할까?' 고민했다.

'이로동'만의 특별한 노래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하였고, 유아들은 모두 좋다고 했다.

어렵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 기분은 좋았다. 유아들은 왜 이 활동이 좋았을까?

아직 모둠별 활동이 서툰 유아들이 많아 먼저 교사와 함께 몇몇 노랫말을 바꾸었다.

교사와 함께 노래를 개사하자 알쏭달쏭하던 유아들도 모두 활동 방법을 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유아들의 의견에 따라 두 모둠으로 나누어서 노랫말을 바꿔보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교사의 중재나 지원이 필요했지만, 자기주장만 할 것을 염려했던 우려와는 달리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조금씩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유아들의 성장을 느꼈다.





유아들: 다음은 ◇◇이가 적을 차례야.
친구들아 너희들 생각은 어때?
내가 적어줄까?
내 차례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한다고 주장)
가위, 바위, 보 하자.
돌아가면서 쓰자.

개사한 동요

예쁜 나비 날아오는 행복한 이로동
아름다운 우리 동네엔 무엇이 있을까요?
삐뽀삐뽀삐뽀 소방서
태권태권태권 멋진 태권도
북적북적북적 놀이터
하하호호 이로동
예쁜 나비 날아오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신나는 우리 동네
행복한 우리 동네

예쁜 새들 노래하는 행복한 이로동
아름다운 우리 동네엔 무엇이 많을까요?
삐뽀삐뽀삐뽀 소방서
위용위용위용 미용실
북적북적북적 멋진 태권도
이로초유치원
예쁜 새들 노래하는 행복한 귀염둥이 우리 동네
신나는 유치원
행복한 이로동

마무리 모둠별로 함께 부르기

교사: 친구들이 바꾼 노래를 함께 들어봐요.
유아: 태권태권태권 재밌어요.
교사: 행복한 우리 동네 제목을 이로동에 맞게 바꾼다면 어떤 제목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유아: 행복한 이로동~이요.
교사: **는 행복한 이로동을 생각했군요. 다른 친구들은 어떤가요?
유아: 행복한 이로동 좋아요.



교사 이야기

유아들이 자신이 경험한 장소와 느꼈던 감정을 바탕으로 가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며,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음악을 좋아하는 특수 유아가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몸을 움직이며 다양하게 노래를 바꿔서 부르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이로동 노래' 만들기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움이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사를 바꾸면서 우리 동네의 모습이나 경험, 감정 등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동네를 아끼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발문을 고민했던 이유는 유아들이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활동에 크게 흥미를 갖지 않으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아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왜?] 유아들은 왜 노랫말 바꿔 부르기 활동을 좋아했을까?

활동을 하던 중에 의문이 조금 풀렸다. 생각해 보면 유아들은 이 노래를 처음부터 좋아했다. 좋아하는 노래를 우리 동네에 맞게 특별하게 바꾸자고 하니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교사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글자를 쓰고 생각을 모으는 과정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는데 완전히 빗나갔다. 유아들의 흥미가 교사가 활동을 계획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한 계기가 되었다.

다만, 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과 관련된 말이 많고 옆 모둠 친구들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있었다.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이 나오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3) 수업 이후

유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행복한 이로동' 노래

유아1: 우리가 만든 노래 같이 부르자.
유아2: 그래! 노래가 비슷하지?
유아3: 내가 악기 가져올게.
교사: (그 모습을 보던 교사) 악기를 연주하려고 하나요? 같이 연주해도 될까요?
(악기 연주에 함께 참여하며 다양한 악기 연주를 지원했다)
유아: 선생님은 마라카스 연주해 주세요.(노래에 맞춰 악기를 연주한다)
교사: 친구들은 이 노래를 왜 그렇게 좋아하나요?
유아: 이로동을 말하는 노래잖아요.
유아: 노랫말 바꾸는거 재밌었어요.

유아들은 수업 이후 한 동안 흥얼거리며 노래를 불렀고 즉흥적으로 말을 바꾸어 부르기도 하였다.

• (3-2)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활동명	달라진 우리 동네 이야기
기대되는 배움	• 우리 동네의 여러 모습(변화, 불편한 점 등)에 관심을 가진다. •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경험을 한다.
교육과정 내용	•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인지적 요소 – 문제해결력 • 인성: 존중 –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 **함께 만든 노랫말을 회상하며 이야기 나누기** • 사전활동을 회상하며, 친구들이 함께 만든 노래를 불러본다. –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는 이로동을 생각하며 노랫말을 만들어 보았었지요? – 우리가 노래를 바꿔서 새롭게 부르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니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즐거운 생각이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네요. –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동네가 더 좋아진 친구도 있었군요? ☑ **함께 할 활동 알아보기** • 오늘 활동을 알아본다. – 예전의 우리 동네 모습과 지금 동네 모습이 어떤가요? – 무엇이 달라졌나요? –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자 가사판, 공사로 인해 변한 학교 사진 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전개 (60분)	☑ **달라진 우리 동네 이야기 나누기** • 달라진 우리 동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최근에 우리 유치원과 학교 주변에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나요? – 공사로 인해 어떤 점이 변했나요? –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요? – 어떤 점이 불편했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 공사하는 곳을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우리 동네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 나눈다. – 우리 동네를 떠올려 볼까요? – 공사 중인 학교 말고 우리 동네를 다니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요? – 좁은 골목길을 다닐 때 불편한 적이 있었군요. – 자동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놀란 적이 있었군요? – 그럴 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나요?	자 공사 현장을 찍은 사진 유 유아의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을 충분히 이야기 나눈다.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60분)	– 산책 중에 신호가 짧은 신호등을 건너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횡단보도도 없는 곳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 친구들과 함께 불편함을 겪었던 장소를 살펴보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 학교 앞 신호등의 초록불 시간이 어느 정도 인지 시간을 측정해 볼까요? – □□이가 보았던 차가 많은 곳을 가고 싶군요. – 친구들과 함께 나가 어떤 점이 불편한지 살펴보기로 해요. •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을 알아본다.** – 안전하게 다녀오려면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 앞 친구와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 안전 약속을 잘 지키면서 다녀오도록 해요. • **불편했던 장소를 친구들과 함께 살펴본다.** – 평소 다녔던 횡단보도에 도착을 했네요.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면 좋을까요? – 한 친구가 건너면 다른 친구들은 시간을 재 볼까요? – 모두 함께 건너면서 시간을 재 볼게요. – □□이가 이야기했던 차가 많이 주차된 곳으로 왔는데 어때 보이나요? – 차가 많아 도로가 보이지 않아 불편한 생각이 들었군요.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넌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유 유아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나눈다. 유 밖으로 나가기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자 타이머, 카메라
마무리 (10분)	☑ **경험 공유하기** • **활동 후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눈다.** –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친구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어땠나요? – 우리가 사는 동네에는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 오늘 알게 된 불편한 점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친구들과 생각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볼까요? – 우리가 힘을 모아 우리 동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 **다음 활동을 이야기 나눈다.** – 함께 우리 동네의 불편한 점을 알아낸 건 뜻깊은 일이에요. – 우리가 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 보기로 해요.	자 장소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 유 유아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 관점	☑ 우리 동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달라진 점과 불편한 점을 찾는 경험을 하는가? ☑ 우리 동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가?	

2) 실행 과정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의도(불편한 점을 유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한 이유)

- 유치원 인근을 다닐 때 주변 환경으로 인해 불편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음
- 수용적인 기질을 가진 열매반 유아들은 불편한 점에 적응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임
- 교사는 유아들이 속한 주변 환경을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경험하기를 바람
- 최근 학교(공사)의 변화를 계기로 유아들 수준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 적절하다고 생각함

도입 함께 만든 노랫말을 회상하며 이야기 나누기

개사한 노래를 회상하며 이로동 주변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전개 달라진 우리 동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최근에 우리 유치원과 학교 주변에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나요?





공사 중인 모습



친구들과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유아들이 생활 속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최근의 우리 유치원 주변의 변화를 물어보았다. 유치원 및 동네에서 달라진 점을 이야기 나눌 때 학교 공사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왔으며 공사로 인해 변화된 상황에 관해 물어보자, 유아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교사: 최근에 우리 유치원과 학교 주변에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나요?
유아: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유아: 막았어요, 운동장을 못 쓰게 되었어요.
유아: 공사를 안하면 학교가 무너질 수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유아: 운동장을 못쓰니까 아쉬워요.
유아: 개미집도 없어졌어요.
유아: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면 완성이 됩니다.
교사: 공사 하는 곳을 지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유아: 무서워요, 시끄러워요,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 우리 동네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 나누기

*공사 중인 학교 말고 우리 동네를 다니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요?

공사 중인 학교 상황에 대한 변화를 인식한 후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점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발문을 하였다. 교사는 공사로 인한 변화가 대부분 불편한 점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 불편한 점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간다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유아들의 수준에 맞고 이해를 돕는 발문을 생각하는 일이 무척 어렵게 느껴졌으며 여러 번의 수정을 반복했다.

교사: 공사 중인 학교 말고 우리 동네를 다니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요?
유아: 공사차가 다닐 때 시끄러워요.
유아: 좁은 골목길이 불편해요.
유아: 자동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유아: 사람이 다니는 초록불이 되었을 때 가는 차도 봤어요.
유아: 빨간불인데 사람이 건너 가는 것을 봤어요.
유아: 우리가 산책할 때 초록불 신호가 짧았어요.
교사: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유아: 막 뛰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유아: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지나가요.

학교의 주변 상황 때문인지 생활 속 불편한 점 이야기를 할 때 자동차와 교통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 불편했던 장소를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기

*친구들과 함께 불편함을 겪었던 장소로 직접 가서 살펴볼까요?

이 발문을 하니 유아들이 "좋아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다. 불편함을 겪는 장소로 직접 가서 살피자는 교사의 제안에 유아들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갑자기 높아졌다.

이야기 나누기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활동이 유아들의 직접경험으로 전환되며 흥미를 높였다.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횡단보도의 시간이었고 유치원 주변을 돌며 친구들이 말한 불편한 상황이 보이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지켜야 하는 안전 약속을 알아보고 길을 나섰다.



친구들의 건너는 시간을 재는 모습



횡단보도의 초록불을 건너는 시간

유아들과 횡단보도에서 불편한 점을 확인한 방법	유아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알게 된 내용
① 초록불에 반복적으로 건너며 시간 재기 ② 빨리 걷기도 하고 천천히 걷기도 하며 초록불 신호 확인하기 ③ 혼자 걷거나 친구들 모두 함께 걷기	• 혼자 건널 때는 괜찮기도 했지만 천천히 걸으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친구들과 함께 걸을 때 줄을 서서 걸으면 시간이 한참 부족하고 모두 함께 자유롭게 걸으면서 건널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됨 • 유아들과 함께 조금만 시간을 늘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함

직접 보고 경험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교실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유치원으로 돌아왔다.

마무리 경험 공유하기

*오늘 알게 된 불편한 점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공사 중인 곳의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며 열매반 친구들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불편한 점은 신호등 초록불 시간이 짧은 점과 횡단보도가 없는 건널목이었다.
(공사의 진행은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 이야기

이 수업은 교사에게 도전이었다.

평소에 유아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교사는 이 주제가 유아 주도성을 보여주는 참 좋은 내용의 수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유아들의 수준에서 수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교사의 발문에 따라 의미 있는 활동이 되느냐 지루한 활동이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아들 스스로 불편한 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발문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

수업의 과정에서 유아들이 직접 나가서 살펴본 경험이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이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장소를 변경하여 이루어졌기에 지루하기보다 그 시간을 호기심으로 채울 수 있었다.

유아들이 생활 속 불편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찾아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유아들이 경험한 불편함이 예상보다 현실적이어서 놀라웠고, 교사로서 이와 같은 경험을 단순한 불평으로 넘기지 않고 교육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 고민했던 발문에 대한 보람도 느꼈다.

이번 주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을 잘 넘긴 것 같다.

새삼 유아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늘 고민은 있다. 유아마다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일부 유아는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차이를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을지가 고민이었다. 다음 수업을 이어갈 때 발문을 최대한 쉽고 구체적으로 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생각했다.

3) 수업 이후

'달라진 우리 동네 이야기'와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함께 만들어요' 활동 사이에 전자책으로 결정하는 과정의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운영함

• 전자책으로 결정하기

유아들이 이전 활동에서 의견을 나눈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방법 이야기 나누기

교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바꾸고 싶었던 불편한 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호등 시간이 짧은 점, 횡단보도가 없는 건널목)
유아: 아침에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공사 관계자가 학교 입구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유아: 계속 있을 수 없잖아.
유아: 찾아가요.
유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교사: 직접 찾아가서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유아: 컴퓨터에 올리는 방법이 있대요.
(시청 홈페이지를 띄운 후 시민이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교사: 컴퓨터에 어떤 내용을 올리면 좋을까요?
유아: 그림을 그려요, 편지 써요.
교사: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전자책이 있는데 함께 알아볼까요?
(교사가 전자책에 대해 제안한 후 예시를 보여주자 관심을 보임)

예상대로 일부 유아들은 자신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낸다는 것의 의미를 어려워했다.

어떻게 발문해야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상호작용을 이어갔다.

한 친구가 교사의 발문에 "컴퓨터에 올리는 방법이 있대요."라고 말을 하자 그 이후로 유아들은 전자책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졌다.



• (3-3)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활동명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함께 만들어요
기대되는 배움	• 자신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해 보는 경험을 한다. •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진다.
교육과정 내용	•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더불어 생활하기 –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사회에 관심 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성향적 요소 – 사고의 확장 • 인성: 배려 – 친구에 대한 배려, 협력 – 긍정적 상호의존성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이야기 나누기 • 지난 활동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우리 동네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기로 했나요? – 전자책을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기로 했나요? – 친구들과 생각을 모아 책을 만들어 전자책을 만들어 보낸다면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 함께 할 활동 알아보기 • 오늘 함께 할 활동을 알아본다. – 친구들의 생각을 모아 함께 전자책을 완성해 우리 스스로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기로 해요.	자 지난 활동 사진, 시청 홈페이지 유 유아가 경험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개 (50분)	☑ 전자책 함께 제작하기 • 전자책에 담을 내용을 이야기 나눈다. – 책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보는 사람들이 친구들의 불편한 점을 알 수 있을까요? – 신호등의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말해주고 싶군요. – 유치원 친구들의 걸음걸이가 초등학생 언니, 오빠들보다 느리다는 것도 알리고 싶군요? –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넣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는 사람의 모습을 넣어서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네요. – 우리가 만들 전자책의 제목을 정해볼까요?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50분)	• 역할을 나누어 전자책에 담을 내용을 정한다. – 친구들과 모은 생각을 각각 나누어 책을 만들어볼까요? – 그림을 그릴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 동생반의 생각을 물어보고 올 친구가 있나요? – ○○이는 어떤 내용을 그리고 싶나요? – 친구와 함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 약속을 이야기 나눈다. – 친구와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또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 친구들과 함께 자료를 제작한다. – **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마음이 두근거렸네요. 선생님도 항상 걱정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이야기해 주세요. – 우리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이네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강조할 수 있을까요?. – 책의 표지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 친구들이 만든 내용을 모두 모아 '북 크리에이터'에서 전자책을 만들어볼까요? – 전자칠판을 보며 함께 책의 페이지를 구성해 봐요. – 첫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까요? – 친구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볼게요. – 더 넣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자 북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그리기 도구 유 유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유아들이 정한 내용으로 책을 구성한다. 유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유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 노트북, 전자칠판, 북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및 캔바 활용 유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일부는 교사가 마무리 할 수 있다.
마무리 (5분)	☑ 경험 공유하기 • 활동 후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눈다. – 친구들의 생각을 모아 만든 전자책을 함께 볼까요? – 우리의 노력으로 횡단보도 건너는 신호가 길어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다음 활동을 이야기 나눈다. – 시청 홈페이지에 알린 후 소식을 기다려 보기로 해요. – 앞으로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 실천해 봐요.	자 친구들과 함께 만든 전자책 유 유아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 관점	☑ 자신이 생각한 해결 방법을 친구들과 함께 실천하는 경험하는가? ☑ 우리 동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가?	

2) 실행 과정

도입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이야기 나누기

우리 동네의 불편한 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전자책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하였다.

전개 전자책 함께 제작하기

우리가 겪었던 불편한 점을 회상하고 지난 수업의 과정을 공유(사진 및 동영상 활용)하며 전자책에 넣고 싶은 말을 이야기 나누었다.

*책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보는 사람들이 친구들의 불편한 점을 알 수 있을까요?

유아들이 전자책에 넣기로 한 내용

- 신호등이 짧으니까 건너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 친구들이 많이 갈 때는 너무 위험해요.
- 사고가 날까 불안해요.
- 차에 부딪힐까 봐 걱정돼요.
- 신호등 없는 곳에 신호등을 만들어 주세요.
- 횡단보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 보도가 없는 길은 걸어가기 무서워요.
- 우리가 찍은 사진도 넣어요.

유아들이 그리고 싶은 장면을 결정해 자유롭게 표현한 후 함께 모여 전자책의 각 페이지에 넣을 내용을 결정했다.(교사는 전자칠판의 큰 화면으로 공유하여 전체 유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전자책으로 완성되는 과정

- 책 속의 시작하는 이야기 함께 짓기
- 그림으로 그린 내용 유아들 음성으로 녹음하기
- 전자책 속 페이지를 꾸미는 그림 그리기
- 전자책 내용 순서 배치하여 구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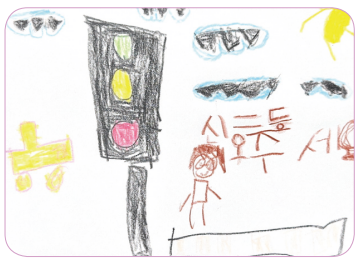
책 속 내용의 대부분을 유아들이 주도해서 구성하였고 교사는 이야기가 좀 더 매끄럽게 이어지는 과정이나 화면의 배치 등을 지원하였다. 조금씩 완성 되어가는 전자책을 보며 그동안 기다려주고 지원한 보람을 느꼈다.



전자책 내용 그림 그리기



함께 만든 전자책



유아 그림

유아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능동적으로 참여했지만 스스로 그린 그림이 전자칠판에 나타날 때, 녹음한 목소리를 들려줄 때, 전자책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쓸 때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완성된 전자책

마무리 경험 공유하기

우리는 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기다려 보기로 했다.

유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건널 때 바쁘지 않게 된다는 점을 기대했다. 전자책을 완성한 것에 대한 뿌듯한 마음도 들려주었다.

교사는 우리가 스스로 불편한 점을 발견하고, 발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의 의미를 알려주며 활동을 마쳤다.

교사 이야기

유아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전자책 제작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높은 몰입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는 교사의 발문에 의미 이해가 어려운 유아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재발문을 하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직접 그린 그림 자료를 이용해 전자책을 만들 때는 거의 모든 유아가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자책 제작 과정에서 녹음하기, 유아들이 말하는 말 적기, 그림 삽입하기 등 전자칠판을 활용하여 의견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걸렸으나 유아들의 집중력은 유지되었다. 유아들은 발달 수준에 적합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적용한 활동을 운영했을 때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더 많은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자책 제작이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겪었고 열매반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서 어려운 수업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유아들은 스스로 방법을 생각했고 힘을 모아 전자책을 완성했다.

유아들은 자신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작지만 소중한 한 걸음을 나섰다고 생각한다.

교사로서 나는 유아들이 결과보다는 과정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던, 그렇지 않던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시도했다는 점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대답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와 같은 결과를 예상하는 상호작용보다 "우리가 함께 전자책을 완성했네요.", "불편한 점을 스스로 발견했군요."와 같은 과정에 의미를 두는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했다. 과정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수업 이후

유아: 답이 올까요?
유아: 우리의 말을 들어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다렸다. 아쉽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아들은 아쉽지만 괜찮다고 했고 그래도 재미있었다고 했다. 교사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 하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고 해서 유아들의 여정이 의미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유아들에게 우리들 과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리고 이 수업을 마쳤다.



‘우리 동네’에서 시작해서 ‘이야기가 흐르는 영산강’으로 가기까지의 여정

• ‘우리 동네’에서 ‘이야기가 흐르는 영산강’으로 변화된 이유

유아들과 ‘우리 동네’를 주제로 함께 내가 사는 우리 동네를 탐색하며 점차 나주라는 공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동네 주제를 계획 할 때 ‘우리반 유아가 생각하는 우리 동네’에 대해 의견을 묻거나 좀 더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우리반 유아들은 원도심에 사는 유아들과 신규 아파트 입주로 새로 생긴 동네에 사는 유아로 나누어져 있어 우리 동네에 대한 경험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교사의 고민과 발견 속에서 우리 동네 동시 짓기를 한 후 유아들이 “영산강 동시도 만들어보면 안돼요?”라고 제안하였고, 자연스럽게 공통된 우리 동네의 경험인 영산강에 대한 이야기와 기억을 공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유아의 이러한 관심을 ‘이야기가 흐르는 영산강’이라는 주제로 선정하여 실행하였다.

실태

유치원 특성

- ☑ 나주혁신도시 조성 이후 혁신도시 쏠림 현상에 따라 원도심이 다소 침체되어 있음
- ☑ 나주 영산강 일대를 정원화하고 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 ☑ 전라남도 나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총 7학급(특수학급 포함) 100명 유아 재원
- ☑ 2025학년도 나주를 기반으로 유아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수업중심 2030미래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중

우리반 특성

- ☑ 5세, 총 19명(남아 10명, 여아 9명)으로 구성, 통합학급(특수교육대상유아 2명)
- ☑ 언어치료 및 지원을 받거나 받은 유아가 30%가 넘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음
- ☑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그림으로 잘 표현하며 그림을 통해 언어표현으로 확장해나가기 위한 지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
- ☑ 영산강 주변 공원에 주말을 이용해 가족과 자주 방문함
  (자전거나 킥보드 타기, 축구하기, 연날리기, 소풍가기, 황포돛배 타기, 축제 방문 등)

생활주제의 흐름

1주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 — 2030교실 수업

- 동시 | 우리 동네가 좋아요 동시 짓기
- 바깥 | 우리 동네 돌아보기
- 동시 | 영산강이 좋아요 동시 짓기
- 음악 | 영산강이 좋아요 동시 노래 부르기
- 미술 | 영산강이 좋아요 그림 그리기
- 쌓기·역할 | 영산강 물길 만들기
- 환경 | 유아들이 지은 우리 동네가 좋아요 동시판 게시(이젤패드), 영산강이 좋아요 동시 그림 파일 책꽂이 제공
- 일상생활 | 유아들이 지은 동시 읽기, 동시 노래 부르기 (우리 동네가 좋아요, 영산강이 좋아요)

2주 옛날이야기 속 나주의 영산강 — 2030교실 수업

- 이야기 | 영산강 이름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구전설화 들려주기
- 미술 | 영산강 이름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구전설화 그림 그리기
- 이야기짓기 |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영산강 구전설화 속 주인공 되어보기)
- 쌓기·역할 | 영산강에서 무엇을 하고 놀았나요? 공간구성하기
- 환경 | 영산강 이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이야기를 환경판으로 구성
- 일상생활 | 유아들이 지은 동시 책 보며 읽고, 노래 부르기

3주 '영산강 이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동극 하기

- 동극 | '영산강 이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동극 공연하기
- 미술 | 동극 소품 만들기(방과후협력)
- 언어 | 동극 초대장 만들기(방과후협력)
- 체험학습 | 영산강 일대 (등대, 황포돛배, 영산강 역사갤러리)
- 환경 | 교실 바닥에 영산강 물길 구성, 동극을 위한 공간 구성 (정 노인집, 사또집, 생선가게)
- 일상생활 | 유아들이 지은 동시 책 보며 읽고, 노래 부르기

4주 내가 좋아하는 영산강 — 2030교실 수업

- 말놀이 | 영산강이 좋아요
- 미술 | 아이패드로 그림 그려 말놀이 책 만들기
- 언어 | '영산강이 좋아요' 동시노래 추가
- 이야기 | 비가 많이 온 영산강의 모습
- 일상생활 | 유아들이 지은 동시 책 보며 읽고, 노래 부르기, 영산강 말놀이 책보기

1주 우리 동네가 궁금해요(2030교실 수업)

• 수업의 시작

유아들은 매년 '우리 동네' 주제를 운영하며 우리 동네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번 수업에서는 유아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꺼내어 주도적으로 우리 동네 건물(가게)과 관련된 동시를 지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우리 동네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우리 동네 가게가 하는 일을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4글자 동시 운율에 맞춰 동시를 지으며 말의 재미를 느끼게 하고자 한다. 또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경험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보다 우리 동네를 좋아하고, 깊이 있는 배움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 유아·놀이 중심 활동 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 계획안

활동명	우리 동네가 나는 좋아요
기대되는 배움	• 운율에 맞추어 생각을 표현하며 반복되는 말의 재미를 느낀다. • 동시를 통해 우리 동네를 더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다.
교육과정 내용	•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존중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 **이전 경험 회상하기** • 활동 내용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 지난주 우리 동네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보았나요? – 어떤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가요? – 어떻게 말하면 더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 **활동 알아보기** • 함께 할 활동을 알아본다. – 우리 동네에서 본 것을 재미있는 말로 표현해 볼까요?	자 우리 동네를 돌아보며 찍은 사진(빵집, 공원, 버스 정류소, 은행, 마트 등)
전개 (30분)	☑ **우리 동네 장소를 재미있는 말로 표현하기** • 우리 동네 장소를 재미있는 말로 교사와 함께 표현해 본다.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30분)	–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장소를 ○○○○ ○○○○ 동그라미에 맞춰서 재미있는 말로 말해볼까요? – 자동차 정비소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 자동차를 수리해요. 잘 다니게 수리해요. – 자동차를 고칠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 '퉁탕퉁탕, 부웅부웅'을 넣어서 다시 말해볼까요? – 이번에는 뒤에 '좋아요'를 넣어서 말해볼까요? – 자동차 정비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봤는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재미있나요? • 원하는 사진을 골라 재미있는 말로 표현한다. – 짝꿍과 함께 사진 1장을 선택해볼까요? – '○○은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에' 어떤 말을 넣으면 좋을까요? – '꽃가게는 좋아요' 뒤에 어떤 점이 좋다고 말하면 좋을까요? – 꽃가게 갔을 때 어떤 점이 좋았나요? • 짝꿍과 함께 생각한 재미있는 말을 발표해본다. – '나주초등학교'를 어떤 재미있는 말로 만들었나요? – "나주초등학교는 좋아요. 운동장이 있어 좋아요." 라고 친구가 이야기 했는데 운동장이 있어서 어떤 점이 좋나요? – 영산강을 어떤 재미있는 말로 만들었나요? – "영산강이 좋아요. 유채꽃이 있어 좋아요." 라고 했는데 ○○이가 지금은 유채꽃 말로 빨간 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이의 생각까지 넣어 조금 바꿔볼까요? –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빨간 꽃, 가을에는 또 다른 꽃이 피는 것을 재미있는 말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자 우리 동네를 돌아보며 찍은 사진(빵집, 공원, 버스 정류소, 은행, 마트 등), 보드마카, 칠판 유 유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자 동시판, 보드마카, 나주 관련 사진
마무리 (5분)	☑ 경험 공유하기 • 오늘 활동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 오늘 무엇을 했나요? – 오늘 함께 만든 재미있는 표현 중 가장 기억이 나는 말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친구들이 말한 우리 동네 장소 중 궁금하거나 더 만들어보고 싶은 장소가 있나요? • 다음 시간 활동 안내하기 – 다음 시간에는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영산강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평가 관점	☑ 운율에 맞추어 생각을 표현하며 반복되는 말의 재미를 느끼는가? ☑ 동시를 통해 우리 동네를 더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는가?	

2) 실행 과정

전개 교사와 함께 운율에 맞춰서 동시 짓기

유아: 차를 고쳐야 해, 정비소로 가면 돼.
유아: ...
교사: 자동차를 고칠 때 나는 소리를 생각해볼까요?
유아: 뚝딱뚝딱.
유아: 땅땅땅땅.

동시를 처음으로 지어보는 유아에게 4음절에 맞춰 동시를 짓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교사가 "자동차를 고칠 때 나는 소리를 생각해볼까요?"라는 발문에는 유아가 뚝딱뚝딱, 땅땅땅땅하며 조금 더 쉽게 4음절로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의 발문 하나로 유아가 훨씬 더 쉽게 생각해내는 모습을 보며 교사 발문의 중요성을 느꼈다.



<우리반이 지은 동시 '정비소'>
자동차를 고쳐야해 정비소로 가면되지
뚝딱뚝딱 땅땅땅땅 집에가요 쿵쾅쿵쾅

특히 '집에가요 쿵쾅쿵쾅'에서 모두 일어서서 표현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음절 동시에 이어 '~가 좋아요'로 동시를 지어보았는데 '4음절'로 표현하는 과정을 경험해 본 유아들은 보다 쉽게 동시를 짓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 자동차 정비소가 좋아요. 자동차 정비소는 차를 고쳐주니깐 좋아요.
- 자동차 정비소는 차를 고쳐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 차를 고쳐주면 깨끗해서 좋아요.
- 부릉부릉 달리니 좋아요.

전개 짝꿍과 함께 동시 짓기





교사: 카페에서 사르르 입에 녹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아: 케이크요. 엄마랑 케이크 먹었는데 입에서 사르르 녹았어요.
유아: 뽀로로 음료수도 그랬어요.
교사: 그럼 어떻게 말해볼까요?
유아: (손가락을 접어가며) 사르르르 입에녹아 케이크랑 뽀로로음료수
유아: 그냥 '음료수가'로 해요.
유아: 사르르르 입에 녹아 케이크랑 음료수가.

유아들이 짝꿍과 함께 만든 동시

하나로마트	나주도서관	나주초등학교
하나로마트가 좋아요 물건과 야채 살수 있어 좋아요	나주도서관이 좋아요 책을 볼 수 있어 좋아요 나주도서관이 좋아요 한글을 읽을 수 있어 좋아요	초등학교 공부를해 초등학교 숫골인해

▶ 동시 활동에 대해 개별적 지원을 하다

동시 짓기를 처음해 본 유아들은 짝꿍과 동시 짓기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교사는 상호작용 해주는 과정에서 유아의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웃기도 했고, 아이디어를 유아에게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아마다 가진 언어 능력에 따라 동시짓기 수업 자체를 어려워하는 유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고민을 가지고 개별적 지원을 하였다.

- 유아1: 놀이시간 1:1로 질문하며 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에서 무엇을 해보았는지 이야기를 한 후 아이의 대답(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을 동시에 맞게 바꾸어 추가해주고 교사를 따라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아2: 수업 후 교사를 따라 동시를 읽어보도록 하였다. 이렇게 친구들의 생각을 모아서 만든 것이 동시라고도 알려주었다.
- 유아3(무발화): 교사가 동시를 읽어주고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가 읽어주는 동시를 들으며 웃어주고, 눈을 맞춰주었다.

마무리 유아들과 재미있는 표현과 더 해보고 싶은 것 이야기나누기

동시를 짓는 과정에서 유아는 흉내내는 말로 표현한 부분을 재미있어 하였다. 또 더 지어보고 싶은 동시로는 태권도 학원과 영산강에 대해 해보고 싶어하였다. 유아의 경험을 반영하여 영산강 동시 짓기를 해보기로 했다.

교사 이야기

교사인 나는 동시 수업 경험이 없어 계획 단계부터 막막했고, '지루하고 어렵다'는 선입견도 있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우리 동네' 주제를 유아가 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었다. 도입 단계에서 유아의 반응이 없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준비한 활동인 만큼 이끌고 가며 교사도 유아도 동시수업을 경험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했다. 그러던 중 한 유아가 랩처럼 동시를 발표하자 친구들이 함께 춤추고 따라 말하며 즐기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는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교사 역시 용기와 재미를 얻어 수업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다.

▶ 유아 제안) 영산강 동시를 지어봐요



영산강에 홍어축제 한우축제 재밌었어.

1명의 친구가 시작으로 유아들은 순식간에 동시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유아가 지은 동시 내용을 보니 유아의 경험과 모두 관련이 있었다. 유아에게 직접 경험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 "영산강 동시 짓기를 왜 이렇게 잘했을까?"

지난번보다 유아가 훨씬 빠르게 동시의 내용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문장을 덧붙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

첫째, 4월에 했던 '봄꽃' 작은별 노래 개사 활동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익숙한 멜로디에 맞춰 말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리듬을 따라 쉽게 표현할 수 있었다.

둘째, 영산강은 유아의 삶과 가까운 공간이다. 산책이나 축제, 창밖 풍경 등 이미 생활 속에서 체험한 경험이 풍부했기에 표현도 풍성했다.

셋째, 유아가 스스로 주제를 제안하고 참여한 활동이었다. 이전 경험이 쌓이며 형식에 익숙해졌고, 자신의 이야기가 동시가 되는 것을 보며 더욱 주도적으로 몰입할 수 있었다.

2주 옛날이야기 속 나주 영산강(2030 교실 수업)

•수업의 시작

지난주 유아는 영산강을 주제로 한 동시 짓기 활동을 통해 영산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스스로 표현하며 높은 몰입을 보였다.

영산강은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오랫동안 품어온 소중한 자연 자원이며, 유아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하는 익숙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다. 유아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영산강을 산책하거나 자전거, 킥보드를 타며 놀고, 축제 때는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등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영산강을 경험해 왔음을 이전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에 영산강 이름에 담긴 옛 이야기를 그림 동화를 통해 함께 듣고, 영산강의 옛 모습에 관심을 가지며 현재의 경험과 과거의 이야기를 연결 지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주 영산강의 이름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줄거리 요약

옛날 옛적 나주에 정 노인이 살았어. 정 노인은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지. 이를 전해들은 원님이 생각하길 '나는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는데 감히 근심 걱정이 없다니 말이 안 되지'하고 하루는 정 노인을 불렀어. 원님은 정 노인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의주를 내주며 "걱정없이 기쁘게 사는 그대가 기특하여 주는 것이니 잘 보관했다가 내가 보고 싶다고 할 때 가지고 오라"고 했어. 배를 타고 집으로 가려는데 뱃사공이 "그게 뭐예요?"라고 물었어. 원님께 받은 여의주라고 하자 한번 보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뱃사공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배가 흔들려서 그만 여의주를 강에 빠뜨리고 말았어.

정 노인은 집에 돌아왔지만 여의주를 잃어버려서 근심 걱정에 그 날로 아프기 시작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님이 정 노인에게 "여의주가 보고 싶으니 가져오게나"라고 말했어. 이 말을 전해들은 정 노인은 이젠 아예 밥도, 맛있는 반찬도 드시지 못하고 걱정에 점점 몸이 더 아파서 일어나질 못했어. 이것을 본 며느리는 너무 안타까워서 강 가에서 파는 가장 크고 맛있어 보이는 잉어를 사서 정 노인의 밥상에 올렸어.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보고 정 노인은 힘을 내서 밥을 먹으려고 잉어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잉어의 배에서 정 노인이 물 속에 빠뜨렸던 여의주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 정 노인은 너무 기뻐서 원님을 찾아가 여의주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여의주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했어. 원님은 여의주를 찾은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어. "과연 당신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오"하며 정 노인에게 엄청나게 큰 상을 내렸지. 집에 돌아온 정 노인은 잉어를 잡았다는 강에 학교를 세우고 그 이름을 자신을 걱정하며 잉어 밥상을 차려준 며느리의 이름을 따서 '영산서원'이라 했어. 이때부터 이 강의 이름도 며느리의 이름을 따서 '영산강'이라 부르게 되었어.

•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활동명	영산강의 이름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기대되는 배움	• 영산강의 이름이 생기게 된 이유에 관심을 가진다. • 영산강 이름의 유래를 들으며 효의 의미를 경험한다.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는 태도를 가진다.
교육과정 내용	•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더불어 생활하기 –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 인성: 효 – 부모에 대한 효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 **사전경험 회상하기** • 지난 시간의 활동 내용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 영산강에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해보았나요? – 우리가 자전거도 타고, 황포돛배도 타고, 예쁜 꽃 사진을 찍은 영산강에서 예전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 옛날 사람들은 이 강에서 무엇을 했을 것 같나요? – 그때 이 강이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 **활동 알아보기** • 함께 할 활동을 알아본다. – 어떻게 이 강이 영산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으며 알아보도록 해요.	
전개 (30분)	☑ **구전설화 '영산강 이름의 유래' 자료를 보며 이야기 나누기** • 등장인물을 보며 이야기를 상상해본다. – (등장인물 그림 자료를 제시하며) 이 이야기에는 누가 나오나요? – 할아버지와 한복입은 아주머니(며느리)는 어떤 사이일 것 같나요? – (원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이것은 여의주인데 누구의 것일까요? – 물고기와 배는 누가 사용했을까요? – 배를 이용해 무엇을 했을 것 같나요? – 너희들 생각에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나요? – 이 여의주가 배를 타고 가다가 강에 빠져 버렸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 ○○이의 생각처럼 지금도 여의주가 강에 있을까요? –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자 등장인물 및 자료(노인, 며느리, 배, 여의주, 물고기, 뱃사공 사진 등), 융판 유 유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상상해볼 수 있도록 한다.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30분)	☑ **구전설화 '영산강 이름의 유래' 듣기(※전체내용 앞장 참고)** • '영산강 이름의 유래' 이야기를 듣는다. 옛날 옛적 나주에 정 노인이 살았어. 정 노인은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지. 이를 전해들은 원님이 생각하길 '나는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는데 감히 근심 걱정이 없다니 말이 안 되지'하고 하루는 정 노인을 불렀어. 원님은 정 노인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의주를 내주며 "걱정없이 기쁘게 사는 그대가 기특하여 주는 것이니 잘 보관했다가 내가 보고 싶다고 할 때 가지고 오라"고 했어. (중략) 정 노인은 너무 기뻐서 원님을 찾아가 여의주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여의주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했어. 원님은 여의주를 찾은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어. "과연 당신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오"하며 정 노인에게 엄청나게 큰 상을 내렸지. 집에 돌아온 정 노인은 잉어를 잡았다는 강에 학교를 세우고 그 이름을 자신을 걱정하며 잉어 밥상을 차려준 며느리의 이름을 따서 '영산서원'이라 했어. 이때부터 이 강의 이름도 며느리의 이름을 따서 '영산강'이라 부르게 되었대.	자 등장인물 및 자료(노인, 며느리, 배, 여의주, 물고기, 뱃사공 사진 등), 융판 유 이야기를 상상하며 주의깊게 듣는다.
마무리 (5분)	☑ **경험 공유하기** • 활동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나눈다. – 여의주를 강에 빠뜨렸을 때 정 노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 너희들이 정 노인이었다면 강에 빠진 여의주를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 강에 여의주를 빠뜨리고 걱정에 아프게 된 정 노인을 볼 때 며느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 며느리는 왜 강에 가서 가장 크고, 맛있게 생긴 잉어를 샀을까요? – 정 노인은 원님에게 받은 상으로 무엇을 했나요? – 영산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 왜 며느리의 이름으로 학교와 영산강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 며느리가 정 노인을 걱정하고, 도우려 했던 아름다운 마음을 '효'라고 해요. – 며느리처럼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효(효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아빠, 엄마에게 어떤 효도를 할 수 있을까요? – 오늘 집에가서 친구들이 말한 효도를 실천해 보도록 해요. • 다음 시간 활동을 안내한다. – 영산강이 있어서 좋은 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요.	
평가 관점	☑ 영산강의 이름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가? ☑ 이름의 유래를 들으며 효의 의미를 경험하는가?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는 태도를 가지는가?	

2) 실행 과정

전개 **등장인물을 보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보기**



등장인물의 그림 자료를 보고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림 자료만 보고도 유아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에 유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었다. 유아의 이야기로도 한편의 동화가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유아가 상상한 이야기를 클로바앱으로 녹음하여 작성했음

- 세종대왕님이 "여기가 영산강이다" 라고 해주었을 것 같아요.
- 처녀귀신이 나왔을 것 같아요.
- 군사들이 나와서 이 문은(영산강) 함부로 들어가면 안된다 했을 것 같아요.
  "영산강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깊으니깐 영산강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 물고기가 구슬을 잡았을 것 같아요. 물고기가 소원을 빌어준거 아니예요?
- 여자는 "영산강의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 딱 한번 소원을 빌었는데 물고기가 소원을 들어주는 것 아닐까요?
- 세종대왕님이 소원을 빌었을 것 같아요.
- 아줌마가 세종대왕님께 "영산강에 이름을 지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니깐 세종대왕님이 잉어를 찾아가서 잉어에게 소원을 빌었어요.
  "이 강의 이름을 영산강이라고 지어주십시오."
  소원의 구슬, 이 구슬을 옷에 문질러서 이 강의 이름을 영산강이라고 지어주십시오.
  말하며 소원을 빌어라. 그리고 구슬을 강에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강의 이름이 영산강이 될 것이다.
- 멀리 깊은 곳에 던져라.
- 세종대왕님과 같이 배에 탄 노인이 "저 구슬 한번 만져 볼래요."근데 더 깊이 던지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세종대왕님이 노인에게 "구슬을 바다에 던져라" 노인이 "알겠습니다. 이 강의 이름을 영산강이라고 해주세요."
- 바다로 풍덩 빠졌는데 영산강에 빠뜨려야 하는데 잘못 빠뜨려서 물고기가 먹어서 "내가 다시 영산강으로 가져다 줘야겠네"하고 물로 갔어요. 그래서 영산강이 되었어요.

3) 수업 이후

유아가 영산강의 옛날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도록 환경판에 '영산강 이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구전설화 내용을 그려 유아와 함께 놀이시간 구성했다.

그러자 놀이시간 환경판 앞에서 인형극놀이가 시작되었다.





또한 바닥에 구성된 물길에 유아들이 경험한 영산강의 모습을 구성하며 놀이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빛가람 대교, 나주역, 킥보드길, 자전거길, 꽃길, 축구장. 그리고 교사가 들려준 '영산강 이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내용에서 나왔던 '잉어' 그림이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영산강 이름이 생기게 된 이유를 책으로 만들어 다른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하였다.

▶ 유아 제안) 영산강의 이름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책 만들기

유아가 제안한 '책 만들기 활동'을 수업으로 계획하며 교사의 고민

- 우리 반 유아들은 각기 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었기에(그림을 잘 그리는 유아, 말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유아 등) 서로의 역량이 보완되도록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18명 모두가 그림책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짝 활동으로 운영하고, 전체 이야기를 9~10개의 장면으로 나누는 방법을 고민함.
- 유아의 말을 녹음해 이야기책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인물 간 대화에 모든 유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두 명씩 등장하도록 이야기 재구성이 필요함.

▶ 그림을 보며 대사 만들어보기 "어떤 말을 했을까?"

유아가 그린 그림에 말풍선을 넣어 자료를 제작해주었다. 이미 영산강의 이름 이야기는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사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림을 함께 그렸던 짝꿍과 그림을 보고 역할을 정한 후 어떤 말을 했을지 상상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 선생님 저희 아직 못했어요.
교사: 무슨 일 있었나요?
유아: ○○이가 말을 안해요.
교사: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해보자.
걱정말아요.
애들아, ○○이 모둠이 아직 대사를
못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아: 우리가 같이 해주면 되잖아요.

교사가 사전에 충분히 유아의 발달수준과 성향을 고려해 짝꿍을 구성하였다고 생각했는데 한 모둠에서 문제가 생겼다. 짝꿍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 모든 모둠과 상호작용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모둠이 빠져 버렸다. 반 전체 친구들이 도움을 주며 함께 대사를 정한 후 교사가 해설을 하고, 이야기 순서대로 발표하였다.

교사 이야기

즉흥적으로 이야기가 추가 되는 발표 속 유아의 상상력

짝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역할과 대사를 정한 뒤 발표를 했다. 그러나 발표 도중 즉흥적인 이야기가 더해지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 시장 가게 역할극에서 한 유아가 "잉어 한 마리 주세요."라고만 말하자, 상대 유아가 "제일 큰 거? 아니면 작은 거?"라고 재치 있게 되물었고, 이어 "적당한 것 주세요."라는 답이 나오자 모두가 웃으며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정해진 각본이 아닌 즉흥적 대화가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지며 수업은 더욱 생동감 있게 전개되었다. 유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에 반응하고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배움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유아의 이야기를 태블릿 PC로 녹음한 후 클로바앱으로 옮겨 전사해서 동극의 대본으로 만들어보았다. 이것은 교사가 유아의 말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대본으로 유아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다.

유아의 동극 공연을 위해 방과후과정 교사와 상의하여 다음 주 한 주를 동극 준비과정으로 주간교육계획안을 계획하였다.

아이들의 이야기 동극대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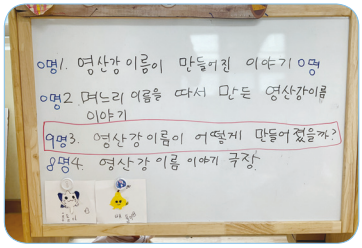
3주 '영산강 이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동극 하기

• 영산강 이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이름 바꾸기

교사는 활동명을 '영산강 이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로 정했으나, 유아는 환경판의 그림자료를 보며 '영산강 이름 이야기'라고 불렀다. 이후 더 좋은 제목을 만들자는 유아의 제안으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영산강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로 동극과 그림책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다.

투표로 정한 제목, 남은 아쉬움

학급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늘 손들기 투표를 활용해왔고,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제목을 정했다. 그러나 돌아보니 아쉬움이 남았다. 계획된 수업이 아니었고 놀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유아의 제안을 얼른 정리하려다 보니, 교사의 마음이 성급해져서 다수결로 결정하고 마무리했다. 결국 9명이 선택한 제목으로 정했지만, 4명의 소중한 의견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는 점이 마음에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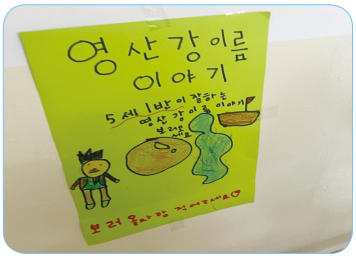
• '영산강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동극하기





• '영산강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동극 초대하기(방과후과정 연계)

초대장을 만들어 유치원 1, 2층 복도 및 급식실 앞에 붙이고, 초대를 받고 싶어하는 반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다.



• 동생반을 초대하여 '영산강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공연하기

지난주 유아가 유치원 곳곳에 붙여놓은 포스터에 동생반들이 참여 신청을 해주었다.

참여 신청을 한 동생반을 초대하자는 이야기를 유아들과 나누고 동생반 교사와 시간을 조정한 후에 동극 공연을 하기로 하였다.

교사: 동생들이 어느 쪽에 앉으면 좋을까요?
유아: (전에 공연할 때 우리가 앉은 곳) 이쪽에 앉아요.
유아: 근데 의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유아: 동생반 몇 명이예요?
교사: 4세 18명, 3세 14명이예요.
유아: 강당에서 가져와요.



동생들이 의자에 앉아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유아의 의견에 따라 강당에서 의자를 옮겨서 준비를 하였고, '영산강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동극을 공연하였다.



동극 공연 후 유아의 이야기 속에 배움이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았다.

4주 내가 좋아하는 영산강(2030 교실 수업)

• 수업의 시작

'영산강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동극을 통해 말하기 자신감을 얻은 유아들에게, 영산강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며 말하는 즐거움을 주고 싶었다. 유아가 더 재미있게 말하기를 경험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이전에 「시리동동 거미동동」 그림책을 읽고 말놀이를 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이를 확장하여 이번에는 영산강과 관련된 생각을 말놀이로 이어가며 말의 재미를 느끼고, 동시에 우리 동네 나주에 대한 애정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였다.

•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및 실행과정

1) 유아·놀이중심 활동계획안

활동명	영산강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기대되는 배움	• 말놀이를 통해 영산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 친구들과 생각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어휘를 경험한다. • 반복되는 리듬을 통해 말놀이의 즐거움을 느낀다.
교육과정 내용	•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 책과 이야기 즐기기 –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창의·인성 관련	• 창의성: 인지적 사고 – 사고의 수렴 사고의 확장 – 이야기 상상하기 동기적 요소 – 호기심·흥미 • 인성: 협력 –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집단 협력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 '영산강에 가면~' 말놀이로 동기유발하기 • '영산강에 가면 무엇이 있나' 노래에 맞춰 말놀이를 해본다. – 영산강에 가면 무엇이 있나? – 황포돛배가 있고, 자전거 길이 있고, 유채꽃이 있고, 양귀비 꽃이 있고, 에어바운스도 있고, 홍어 축제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 영산강으로 말놀이로 해보니 어떤가요? ☑ 활동 알아보기 • 함께 할 활동을 알아본다. – 친구들과 함께 영산강에 대해 재미있게 말놀이를 해봐요.	유 유아들이 돌아가면서 영산강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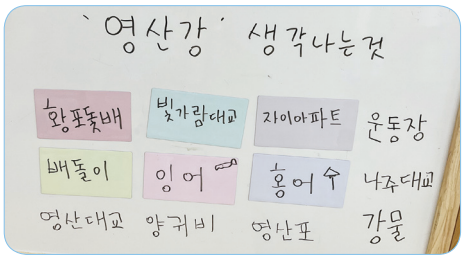
활동의 흐름	활동 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전개 (30분)	☑ **말꼬리 이으며 말놀이 하기** • 단어의 특성을 생각하며 말놀이를 해본다. – 이전에 시리동동 거미동동에서 말놀이 기억나나요? – 시리동동 거미동동에서 말이 어떻게 이어져갔나요? – '거미줄은 하얘, 하얀 것은 토끼처럼' 단어 뒤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할까요? – 영산강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 유채꽃은 우리가 같이 봤었죠. 유채꽃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 유채꽃 꽃잎의 모양은 어떤 동물과 닮았었나요? – 그럼 같이 말놀이 해볼까요? 유채꽃은 나비~ – '나비'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 '나는 것'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 비행기, '비행'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 그럼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유채꽃은 나비, 나비는 난다, 나는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여행 • 모둠별로 말꼬리를 이어 말놀이를 해본다. 〈영산강이 정말 좋아요 말놀이 방법〉 1. 모둠별로 영산강 단어 1가지를 고른다. 2. 토킹피스를 전달한다. 3. 단어의 특성을 생각하며 말을 이어본다. 4. 함께 말놀이를 해본다. – 우리 친구들이 영산강 단어카드를 1장을 골라볼까요? – 누구부터 시작해 볼까요? – 토킹피스를 전달하면서 말꼬리를 이어가 볼까요? –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개구리'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 개구리는 뛰어, 뛰는 것은 메뚜기, '메뚜기'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자 단어카드, 마카 유 영산강에 대한 유아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유 이전에 해본 말놀이 경험을 회상하며 말놀이에 참여한다.
마무리 (5분)	☑ **활동 공유하기** • 오늘 활동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 각 모둠에서 만든 말놀이를 소개해볼까요? – ○○모둠 말놀이를 들어볼까요? – 친구들이 말놀이 중 어떤 표현이 가장 재미있었나요? – 친구들의 말놀이 중 똑같이 표현된 부분이 있었나요? – 황포돛배를 선택한 ○○모둠과 ○○모둠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나요? • 다음 시간 활동을 안내한다. – 우리가 만든 영산강이 좋은 점 말놀이로 책을 만들어본다.	자 시리동동 거미동동 음원
평가 관점	☑ 말놀이를 통해 영산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가? ☑ 친구들과 생각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어휘를 경험하는가? ☑ 반복되는 리듬을 통해 말놀이의 즐거움을 느끼는가?	

2) 실행 과정

도입 영산강 하면 생각나는 것

영산강을 주제로 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체험학습까지 다녀오니 유아의 경험이 더욱 풍성해졌다. 그래서 “영산강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라고 묻자, 순식간에 칠판이 유아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유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했고, 그 속에서 영산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전개 영산강 말놀이 과정

모둠별로 선택한 단어카드를 활용해 영산강과 관련된 말놀이를 이어갔다. 유아가 말놀이를 해보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즐겁게 참여하였다. 특히 활동 전 ‘까마귀’ 뒤에 어떤 낱말을 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유아 스스로 ‘까마귀’와 연관된 적절한 낱말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잉어는 주황색	주황색은 오렌지
오렌지는 시다	신 것은 레몬
레몬은 노란색	노란색은 배돌이
배돌이는 유명해	유명한 건 홍어
홍어는 맛있어	맛있는건 라면
라면은 꼬불꼬불해	꼬불꼬불한 건 지렁이
지렁아는 길쭉해	길쭉한 건 가래떡
가래떡은 쫄깃해	쫄깃한 건 젤리
젤리는 맛있어	맛있는 건 스파게티
맛있는 건 스파게티	스파게티는 달콤해
달콤한 건 초콜릿	초콜릿은 부숴서 먹어
부숴지는 건 바위	바위는 딱딱해
딱딱한 건 벽돌	

유아가 ‘배’나 ‘홍어’와 연결되는 말을 스스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단순히 말놀이를 즐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말 속에 녹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유아가 알고 있는 다양한 어휘들을 스스로 꺼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친구가 잠시 망설이면 다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도와 말꼬리 잇기를 이어갔고, 아직 말하기가 서툰 유아의 차례에는 모둠 친구들이 함께 말해주며 순서를 챙겨주는 모습이 보여 마음이 따뜻해졌다.



전개 영산강 말놀이 과정 중 다툼 발생

총 4개의 모둠으로 진행하였는데 2모둠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문제상황 1)
영산강 단어카드를 자신의 앞에만 두려고 함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라고 유아들에게 물으니 "단어카드를 가운데 두면 돼요" 라고 해결 방법을 말하였다. 자신의 앞에만 두려고 했던 유아도 동의하며 다시 말놀이를 시작할 수 있었다.

문제상황 2)
언어발달이 조금 늦은 유아가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순서만 되면 "다시"라고 화를 내는 바람에 모둠 친구들과 문제 발생

말놀이를 하고 싶어 하던 유아는 친구가 계속 "다시"라고 말하자 속상해 화를 냈고, "다시"라고 한 유아는 말놀이가 어려워 표현이 서툰 상황이었다. 두 유아의 입장이 모두 이해되었지만 유아 눈높이에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 말놀이가 어려운 ○○이 옆에 앉아 함께 지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참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두 상황을 해결하고 나니 어느새 20분이 지났지만, 나머지 두 모둠은 스스로 말놀이를 이어가며 즐겁게 참여하고 있어 고맙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1모둠

강물-흐른다-영산강-길다-비행기-난다-까마귀-검다-박쥐-어둡다-동굴-무섭다-호랑이

2모둠

잉어-주황색-오렌지-셔(시다)-레몬-노란색-배돌이-유명해-홍어-맛있어-라면-꼬불꼬불해-지렁이-길쭉해-가래떡-쫄깃해-젤리-맛있어-스파게티-달콤해-초콜릿-부숴서먹어-바위-딱딱해-벽돌-시멘트

3모둠

자이아파트-높다-옥상- 넓다- 마을- 예쁘다-장미꽃-종이-접다-비행기-난다-까마귀-검다-낙서

4모둠

홍어-맛있다-치킨-바삭해-쿠크다스- 아삭아삭해-사과-달콤해-참외-노랗다-배-달달하다-과자

교사 이야기

말놀이 활동은 예상보다 유아가 즐겁게 참여하며 말도 척척 이어가는 흐뭇한 장면이 많았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참여했지만, 평소 언어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몇몇 유아들은 어려움을 보이기도 했다.

'영산강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동극을 통해 말하기 자신감을 얻은 유아가 이번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더 키우길 바랐으나, 일부 유아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활동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18명의 발달 수준을 모두 아우르는 수업을 계획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수업을 계획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교사로서의 고민이 다시 떠올랐다.

처음에는 몇몇 유아에게 짝을 지어줄까 고민했지만, 그렇게 되면 옆 친구에게 의지해 정작 스스로 말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결국 "조금 느리더라도 유아가 스스로 말해보는 도전을 경험하게 하자"는 것이 교사의 솔직한 마음이었다.

오늘 활동은 이러한 고민을 더욱 크게 다가오게 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참여했던 유아의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도 부담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교사와 친구 곁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는 배움이 있었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3) 수업 이후

▶ 유아 제안) "자꾸 잊어버리니깐 책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유아: 라면은 꼬불꼬불해 꼬불꼬불한 건 지렁이 지렁이는 그 다음이 뭐예요?
교사: 길쭉해.
유아: 길쭉한 건 그 다음은요?
유아: 그냥 자꾸 잊어버리니깐 저 것(영산강동시 노래)처럼 책으로 만들어요.

유아의 제안으로 말놀이 책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종이에 그림을 자주 그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놀이시간에 말놀이에 흥미를 보이는 유아들과 함께 태블릿 PC로 그림을 그려보았다. '바삭해', '아삭아삭해'와 같은 표현은 그림으로 나타내기 어려워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활용해 교사가 지원하였다. 이후 유아가 직접 그린 그림을 모아 모둠별 말놀이 책을 만들고 표지까지 꾸며 한 권의 책을 완성하였다.













유아들이 만든 책을 책꽂이에 꽂아두었더니 전이시간, 아침시간, 놀이시간 수시로 펼쳐보며 말놀이를 해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산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플로깅 활동을 계획했으나, 1주차에 했던 영산강 동시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교실 속 영산강 구성하기 놀이와 동극 놀이도 진행 중이라 모두 실천하지는 못했다. 2학기에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V

에필로그





1년간의 현직연구원 여정을

마무리하며...





김O아원감선생님

1년간의 현직연구원 여정을 마무리하며...

1년간 현직연구원들과 함께 2030교실 수업모델 개발을 위해 협력과 공동의 사고를 하면서 원감으로서 2030교실 수업의 방향과 교사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느끼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처음 만난 날이 떠오른다. 2030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교육 환경을 기반으로 유치원 미래수업의 주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공동의 사고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공동교육과정 작성을 위한 주제가 정해지고 주제에 따른 공통된 교육적 경험과 교육내용에 대한 생각을 모으고, 작성된 공동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협력적 사고를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유아 주도성을 키우기 위한 2030교실 수업을 실행하고, 실행한 과정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며 성장할 수 있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 유아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현직연구원들이 공동의 사고로 만든 2030교실 수업 모델 개발자료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어 유아 주도성을 키우는 2030교실이 정착이 되고 유아의 좋은 삶과 성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나 또한 2030교실 수업에 대한 배움과 성장을 2030교실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교사들과 나누고 공유하며 적극 지원하는 원감이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김○현 원감선생님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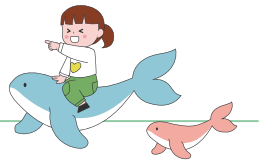
2030 교실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현직 연구원으로 보낸 1년은 나에게 매우 뜻깊고도 값진 배움의 시간이었다. 연구의 시작점이었던 첫 만남에서 연구원들을 만났을 때, 현장에서 유아교육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구에 임하는 분들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인상을 받았고, 앞으로의 1년이 단순한 과제가 아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연구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이러한 기대처럼 현직 연구원들과 자문위원 모두 유아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해 왔다. 현장의 실제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교사와 유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연구의 결과물을 완성해 가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의 깊이를 더하는 동시에 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교사와 유아 모두의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원들과 함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탐구해 나간 과정은 나에게 깊은 성찰과 성장을 안겨주었다. 이는 단순한 수업 방법의 개선을 넘어, 유아와 교사가 배움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르는 동시에 전남이 직면한 교육환경을 반영한 2030 수업 운영 사례를 연구한 경험은 올 한 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농산어촌 등 각기 다른 교육환경 속에서 공동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업을 연구하며 이어진 끊임없는 토론은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어우러져 연구의 깊이를 더해 주었고, 나의 교육적 시야를 한층 넓혀 주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 유아와 교사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을 보태고자 한다.

백OO이 선생님



• 유아 주도성에 대해 고민하다.

현직연구원이 정의한 유아 주도성이란 "유아가 자신의 흥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에 내가 사용한 언어와 유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아침마다 '유아 주도성 체크리스트'의 문장들을 읽으며 수업 속에서 유아 주도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 유아들의 선택이 더 깊은 배움을 만든다.

유아들은 여러 상황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점점 더 '스스로 해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신호등 소리를 듣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법을 토론하기도 했고, 간판 그림을 단서 삼아 가게를 추측하며 글자와 기호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유아들이 금연 표지판을 보며 환경과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배움의 소재가 될 수 있음을 느꼈다. 유아들의 눈과 귀가 열리니, 우리 동네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살아 있는 배움의 장이 되었다.

• 교사도 유아와 함께 배운다.



생활 주제인 우리 동네(빛가람동)는 나의 주거지가 아니었기에 때문에 유아들보다 내가 모르는 부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일찍 출근하여 유치원 주변을 걸으며 우리반 유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작은 노력들이 쌓여 활동을 계획할 때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졌고, 덕분에 활동 역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나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고, 동시에 교사도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게 했다. 교사의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실제 수업 속에서 유아들이 보여주는 생각과 발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의미있는 배움과 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 현직연구원으로서 1년을 마치며...

현직연구원 활동을 마무리하며, 나는 교사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배움들을 얻었다. 앞으로도 유아의 주도성을 존중하며 유아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정○임 선생님



•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만드는 공동교육과정

현직연구원 선생님들과 함께 '2030교실 수업'을 고민하며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었다. '우리 동네'라는 주제로 유아들이 경험해야 하는 내용과 교육목표를 세우고, 놀이 주제를 정하며 거기에 맞는 놀이, 활동, 일상생활 등을 정리했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유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점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 반 월간교육계획안을 짤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우리 유치원에서 1학기 교육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에 한 교사가 "월간교육계획을 짤 때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지 궁금하다"며 물었을 때, 나는 현직연구원들과 함께 '공동교육과정'을 짰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에게도 교육계획을 짜기 전에 각자 교육목표와 관련 놀이 및 활동을 생각해 와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제안하였다. 한 학급에 근무한다면 전문적학습공동체 선생님들과 함께 공동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유아의 주도성과 교사의 주도성이 함께 살아나는 2030교실

그동안 나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자유놀이 시간에 진행하고 있는 주제와 전혀 상관 없는 놀이나 단순히 반복되는 놀이도 존중하고 지원했던 적이 많았다. 심지어 교사로서 내가 계획한 놀이나 활동을 제안할 때는 왠지 모르게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물론 아이들은 내가 제안한 놀이나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하였고 그 안에 분명 배움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그동안 교사의 주도성보다 유아의 주도성에 더 큰 무게를 두었던 것 같다.

현직연구원 활동을 통해 나의 생각은 조금 달라졌다. 유아들의 진정한 배움을 위해서는 유아의 주도성 뿐만 아니라 교사의 주도성을 발휘한 세심한 계획과 의도적인 지원 또한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요즘 나는 아이들과 아침마다 그림책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교실 책꽂이에는 요즘 진행하고 있는 놀이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미리 꽂아두고, 유아들에게 아침에 함께 읽어볼 책을 직접 선정하라고 권한다. 아이들이 골라준 책을 함께 읽다 보면 유아들이 특히 흥미로워하는 장면이나 상황을 만나게 된다. 그 순간 유아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유아와 교사가 제안하는 놀이와 활동으로 확장해 나간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계획한 교육목표에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관찰하고, 나 자신의 교육적 의도와 조화롭게 연결하여 놀이와 활동을 제안하는 교사가 되고자 한다. 유아의 주도성이 빛나고, 교사의 주도성이 길을 밝혀주는 그런 균형 잡힌 2030교실을 만들어 가고 싶다.

박O현 선생님



처음 우리 동네에 대한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협의하며 마음이 무거웠다. 유아의 주도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교사가 계획한 활동과 유아의 개별적 흥미와 관심에 대한 존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많은 고민들 속에서 수석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아 교육과정이 계획되었고 유아들과 함께 진행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주도성이란 무엇일까?

유아 주도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유아들은 자신의 흥미를 바탕으로 놀이 방법에 대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유아 주도성이 단순히 활동을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유아가 자신의 흥미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유아와 교사가 함께하는 선택과 조절

유아들은 협력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 속에는 교사도 함께 존재했다. 유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활동을 이어 나감에 따라 교사의 주도성과 조절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활동의 흐름에 따라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을 파악하며, 교사의 주도성이 필요한 순간도 분명히 존재했다. 선택을 존중하되 그 속에서 조절해 나가는 과정은 유아와 교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유아의 배움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느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주도성

한 달여간의 활동이 마무리 되고 주도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유아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듯 각 유아가 가지고 있는 주도성의 모습도 달랐다. 어떤 흥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 다르듯이 그 속에서 보이는 주도성의 모습도 달랐다. 이러한 유아들의 주도성이 지속적이고 다채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아의 놀이와 흐름을 세심하게 관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은 선생님



“유아 주도성과 교사 주도성의 균형을 찾아서
-‘우리 동네’ 활동과 놀이를 통해 들여다보기”

‘우리 동네’ 주제 활동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계획한 방향을 기반으로 하되 유아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존중하며 활동을 재구성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의 자발적 탐구와 주도적 참여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교사는 이를 수용하며 활동을 적절히 전환·조정하는 전문적 교수 역량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유아의 흥미를 존중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교사의 교육적 의도와 목표가 과도하게 뒤로 밀려나서는 안된다.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30 교실 담론이 강조하는 ‘유아 주도성’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교사의 주도적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현직연구를 통해, 활동을 전개할 때 교사와 유아 사이의 적절한 상호작용과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적 의미와 목표를 잃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함을 깨달았다. 유아 주도성과 교사 주도성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사는 유아의 자발성과 호기심을 존중하되 교육적 방향성을 유지하며 목표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전문성을 함께 발휘해야 한다.

아직 교사의 역할을 어느 수준의 균형으로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지만, 이는 현장 연구와 유아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찾아가야 할 과제임을 느낀다. 교사와 유아, 두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균형 잡힌 교육과정 운영이 진정한 의미의 ‘유연한 교육과정’이라는 배움을 얻으며 현직연구를 마무리한다.

강○영 선생님



어쩌면 교사가 시작한 유아 주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스스로 해냈다.

'교실의 주도성을 유아와 교사가 함께 갖자'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나는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결정권과 주도권을 독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민주적으로 학급을 운영하는데 관심이 많은 편이며, 교실에서 여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 유아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반 유아들은 수용적인 친구들이 많아 때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나요?"라고 물으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불편한 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치지는 못했고, 일부의 유아들은 교사의 발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어떤 발문을 통해 유아들의 생각을 촉진할 수 있을지가 깊은 고민이었다. 생각해 보면 우리반 유아들의 성향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하고 표현하기보다 자신의 환경에 순응하면서 적응하는 데 익숙한 성향을 보인 유아들에게는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교사는 딜레마에 빠졌다.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있을 때 무언가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불편하지만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유아들의 모습도 그 자체로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반 유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않아 아직 발달에 이르지 않은 걸까? 고민의 끝에서 교사는 천천히, 스스로, 함께 수업을 이어 나갔고 근사하지는 않지만 자신들 생각의 속도에 맞춰서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유아들의 경험이 좀 더 풍부했다면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다 마치고 나니..

어쩌면 교사가 시작한 유아 주도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실행 과정이 유아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개선해야 할 때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그 또한 유아 주도성이 충분히 발현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정O라 선생님



‘우리 동네’에서 시작해서 ‘이야기가 흐르는 영산강’ 여정을 마무리하며...

2019 개정 누리과정 속에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경험하며 유아의 주도성에 모든 초점을 모았던 것 같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그렇다면 교사는 주도할 수 없는가?”라는 의문이 늘 자리했다. 우리 반 유아를 보며 교사의 교육적 지원을 통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교사의 주도성과 유아의 주도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2030 주도성 키움 수업을 시도해 보고 싶었다.

‘우리 동네’에서 시작해 ‘영산강’으로 이어진 수업 속에서 어떤 날은 유아의 주도성에 따라 수업이 자연스레 흘러갔고, 또 어떤 날은 교사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끊임없이 성찰하며 “우리 반에서의 주도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무엇보다 유아가 흥미를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그냥 하지 말까? 좋아하는 놀이하라고 할까?’ 하는 마음이 수없이 올라왔지만, 준비한 배움의 의미를 믿고 유아와 끝까지 도전해보려고 스스로를 다잡았던 것 같다.

현직연구원으로 2030수업을 실천하며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이었다. 유아를 더 세심히 관찰하고, 개별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하며, 어떤 경험을 제공할까를 끊임없이 계획하고 도전했다. 발문은 ‘유아의 주도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돌아보았고, 활동은 ‘우리반 유아에게 필요한가’를 성찰했다. 이를 위해 나의 수업을 녹음하여 나의 발문과 유아의 반응을 전사하고 다시 되짚어가는 과정은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그 과정은 교사로서 성장의 시간이었으며, 유아와 나의 변화를 만들어낸 밑거름이었다.

교사의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유아의 배움과 나의 배움도 함께 자라났다. 이 기록은 교사인 나의 성장이자, 우리 반이 함께 써 내려간 소중한 성장일기였다.

